

서울시, 노후건물 난방비 폭탄 막는 고효율 간편 시공 실증사업 추진

서울시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 김병석)과 함께 열효율이 낮은 노후 건물에 누구나 손쉽게 시공할 수 있는 '초간단 고효율 간편시공 실증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스요금 상승과 이상 한파로 인한 도시가스 사용량 증가가 겹쳐 시민들의 난방비 부담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단열재가 얇고 창호가 부실해 열효율이 떨어지는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고통이 더욱 커지고 있다.

국도교통부에 따르면, 건물은 사용연한이 지날수록 에너지 성능 및 단열 성능이 떨어져, 30년 전('85~'87) 건물은 최근('15~'17) 지어진 건물에 비해 난방 에너지사용량이 단독주택은 31%, 아파트는 43%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노후건물은 구조나 안전성 문제로 에너지효율화 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다수다. 또한 에너지 약자의 대부분이 세입자로서 에너지 효율화 사업에 대한 결정권이 없으며, 시공 후 임대료가 올라 불가피하게 이주해야 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한다.

최광수기자

이에 따라 서울시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그린리트로핏 연구단 강제식 박사)은 간단한 몇 가지 시공만으로 노후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초간단 고효율 간편시공' 실증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시범 실증사업은 30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노후공동주택을 대상으로 2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2개월간 진행되며, 실증기간의 에너지 사용량을 전년도 동기간 사용량 및 미실시군(시공하지 않은 옆동)과 비교한다.

시는 실증사업의 에너지효율 개선 효과가 입증되면 하반기에 달동네, 임대아파트 등 취약계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간편시공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이인근 기후환경본부장은 "에너지 위기시대 초간단 고효율 간편시공이 에너지 약자의 기후위기 극복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건물 온실가스 배출도 줄이고 에너지 약자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 인증제' 참가업체 공모

제15회 '경기도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 인증제' 온라인 접수 (03.06~03.17)

경기도는 쾌적하고 품격 있는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가로등·벤치 등 우수한 공공시설물 디자인을 인증하는 '경기도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 인증제'에 참가할 업체와 시설물을 3월 6일부터 17일까지 공모한다.

올해로 15회째를 맞은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 인증제는 경기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적합성과 활용성, 심미성 등의 심사기준에 따라 디자인이 우수한 시설물을 선정해 도가 최초 3년간 인증하는 제도다.

인증받은 시설물은 인증패와 인증서를 수여받음과 동시에 3년 동안 경기도 인증마크 'GGGD'(Gyeong-Gi Good Design)를 사용할 수 있으며, 디자인경기 누리집에 인증제품 게재, 공공디자인 심의 또는 사업 추진 시 우선 사용 권장, 도 및 산하 공공기관과 시·군에 설치를 권장·홍보할 수 있는 혜택을 받게 된다.

접수는 3월 6일부터 3월 17일까지 '디자인경기' 누리집을 통해 받는다. 인증제 신청 대상은 공공시설물 디자인을 직접 개발하고 생산·유통·사후관리(A/S) 등이 가능한 국내업체(개인 및 법인)와 현장 설치가 완료된 자체 표준시설물 디자인을 보유한 도내 지자체 및 산하기관이다.

대상 품목은 대중교통·보행안전·편의·공급·녹지·안내 등 공공시설물로, 시장에 이미 출시됐거나 출시 예정인 것 또는 현재 개발 및 제작이 완료된 것이어야 한다. 경기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적합성, 사용성, 심미성·창의성, 경제성, 환경 친화성, 업체의 생산능력 등 항목별 점수로 평가하게 된다. 총 100점 만점에 평균 70점 이상인 공공시설물은 경기도 우수디자인으로 인증받게 된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관련 기관·단체에 대한 인증제품 홍보를 강화하고,

2023 경기도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 인증제 온라인 접수기간 23. 3. 6. - 3. 17.

접수 방법 및 자격 확인 : 디자인경기 홈페이지 design.gg.go.kr

인증제에 지원했던 도내 중소기업들 다.의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이다

조혜영기자

경북도, 고물가 총력 대응! 민생경제 안정에 두팔 걷었다!

도-시군 긴급 실무회의 개최, 공공요금 안정화 방안 논의

연일 치솟는 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경북도와 시군이 머리를 맞대 지혜를 모았다.

경북도는 15일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 민생경제부서와 시군 담당관 등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물가 대응 민생경제분야 도-시군 긴급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서민 물가 안정화

를 위해 상하수도, 택시, 시내버스, 쓰레기봉투 등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경북도 차원의 공공요금 안정관리 대응책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특히 도에서는 올해 상반기 지방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시군에 대해 하반기로 인상시기를 지연하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지방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해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상인 등 접포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대상이 없도록 시군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당부했다.

한편, 경북도는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한 2022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 실적 종합평가에서 '우수등급'을 획득해 재정 인센티브 2억 5000만원을 지급받았으며, 지급받은 포상금은 도내 물가안정을 위해 신규사업을 계획 중에 있다.

또한 회의에서는 코로나 및 고물가에 대응코자 도내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에 필요한 맞춤형 정책지원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금년도 민생경제분야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소상공인분야에는 소상공인의 지식 재산 피해 예방을 위해 특허 및 상품권 등록을 250개 점포에 지원하고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확대를 위해 아카데미 교육, 디지털콘텐츠 제작 지원, 특별기획 프로모션, 크라우드 펀딩, 라이브 커머스 등 340개 점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시군에는 SNS, 전광판 등 홍보채널을 활용해 지



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이 발굴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통시장분야는 아카데미 보수, 상인 및 고객이 공동 이용하는 시설 설치, 개·보수 및 확장 지원 등 노후화된 전통시장의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11개 시장을 지원하고 전통시장을 이용객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건립 및 개보수 사업으로 10개 시장을 지원한다.

안전한 전통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시설 개·보수에 7개 시장, 화재예방설치 시설 구축 지원 1개 시장, 노후전선 개선 사업 2개 시장을 지원한다. 화재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전통시장에 특화된 화재공제 가입지원을 3,800여개 점포에 지원한다.

시군에서는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국비 확보 건의, 화재공제 지원사업 추진 시 지자체 정보 공유 등을 건의했다.

경북도에서는 시군과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국비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전준비와 대응으로 예산확보에 협조하고, 특히 화재공제 사업은 가입현황 자료 공유와 더불어 가입률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다.

황인수 경북도 사회적경제민생과장은 일선에서 민생현장을 책임지는 시군 담당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물가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골목상권 활성화, 전통시장 디지탈화 지원 등 지역상권 자생력 강화와 소상공인 매출 향상에도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GoldenCity 경주시
2025년 제32차 APEC 정상회의
경주유치에 도전합니다!
경주! 한국을 넘어 세계로!

질병관리청, '로타바이러스 백신' 무료 접종 첫 실시

3월 6일부터 시작, 영유아 급성설사 예방 및 부모님 비용부담 완화 기대

질병관리청은 3월 6일부터 로타바이러스 백신을 국가예방접종으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로타바이러스는 영유아에게 심한 설사와 구토 등을 일으키며, 쉽게 확산되므로 산후조리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집단적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로타 백신은 그간 선택 접종으로 예방접종 비용 전액을 부모가 부담하거나 일부 지자체에서만 지원을 받았으나 국가 필수예방접종에 포함되면서 전국 어디든지 동일하게 무료 접종이 가능하게 된다.

접종대상은 생후 2~6개월 영아들이며, 현재까지 국내에서 사용이 허가된 입으로 먹는 방식의 두 종류

의 백신(로타릭스, 로타텍) 모두 활용 가능하다. 로타 예방접종은 사용하는 백신 종류에 따라 2회 또는 3회 접종을 마쳐야 충분한 예방 효과를 얻게 된다. 두 백신 모두 다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효과와 안전이 모두 입증되어 부모님들께서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하나, 1차 접종 이후에는 동일 제조사 백신으로만 모든 차수를 완료해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

로타 백신은 타 백신과의 동시 접종이 가능하므로, 표준 접종일정이 비슷한 B형간염이나 폐렴구균 등 다른 영유아 예방접종과 같은 날에 접종할 수 있다.

로타 예방접종은 주소지와 상관없

이 전국의 위탁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가능하며, 사용하는 백신 종류별로 가까운 접종기관 현황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은 전세계 114개국에서 광범위하게 시행하고 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24개국에서 이미 국가접종으로 시행 중인 만큼 효과와 안전이 입증됐다"며, "이번 로타바이러스의 국가예방접종 도입으로 부모님들의 비용부담을 낮추고, 가장 어린 시기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더욱 든든하게 보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성지아기자

경기도의회 제19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우수조례 단체부문 최우수수상

경기도의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우수조례 '단체부문 최우수' 수상



경기도의회는 17일 수원 아주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제19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선정'에서 단체부문 최우수상 및 개인부문 대상 등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한 제19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에서 경기도의회는 단체부문 최우수 1건, 개인부문 대상 1건, 최우수상 3건, 우수상 5건으로 전국 33건의 수상 조례 중 10건을 수상했다. 남경순 도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발의 의원 10명이 시상식에 참석하여 우수조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누렸다.

그동안,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지방의회로서 사명감을 갖고 지역사회 발전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각종 토론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조례를 발의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온 결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령을 이끌어 냈다.

단체부문 최우수상에 김미숙 의원

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외교 활동에 관한 조례'는 지역 외교활동에 관하여 정하려는 것으로, 경기도가 외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경기도의 풍부한 문화자산·고유정책, 한국어 보급 등을 통해 경기도를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긍정적인 이미지 형성 및 위상을 제고하는 등 경기도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인부문 대상은 '경기도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조례'를 발의한 최종현 의원이 수상했고, 최우수상에 '경기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김종배 의원, '경기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정승현 의원, '경기도 자살유족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조성환 의원 등 3명이 수상했고, 우수상에는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발의한 김성

수 의원, '경기도 공사장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지원 조례'를 발의한 김태형 의원, '경기도 씨름 진흥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문형근 의원,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발의한 안광률 의원, '경기도교육청 성폭력 피해 교직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발의한 정윤경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수상했다.

경기도의회 남경순 부의장은 수상 소감을 통해 "조례 발굴에 노력해 주신 의원님들에게 감사드리며, 의원님들의 노력으로 경기도의회가 지난 해에 이어 최다 수상하게 되어 경기도의회의 위상을 전국에 빛냈다"고 말하고, "다가오는 자치분권 시대의 핵심 동력인 우수한 자치입법 역량을 통해 지역발전과 도민들의 삶에 기여하는 자치입법에 더욱더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혜영/기자

이춘우 경북도의원, 제19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최우수상

「경상북도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로 수상해

경상북도의회 이춘우 의원은 지난 17일, 아주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제19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경상북도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로 개인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1988년 창립해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을 위해서 꾸준히 학술적 논의를 진행해 왔으며, 2004년부터 자치입법의 실질적인 기여하기 위해 우수조례를 선정해 개인 및 단체 등에 시상하고 있다.

제19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는 전국 광역 및 기초의회 의원발의로 2021년 9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사이에 제·개정된 추천조례 중 지방자치법 및 행정법 전공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우수조례 선정심사 특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본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개인부문 최우수조례에 선정된 이춘우 의원 대표발의 「경상북도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는 도내 실종자 발생 예방과 조속한 발견·복귀를 도와주고 실종자와 그 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

정됐다.

조례는 주요내용으로 조례에서 정하는 실종자를 18세 미만 아동, 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 치매환자, 자살위험자로 정하고, 실종자 발생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연간 시행계획 수립과 주민지원 사업 등의 정책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실종자 발생 예방을 위한 주민교육·홍보를 실시하고 수색에 필요한 물품이나 장비 지원하며, 방법치안 민간단체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실종자를 조기에 발견하도록 하였다. 더불어, 드론과 같은 첨단 수색 장비를 활용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실종자를 찾도록 하고, 이를 운영하는 민간단체와 협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춘우 의원은 "경북은 노인인구의 증가로 가정이나 시설에서 보호하고 있는 치매환자가 길을 잃고 실종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들을 발견하기 위해 지역 경찰이 주도적으로 찾고 있으나,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도움 없이는 대규모 수색 활동은 어려운 실정이었다"며, "조례를 통해 도내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확대로 실종자 본인



그 가족이 입는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조례 제정이유를 전하며, "앞으로도 도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수시로 소통하며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지역 발전의 원동력과 혁신역량을 더욱 키워나가는 것은 물론 정부와 도 차원의 정책 지원을 이끌어내는 가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윤근수/기자

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 아동의 놀 권리 실현 위한 '수원특례시 테마파크' 건립 촉구

수원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이 15일 열린 제373회 수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대에 올라 '수원특례시 테마파크 건립'을 요청했다.

김동은 의원은 지난 제371회 수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를 발의했으며, 해당 조례는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해 11월 10일자로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다.

아동의 '놀 권리'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명시한 아동의 권리 중 하나이자 행복추구권으로부터 도출되는 기본권이다.

김 의원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에 의거하여 수원시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해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할 때"라며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체감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2021년 기준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구는 229만 9,000가구로 전년도 대비 13만 5천가구가 늘었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며 가족의 여행지는 해외 장기휴가 대신 국내 단기휴가 목적지를 찾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며 지난 6월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러한 사회적 상황 속 테마파크의 설립은 지역 이미지를 제고하고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는 경제적인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문화산업"이며 "관광객 유치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또한 클 것으로 기대한다"며 테마파크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물론 테마파크 건설에 막대한 초기 투자비가 소요되고 시설 유지 및 보수 또한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세계적인 문화유산을 가진 수원 어린이 테마파크가 조성된다면 수원 대표 관광 산업으로 발전할 것이

다"고 전망했다.

또한 "수원시는 지난 5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을 받았다"며 "모든 아동이 놀 권리를 충분히 누리면서 사는 도시, 어린이가 살기 좋은 도시로 인정받았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는 동시에 더 발전해야 한다는 책임감 또한 커졌다"고 말하며 테마파크 설립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본 의원의 추역 속에 있는 '수원 원천유원지'를 떠올리며 우리 아이들에게도 좋은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며 5분 자유 발언을 마쳤다.

조혜영/기자

강원도의회 '강원미래정책연구회' 현지시찰 실시

강원도의회 강원미래정책연구회(회장 최재민, 국힘(원주4))는 2월 17일 경기도 하남시의 폐기물처리시설인 유니온파크를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이동학 '쓰레기센터' 대표로부터 "왜 지구의 절반은 쓰레기로 뒤덮이는가?"라는 주제로 특강을 들었다.

이번 현지시찰에서는, 국내 최초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화하고 지상을 물놀이시설과 공연장 등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로 조성하여 환경분야 신개념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는 유니온파크를 둘러보며 강원도에 적용할 수 있는 사례에 대

해 논의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고, 이어서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 위원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지낸 이동학 '쓰레기센터' 대표를 모시고 세계 각국이 직면한 쓰레기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에 대해 강의를 듣고 향후 강원도의 쓰레기 분리배출과 재활용 빈도를 높이는 정책 대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강원미래정책연구회 최재민 회장은 이번 현지시찰과 강의를 통해 '자원 재순환의 관점에서 강원도의 미래 환경정책을 고민하고 폐기

물처리시설은 곧 혐오시설일 것이라는 막연한 고정관념을 깰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지역 현안과 관련된 다양한 선진사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좋은 정책을 잘 배워서 더 좋은 강원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미래정책연구회는 쓰레기 문제를 포함하여 기후변화와 환경, 농산어촌 인구소멸, 저출산·고령화, 연금개혁 등 강원도의 미래정책을 연구하고자 강원도의회 45세 이하의 젊은 의원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동원/기자

충청남도의회 "도지사와 출자·출연 기관장·임원의 '임기 일치' 추진"

충남도 출자·출연기관장과 도지사의 임기를 일치시키기 위한 '충청남도 정부·정책보좌공무원 및 출자·출연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이 16일 제342회 임시회 6차 기획경제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충청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양경모 의원(천안1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정부·정책보좌공무원 및 출자·출연기관장과 임원의 임기를 임명권자인 도지사의 임기와 일치시켜 책임있는 도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됐다.

조례안은 도 정책보좌공무원을 비롯해, 도 소관 출자·출연기관의 장과 임원이 적용대상이며, 정부·정책보좌공무원과 출자·출연 기관장 및 임원의 임기를 도지사와 일치시켜 새 도지사가 선출될 경우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가 남더라도 종료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이 "신임 도지사와 전임 지사 임기 중 임명된 출자·출연 기관장, 임원 및 정부·정책보좌공무원의 잔류 문제를 두고



발생하는 불필요한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조례 발의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정책보좌공무원은 물론, 출자·출연기관장과 임원의 임기를 제도화해 사전에 폐단을 방지하고, 도지사와 기관장들이 도정 운영 철학을 함께 함으로써 최대의 시너

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또한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민선8기 임명하는 기관장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1일 제3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최정근/기자

문화매일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1899.9659

대표이사·발행인:최수진 ·편집국장:최재은 ·부회장:박유석, 임석경 청소년책임보호자:최수진

(주)문화매일 등록번호 서울 아 50710 등록일 2013-07-12 제호: 문화매일신문 | 등록번호: 서울 가 50146 | 등록일: 2009-04-20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편집국:02.2612.2959	정치부:내선 (112)	문화부:내선 (116)
광고국:1899.9659	사회부:내선 (113)	부동산부:내선 (117)
	경제부:내선 (114)	오피니언부:내선 (118)
	스포츠부:내선 (115)	지방부:내선 (119)

서울본사: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로 534 4층 411호
경기본사: 경기 광명시 시청로 7 흥신 에이스텔 701호

사외(社外)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서울시, 함께 도전하는 156.5km! 서울둘레길 '100인 원정대' 모집

서울둘레길 대표 트레킹 프로그램 "서울둘레길 100인 원정대" 2월 18일부터 온라인 접수

서울을 둘러싼 156.5km의 서울둘레길 완주는 개통 후 현재까지 6만여 명이 완주했을 정도로 열정과 성실함이 필요한 트레킹 코스다. 서울둘레길 완주에 성공하고 싶다면 다함께 같은 목표를 향해 도전해보는 '100인 원정대'에 참여해보면 어떨까?

서울특별시 서울둘레길의 대표 트레킹 프로그램, "서울둘레길 100인 원정대" 참여자를 2023년 2월 18일부터 2월 28일까지 온라인으로 모집한다.

100인 원정대는 2014년 둘레길 운영을 시작한 이래 진행하고 있는 둘레길 대표 트레킹 프로그램이다. "100인 원정대"에 선발되면 매주 토요일마다 숲길등산지도사 등 전문가와 100인이 다 함께 10km 이상의 거리를 10~12회에 걸쳐 걷게 되고 순차적으로 156.5km를 완주하게 된다.

서울둘레길은 총 156.5km로 혼자 걷기에는 다소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 '초심자들이 트레킹 전문가의 안내를 받으면 완주가 수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시작된 100인 원정대는 올해로 13회차를 맞이했다.

100인 원정대는 숲길등산지도사와 같은 전문가가 건강한 걷기 방법을 안내하고, 10명씩 조별로 함께 걷기 때문에 시작이 두려운 초행자도 도전하기 좋은 프로그램이다.

'22년 서울둘레길 개별 완주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가장 많은 사람(55.4%)이 완주하는데 9주 이상 걸렸으며, 7~8주(16.0%), 5~6주(11.9%), 3~4주(10.5%), 1~2주(6.2%)순으로 응답했다.

무엇보다 완주를 위해서는 꾸준히 참석해야 하는 성실성과 열정이 필요하다. 총 11~12회에 달하는 소중한 토요일 주말 시간을 둘레길 완주에 오롯이 투자해야만 완주자에게 주어지는 메달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22년 100인 원정대 지금 기념품은 메달이었으며, '23년 기념품은 서울둘레길 운영위원회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걷기 운동이 몸에 주는 긍정적인 영향과 사람들과 만나고 소통하며 걸을 수 있다는 것, 완주 후의 성취

감을 생각하면 한 번쯤 도전해볼 만한 걷기 프로그램으로 올해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싶다면 '100인 원정대'에 참여해보자.

'22년 100인 원정대는 총 11회에 걸쳐 156.5km를 완주했으며 전체 참석률은 평균 80%, 완주자는 84명이었다.

둘레길 안내센터(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관리) 두 곳(도봉구 서울창포원, 서초구 매현시민의숲)에 갖추어져 있는 체성분 분석 장비(인바디)를 이용하여 건강 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고, 개인정보 없이 회원번호만 등록하면 장기간 분석기록을 유지할 수 있으니 둘레길을 이용하면서 지속적으로 활용해도 좋을 것이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100인 원정대는 10명이 한 조가 되어 156.5km를 함께 완주한다. 둘레길을 걷는 동안에도 미션이 주어지며 그에 대한 보상이 마련되어 다양한 즐거움을 선사할 계획이다.

100인 원정대 조원의 출석률, 모



서울특별시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서울둘레길 100인 원정대 모집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는 명품 서울둘레길을 함께 완주할 수 있는 13기 서울둘레길 100인 원정대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행사기간	행사일시 : 2023년 3월 25일(토)~6월 10일(토) 매주 토요일
모집기간	2023년 2월 18일 ~ 2월 28일(화)
모집대상	주변 도움 없이 서울둘레길 156.5km를 걸을 수 있는 누구나
모집인원	100명
참가신청	서울둘레길 홈페이지 및 공식카페 참고 ※ 참가자 발표 2023. 03. 08(수) 16:00 문자 개별 통지
참가비	무료
문의	서울둘레길안내센터(02-779-7902~4)

서울둘레길안내센터

임시간 준수, 틈새 시간에 진행되는 게임 결과, 플로깅이 우수한 조 등을 대상으로 소소한 선물을 제공하는 이벤트 등을 개최한다.

100인 원정대 참여는 홍보포스터에 있는 QR코드 또는 URL을 통해 접속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과정을 거쳐 100인이 선정되고 문자로 개별통지 된다. 참가비는 무

료이며 주변 도움 없이 트레킹이 가능하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100인 원정대 운영 일정 등은 서울둘레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푸른도시여가국 공원여가사업과 또는 둘레길 안내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유영봉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

은 "서울둘레길 완주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도 있겠지만 전문가와의 건강한 걷기를 통해 활력도 얻고 모두 함께 서울둘레길을 완주하며 특별한 성취감을 느끼길 바란다"며 "2023년 100인 원정대 모집에 관심있는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최광수/기자

금천구, 해빙기 시설물 안전점검 추진

금천구는 3월 3일까지 해빙기에 대비하기 위해 재난취약시설 및 도로시설물 등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해마다 2~3월이 되면 겨울철에 얼었던 땅이 녹기 시작하면서 지반구조가 약화 돼 건설공사장, 축대, 옹벽 등의 균열, 붕괴 등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구는 관리 시설별 점검반을 편성해 △ 굴토 공사장 11곳 △ 안전취약시설(D급) 7곳 △ 급경사지 66곳 △ 교량, 터널, 옹벽 등 도로시설물 32곳 △ 산사태 취약시설 19곳 등 총 135곳에 대한 일제 점검에 돌입했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 △ 공사장 인접 노후주택, 축대, 경사지의 안정성 △ 안전취약시설의 지반침하, 균열, 지붕 누수 여부 △ 급경사지 토사유출 및 붕괴 발생 여부 △ 옹벽 변형 및 배부름 현상 등을 점검한다.

안전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조치하고, 건물붕괴 등 위험상태가 발견되면 출입통제 등 응급조치 후 보수·보강공사 등을 통해 도출된 위험요인의 사전 제거 및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게 된다.

점검 결과와 추진내역 등은 서울시 안전점검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2월 20일부터 3월 17일까지는 LPG충전소 등 가스공급시설 6곳과 독성가스 사용시설 2곳 총 8곳을 대상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 점검에 나선다.

가스시설 적정 유지관리 및 안전장치 정상 작동 여부와 저장시설, 배관 등 외부 노출 시설의 부식 및 누출 방지 여부 등 주민 안전과 밀접한 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금천구는 지난 2월 14일 지역 내 노점 60곳을 대상으로 긴급 안

전점검을 실시하고, LPG 사용자에게 안전한 가스 사용 방법을 안내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이번 안전점검을 통해겨우내 얼었던 노후 시설물들의 균열, 붕괴 등 위험요인들을 제거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박황신/기자



유해업소 밀집거리를 청년창업거리로 바꾼 성북구! 지방정부 정책대상 우수상 수상!

서울 성북구, '삼양로 정비 및 길음청년창업거리 조성' '2022년 지방정부 정책대상' 우수상 수상

불법 유해업소 밀집 거리를 청년창업거리로 변화시킨 서울 성북구의 '삼양로 정비 및 길음청년창업거리 조성' 정책이 '2022년 지방정부 정책대상' 우수상을 수상했다.

(사)한국지방정부학회가 주관하는 '지방정부 정책대상'은 최근 3년간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시행한 정책 중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타 지방정부의 모범 사례가 되는 우수정책을 발굴·시상하여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자 제정된 상이다.

삼양로는 지역의 대표적인 불법유해업소 밀집거리로 주민으로부터 외면받는 거리였다. 성북구는 민선7기 시작과 함께 행정-주민-경찰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는 등 삼양로의 변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2018년부터 2023년 2월 현재까지 삼양로 일대 총 37개 유해업소 중 20여 개 업소의 폐업을 유도했다.

이와 함께 성북구는 전국에서 대학이 가장 많고(8곳) 다수의 청년이 거주, 활동한다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주민이 기피했던 삼양로를 청년이 마음껏 도전하고 꿈을 펼치는 길음청년창업거리로 조성하는 노력



도 기울였다. 불법유해업소가 폐업한 빈 점포를 활용해 청년의 창업을 지원, 총 7곳의 청년 점포가 문을 열었다.

이와 함께 창업 관련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는 청년거점공간 '길:이음', 창업 실험공간 '공업사' 조성과 운영, 지역상점과 주민이 함께하는 거리마켓인 '두근두근 별길마켓' 개최 등을 통해 청년이 도전하고 꿈을 키우는 거리, 문화가 숨 쉬는 거리로 차근차근 변화시켜왔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주민으로부터 외면받았던 삼양로가 머물고 싶고 도전하고 싶은 젊음의 거리로 변화한 것에는 목뭉치 말은 바 최선을 다한 성북구 공직자, 행정과 함께 단속 현장을 누빈 구민,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협력 덕분에 지방정부 정책대상 우수상을 수상했다"면서 "앞으로도 성북구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정책 발굴과 노력을 펼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강성원/기자

은평구, 2023년 아동친화도시 조성 시행계획 수립

기본계획 이행을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서울 은평구가 아동이 행복한 은평으로 나아가기 위한 '2023년 아동친화도시 조성 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아동정책을 상징하는 '내일의 희망인 아동이 행복한 도시 은평'을 비전으로 아동친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구는 유니세프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복지 향상과 아동권리 보장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2020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취득했다. 이후 다양한 아동 관련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며,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관리하고 있다.

올해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의 목표 이행을 위한 3년 차 연차별 시행계획이다. 지난해 추진실적을 검토해 기존 우수한 점은 계승하고 부족한 부분은 개선하는 것을 중점으로 올해 계획을 수립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건강 ▲참여 ▲안전 ▲교육 ▲돌봄 등 5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3개 추진과제, 64개 세부 사업을 구성했다. 앞으로 구청 각 분야 19개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 사업을 추진한다.

구정의 시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계획에 주요 현안을 반영했다. 새로운 사업으로 친구야 놀자 창의프로그램 운영, 어린이보호구역 LED

바닥신호등 설치 등 11개 사업을 추가했다. 은평미래교육지구 추진, 은평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운영 등 2개 변경 사업이 기존 사업을 대체한다.

시행계획 이행 사항은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해서 관리한다. 이를 통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내년 계획에 반영하고, 관련 부서 간의 협업을 통해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한다는 구

상이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아동은 우리의 미래며, 아동이 행복한 도시는 우리 모두가 행복한 도시"라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써 아동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겠다. 아이들이 항상 웃을 수 있는, 아동이 행복한 은평으로 나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만식/기자



서대문구, 빛과 예술이 흐르는 문화공원 흥제천 조성한다

서울시의 '2023 도시경관 개선사업 공모'에서 최종 선정돼

서대문구는 최근 서울시가 주관한 '2023 도시경관 개선사업 공모'에서 '빛과 예술이 흐르는 문화공원 흥제천 조성 계획'으로 응모해 최종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흥제천 폭포마당에 조성된 수변카페를 기반으로 흥제천을 명실상부한 서울시 대표 명품 하천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계획을 담고 있다.

구는 폭포마당을 거점으로 흥제천 경관을 개선하고 공공 디자인을 통합 적용해 시민 중심의 매력 있는 공간을 조성한다는 목표다.

구체적으로는 상설 무대 설치, 인공폭포 미디어 아트 연출, 수변카페를 활용한 프로그램 기획 등으로 흥제천을 '빛과 예술이 흐르는 명품 하천'으로 만들 예정이다. 이성현 구청장은 "문화공원 흥제



천 조성사업이 '흥제유연' 등 기존 문화예술 거점들과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며 서대문구의 도시 경쟁

력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이민근 안산시장, 염태영 부지사 면담 "경제자유구역 지정 협조" 당부

안산시는 경제자유구역(Korean Free Economic Zones) 지정에 시정 역량을 집중하고 제조업 중심의 도시 경제를 신산업 중심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지난 16일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를 면담하고 '안산사이언스밸리 일원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에 경기도의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해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글로벌 앵커기업을 유치해 지속 가능한 4차산업 혁신도시 구축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이민근 시장은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면 2차산업 위주인 안산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IT·로봇·수소·신재생에너지 등 혁신 성장 동력을 발굴해 안산이 미래 산업의 중심지가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안산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위치적 여건이 매우 우수한 지역"이라며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용역에 시의 입장을 잘 반영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일자리 늘리고 인구유입까지 '일석이조'



안산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역량을 집중해 산업체질을 개선하고 기업유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바탕으로 인구 유입까지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둔다는 구상이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노동·경영 관련 규제 특례가 적용될 뿐만 아니라 투자 규모에 따라 지방세와 관세가 감면되는 등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받는다.

앞서 지난해 11월 상록구 사동의 안산사이언스밸리 일원이 경기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서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 용역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 대상지는 한양대 ERICA 캠퍼스 혁신파크와 경기테크노파크 등을 포함한 총 면적 3.73km²이다.

해당 지역은 한양대 ERICA 캠퍼스와 경기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200여 개의 중소·벤처기업들과 4600여 명의 연구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전국 유일의 집적 연구단지로서 산·학·연 혁신생태계 구축이 가능해 경제자유구역의 정책 방향에 부합한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최정부기자

평택시, 2023년도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

평택시는 올해 상반기 중 1조 407억 원을 집행한다. 신속집행 부문 예산액 1조 7,201억 원 중 60.5%로 행정안전부 목표인 55.7%보다 4.8% 높은 수치이다.

이를 위해 2월 16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정장선 시장 주재로 '2023년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고금리, 고물가 지속에 따른 서민경제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상반기 중 속도감 있는 재정투입을 위해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집행으로 공공부문을 지역경제 활성화에 선도하기 위해서다.

집행을 제고하기 위해 매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선급금 지급 등 관련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신속하게 집행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특히, 동절기 공사 중지 등으로 집행이 부진한 대규모 투자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취약계층, 소상공인을 위한 민생 안정 예산을 적기에 집행할 방침이다.

정장선 시장은 "전 부서가 실국소장 책임하에 추진사업 전반을 점검하고 추가로 집행이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속집행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평택시는 매일 부진 사업을 대상으로 집행사항 집중 점검 및 보고회를 개최하여 상반기 신속집행과 1분기 소비·투자의 목표를 달성하여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경기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양시현기자

부천시, 소통과 공감 리더십으로 공직혁신 이끈다



부천시는 시민이 체감하는 일 잘하는 공직사회 구현과 공직문화 혁신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9일과 10일 라비둘리조트에서 '6급 팀장 공감·소통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중간관리자인 6급 팀장의 역할과 책임의 명확한 이해와 후배 직원의 발전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준비됐다.

이날 부천시는 공직 내부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 강사를 초빙해 ▲세대공감 MZ세대의 이해 ▲리더의 역할 인식 및 코칭 리더십 ▲소통 역량 강화 등의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다.

서로 간 허심탄회하게 소통하고,

격려와 응원을 나눌 수 있는 다양한 소통 코너도 진행됐다. 조용익 시장이 직접 참여한 '통통 토크쇼'를 통해 민선 8기 시정방향을 공유했으며, '팀장이 묻고 시장이 답하다', '생각의 나눔, 공감 타임' 등을 통해 직원들의 노고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공직자의 공감과 소통능력은 시민의 행복을 실현하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며 "앞으로도 수평적이고 열린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소통 시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용민기자

거북섬 해양레저 클러스터 활성화 꾀하는 시흥시, 2023 서울국제스포츠·레저 산업전서 홍보활동 '총력'

흥시가 2월 16일부터 2월 19일까지 4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3 서울국제스포츠·레저 산업전(SPOEX)'에 참가해 거북섬 해양레저 클러스터 홍보에 나선다.

SPOEX는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무역협회 등이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후원하는 행사로, 수중·수상 스포츠, 헬스·피트니스, 캠핑·아웃도어, 익스트림 스포츠 등이 전시되는 국내 최대 규모이자 아시아 톱(TOP)3에 속하는 스포츠·레저산업 종합전시회다.

이번 SPOEX 참여를 통해 시흥시는 '서핑부터 다이빙까지 해양레저가 모두 있는 곳'이라는 주제로 거북섬 해양레저 클러스터의 7개 사업을 소개하는 홍보관을 운영한다. 아울러, 전문 서핑강사로부터 관

람객들이 직접 배울 수 있는 서핑 체험관도 동시 운영해 수도권 대표 해양레저·관광지로 도약하는 시의 노력을 알리는 데 집중한다.

시 관계자는 "세계 최대 규모의 인공서핑장과 오는 4월 중 개장할 35m 깊이의 다이빙풀 등 수도권에서 다양한 해양레저·관광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거듭나고 있는 시흥시의 거북섬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흥시 거북섬에는 2023년 상반기에 아쿠아팻랜드와 스트리트 물2(보니타가)가 개장할 예정이며, 향후에는 해양생태과학관, 마리나항만 준공으로 대한민국 대표 해양레저·관광지의 중심지가 될 것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우용기자



피톤치드뽀뽀청보리청보리부능부능... 피톤치드뽀뽀청보리청보리부능부능

향기와 색깔의 향연, 산소카페 청송군!

산소카페 청송군은 이름 그대로 피톤치드 향이 뽀뽀 솟아나는 푸른솔의 고장입니다.

산소카페 청송정원의 붉은 새파란 청보리의 물결이 바람소리를 내고, 산소카페 청송정원의 가을은 백일홍의 아름다운 자태가 끝도 없이 펼쳐집니다.

사람이 아닌 자연을 마주하는 곳! 힐링 명소, '산소카페 청송군'

※ 피톤치드 : 식물에서 분비되는 향균, 살균성을 띠는 휘발성 유기화합물들의 총칭.
 ※ 부능 : 사랑을 연상시키는 분홍색에서 유래된 SNS 용어. 달달한 사랑을 나누는 커플을 의미한다.

화성시,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돼



화성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혁신을 통해 주민 만족도를 높인 지자체를 선정하는 이번 평가는 ▲기관 자율혁신 ▲참여와 협력 ▲주민 맞춤형 행정 ▲일하는 방식 혁신 ▲혁신확산 및 국민 제감 등 5개 항목 10개 지표로 실시됐다. 이에 시는 3년 연속 최고 등급인 우수 등급 달성과 함께 특별교부세를 획득했다. 전국 최초로 응급상환 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양방향 긴급차량 우선 신호제어시스템'을 도입하고, 전기안전기사 선임의무가 없어 화재

사고에 취약한 소형공장을 대상으로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공장화재 저감대책'을 추진하는 등 혁신적인 정책을 펼친 노력을 인정받은 것이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과 '불필요한 일 버리기' 등 조직 문화를 개혁하고, '화성시 통합예약시스템'을 구축해 시민들이 실생활에서 높은 행정만족도를 얻을 수 있도록 한 점 또한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민선 8기 중점 가치인 '혁신'을 공직자 모두가 함께 실천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을 바꾸는 희망화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시현/기자

강화군, 관내 모든 국공립 어린이집 그린 리모델링 사업 지원

강화군은 어린이들에게 최고의 보육환경을 제공하고자 참여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에 3년 연속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이 공모사업은 건물이 노후되어 실내환경이 열악한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내외벽 단열재 교체, 창호 교체 등 에너지 향상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군은 지난 10년 이상 된 국공립어린이집의 리모델링 지원을 위해 2020년부터 이 공모사업에 참여해왔다. 그 결과 2021년도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강화군립어린이집, 남산군립어린이집, 불은군립어린이집/사업비 14억8천5백만원), 2022년도 1개소(길상군립어린이집/사업비 8억5천8백만원)에 대하여 공사를 완료했고, 올해사업으로 선정된 2개소(하정군립어린이집, 삼산 군립어린이집/사업비

6억2천1백만원)는 시에서 예산이 재배정되는 대로 설계용역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강화군에 소재한 국공립 어린이집 6개소 모두가 에너지 고효율 건물로 바뀌게 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쾌적한 보육환경을 제공함과 동시에 민선8기 공약사항(제목: 어린이집 그린 리모델링 지원)의 조기 달성에 한발짝 가까워지게 됐다. 군 관계자는 "그린리모델링 지원을 통해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 마련에 큰 성과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육환경을 개선하여 '아이날고 키우기 좋은 강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남/기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수원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수원시가 다시 성장할 수 있도록 힘 모아 달라”

이재준 시장·수원지역 국회의원, '2023년 1분기 당·정 정책간담회'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수원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경제가 쇠퇴하고 있는 수원시가 다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재준 시장은 17일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2023년 1분기 당·정 정책간담회'에서 “경기도 수부 도시인 수원시의 각종 경제 지표가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다”며 “2022년 기준 재정자립도는 44.19%로 도내 31개 시·군 중 7위, 재정자주도는 55.73%로 27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원시 경제가 악화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인해 기업들이 지방으로 떠나기 때문”이라며 “그나마 수원에 남아있는 우량 기업들도 규제가 달한 지자체로 회사를 옮기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수원시는 '과밀억제권역'으로 분류된다.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을 설립하면 부동산 취득 중과세 등으로 인해 비용이 다른 권역에 비해 많이 든다.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기업을 이전하면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다. 이재준 시장은 “기업들이 원하는 건 기업을 설립할 토지와 금융 지원”이라며 “기업에 공급할 토지를 마련하고, 핵심기술 기업, 중소·벤처기업, 창업 초기 기업 등에 투자하는 펀드



▲ 김승원 의원(오른쪽부터), 백혜련 의원, 박광은 의원, 이재준 수원시장, 김영진 의원, 이병진 민주당 수원사무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수원시의회 이재식 부의장, 채명기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가 함께하고 있다.

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준 시장과 박광은(수원시정)·백혜련(수원시울)·김영진(수원시병)·김승원(수원시경) 의원 등이 참석했다. 박광은 의원은 “수원시의 기업 유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고, 백혜련 의원은 “경기도 중심도시로서 수원시의 역할을 지속해서 고민

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진 의원은 “수원시의 발전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했고, 김승원 의원은 “수원시의 제2의 도약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기업·첨단기업 유치 ▲수도권정비계획법 관련 지방세 관계법 개정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구간 건설 사업 ▲서늘 3호

선 연장사업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수원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2016년 5월 '정책협의체 및 실무협의회 운영 협약'을 체결하고, 2019년부터 정책협의회를 분기에 1회 정기적으로 운영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조혜영/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제8대 농업인단체협의회장 취임 축하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7일 용인특례시농업인단체협의회 제7·8대 회장 취임식에서 축사를 하고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7일 처인구 원삼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용인시농업인단체협의회 이취임식에 참석해 제8대 김성경 신임회장의 취임을 축하했다. 이날 용인시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이취임식에는 이상일 시장을 비롯해 윤원균 용인시의회위원장, 농업인단체협의회원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김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농업인의 자기혁신과 첨단 농업기술의 실천으로 용인농업의 발전은 물론 조직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특례시 농업발전을 위해 애써온 제7대 권병인 회장과 임원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라며 “어려운 환경이지만 제8대 김성경 회장이 앞으로 농산물의 품질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스마트팜 교육 등을 협의회가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농업인도 정보화 교육을 받아 시대 흐름에 맞춰가도록 노력해나간다면 용인 농업발전의 거름이 될 것”이라며 “시장인 저도 용인 농업이 으뜸이 되도록 우리 농산물의 생산과 가공, 유통, 판로개척까지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용인시농업인단체협의회는 용인시 농업인 단체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통해 공동과제를 해결하면서 농업인의 지위를 향상하고 농촌의 안정적인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2008년에 설립된 단체다. 현재 한국농촌지도자용인시연합회를 비롯한 24개 단체에 2961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이날 제8대 회장으로 위촉된 김 회장은 현재 한국농촌지도자용인시연합회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조혜영/기자

안성시-미 육군 험프리스 수비대, 문화교류 약속



안성시가 16일, 팽백 주한미군 캠프 험프리스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서로 간의 문화교류와 우호 증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제프리 네이건 험프리스 공보처장은 “타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기지 내 군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문화여가 생활”이라며 “안성시와 협력해 미군 대원과 가족들이 지역을 자주 방문하며 다양한 체험과 유대강화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지 내에 영문으로 된 안성시 관광 팸플릿을 배치하고 안성에서 진행 중인 문화 공연과 미술전시 등 각종 무료 콘텐츠를 홍보하며 소속 군인들에게 안성의 전통과 문화, 명소, 맛집 등을 적극 알리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보라 시장은 “문화야말로 피부색과 언어를 뛰어넘는 유일한 소통 수단”이라며 “안성이 자랑하는 천혜의 호수와 안성맞춤랜드, 고유의 먹거리 등을 기반으로 험프리스 군인들이 안성에서 힐링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시장은 “안성에는 글로벌 축제로 도약하고 있는 남사당 바우덕이 축제를 비롯해 농촌 체험과 같은 다양한 즐길 거리가 있는 만큼, 개인뿐 아니라 가족 단위로 편안히 방문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공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성시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험프리스 미군기지 일반인 개방행사에도 맞춰 남사당놀이를 선보이는 등 구체적인 문화교류에 나설 계획이다.

조혜영/기자

김경희 이천시장,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만나 핵심현안 건의

반도체산단, 택시총량제도 개선, 국지도 확충 등 5개사항 건의

김경희 이천시장이 지역현안과 시민불편사항 해결을 위해 연 초부터 전력을 쏟고 있다. 김 시장은 17일 세종시에 위치한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원희룡 장관을 직접 만나 국민불편 해소 대책을 비롯해 국가발전과 연계된 지역의 핵심현안을 건의하고 적극적으로 정부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김 시장이 건의한 내용은 ▲이천반도체국가산단 조성 및 규제완화 ▲택시총량제 개선을 통한 국민불편 해소 ▲국지도70호선(이천-흥천) 조기 완공 ▲중부고속도로 호법JCT-남이천IC 확장 ▲용인-이천 국지도84호선 신설계획 반영 등 5개 사항이다. 김 시장은 원 장관에게 최근 정부에서 수도권에 반도체 생산기지를 추



가로 조성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반도체 기반시설을 갖춘 이천시에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이를 위해 첨단업종에 한하여 공업용지 조성 허용면적을 50만㎡까지 상향하는 등 입지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이천시와 같은 도농복합도시 주민들이 공통적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택시 부족 문제에 대해서도 원 장

관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 현행 택시 총량제도가 감차 위주의 획일적인 기준으로 전국적인 수급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농촌지역 공공형택시 운행량 반영 기준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통해 농촌지역의 택시이용불편을 해소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이천-흥천 간 국지도 70호선에 대해 2028년까지 계획되어 있

는 공사기간을 2025년까지 대폭 단축할 수 있도록 국비예산 전액을 2024년에 앞당겨 지원해 줄 것과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에 대해 교통정책가 가장 심각한 호법분기점에서 남이천IC까지의 구간을 우선하여 시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용인시 원삼면에 들어설 반도체클러스터와 이천시의 원활한 물류이동을 위해 용인-이천 국지도 84호선을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하여 조기 추진해 줄 것을 함께 건의했다. 김 시장은 “단순히 우리 지역의 발전을 꾀하는 편협적인 뜻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 강화에 꼭 필요한 현안들을 건의 드렸고, 장관께서 실정을 깊이 이해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을 얻었다.”고 밝혔다. 한편, 김경희 시장은 취임 이후 지역성장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첨단도시 조성'을 최우선의 정책과제로 두고 이를 위한 규제 개선 현안 해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성울/기자

더 나은 환경, 미래를 대비하는 '산소카페 청송군'

청송군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사회 전반의 녹색전환을 뒷받침하고 더 맑고 쾌적한 환경으로 미래를 대비하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2023년 환경분야의 균형 추진방향을 "안심할 수 있는 환경, 맑은 물 복지실현"으로 정하고 세부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청정한 자연생태계를 유지·보존하기 위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및 질병확산방지 사업 등에 64억원을 투입하고, 지방도로 단절된 생태축을 연결하는 절고개 생태통로 조성 사업을 3년간 연차적으로 시행, 생물 다양성을 증진하고 로드킬 감소 효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탄소중립 본격이행의 기틀을 마련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해 소관 부서별로 긴밀히 협력하여 탄소감축사업 발굴을 추진하고, 기후변화 대응의 일환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총사업비 약 33억원을 투입,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상금 지원, 매연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교체 보조사업 등으로 대기환경 개선 및 주민 건강보호에 앞장선다.

▲또한 정보기기(인터넷,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노인, 어린이 등이 미세먼지 정보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역의 대기환경정보를 상시로 나타내는 미세먼지 신호등 2개소와, 초미세

먼지 및 바이러스 차단효과를 거둘 수 있는 스마트 에어 샤워기를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 1개소에 설치한다.

▲노후슬레이트 처리에도 사업비 9억원을 투입하여 건축물에 사용된 슬레이트 및 방치 슬레이트를 안전하게 처리하여 군민들이 생활 속 환경 안전을 느낄 수 있도록 환경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군민들이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22억원의 예산을 들여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위탁 적기처리로 폐기물 적체를 최소화하고 환경오염 예방에 나선다.

▲특히 농가에서 발생한 영농폐기물 및 재활용품의 수거 촉진과 배출장소 개선을 위해 2억 3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공동집하장 및 재활용동네마당을 설치할 예정이며, 재활용품(종이팩, 폐건전지) 교환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고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여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한다.

▲또 한편으로는 군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지방상수도 시설확충 [청송상수도 시설확장공사(총사업비 398억), 안덕(현서)·부남상수도 시설확장공사(총사업비



253억] 및 정비사업 [청송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사업비 280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특히, 올 상반기에는 청송상수도 시설확장공사를 준공하여 지방상수도 미급수 880세대 1,792명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안덕(현서)

- 청송군, 2023년 환경분야 추진계획 발표 - - 항상 앞서가는 사업 추진으로 귀감되고 있어 -

부남상수도 시설확장공사를 착공하여 2024년 해당 지역의 670세대 1,208명에게 지방상수도를 공

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3년 신규 사업인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구축사업(143억) 및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사업비 200억)의 예산을 확보하여 민선8기 군수공약인 "청송군 지방상수도 현대화 및 공급지역 확대"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군은 이러한 사업들이 완료되면 지방상수도 급수보급률(77.3%→86.1%) 향상 및 지역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공중위생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복합적이고 효과가 입증된 사업을 연이어 청송군 전역으로 확대 추진할 수 있게 된 만큼 더 높은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하수처리시설 확충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통한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적극 나선다. 청송군은 미처리 소규모하수처리 구역인 파천면 신기리, 안덕면 신성리, 주왕산면 상평리·지리에 총사업비 275억원을 들여 환경부 재원협력을 거쳐 현재 설계를 마무리하여 하수처리장 3개소, 하수관로 17.5km, 배수설비 444가구 등 본격적으로 놓여준마을하수도 설치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며, 2024년 말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또한 안덕면 감은리, 성재리 일원에 총사업비 81억원을 들여 하수관로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진보면 세장리 일원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도 올해 5월에 준공이 예정돼 있다. 군은 이러한 하수처리시설 확충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통해 공공수역 수질을 개선하는 등 쾌적하고 깨끗한 지역 환경을 만들어 나갈 전략이며, "산소카페 청송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공중화장실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청정 이미지에 걸맞은 깨끗한 화장실을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다각적인 환경관련 사업과 폐기물 적정처리로 군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갈 계획"이라며, "또한 맑은 물 공급과 적극적인 하수처리로 최상의 물 복지를 실현하고 삶의 질을 높여 머물고 싶은 '산소카페 청송군'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예천군, 기초생활보장가구에 난방비 10만 원 한시 지원

- 2,400여 가구 지원해 난방비 인상에 따른 경제적 부담 덜어줘
- 예천군, 발빠른 행보로 어려운 취약계층에 단비 내려줘

예천군은 기초생활보장수급 2,400여 가구에 한시적 긴급난방비 10만 원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최근 지속적인 한파가 이어지면서 난방 수요가 늘고 특히, 난방비 인상으로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들의 난방비를 지원하기 위해 경상북도와 함께 추진한다.

2월 기준 관내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가 대상이며 군은 신속하게 예비비를 편성해 오는 20일부터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수급비 지원 계좌로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보장시설 입소자(시설수급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황숙자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지



원이 겨울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들에게 단비가 되길 바라고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없는 예천군



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경북도, 고물가 총력 대응! 민생경제 안정에 두팔 걷었다!

- 도-시군 긴급 실무회의 개최, 공공요금 안정화 방안 논의
- 올해 주요지원사업 설명 및 시군 건의사항 청취, 신규사업 발굴 토론

연일 치솟는 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경북도와 시군이 머리를 맞대 지혜를 모았다. 경북도는 지난 15일,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서 민생경제부서와 시군 담당관 등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물가 대응 민생경제분야 도-시군 긴급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서민 물가 안정화를 위해 상하수도, 택시, 시내버스, 쓰레기 봉투 등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경북도 차원의 공공요금 안정관리 대응책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특히 도에서는 올해 상반기 지방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시군에 대해 하반기로 인상시기를 지연하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지방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해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상인 등 점포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대상이 없도록 시군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당부했다.

한편, 경북도는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한 2022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 실적 종합평가에서 '우수등급'을 획득해 재정 인센티브 2억 5000만원을 지급받았으며, 지급받은 포상금은 도내 물가안정을 위해 신규사업을 계획 중에 있다. 또한 회의에서는 코로나 및

고물가에 대응코자 도내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에 필요한 맞춤형 정책지원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금년도 민생경제 분야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소상공인분야에는 소상공인의 지식 재산 피해 예방을 위해 특허 및 상품권 등록을 250개 점포에 지원하고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확대를 위해 아카데미 교육, 디지털콘텐츠 제작 지원, 특별기획 프로모션, 크라우드 펀딩, 라이브 커머스 등 340개 점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시군에는 SNS, 전광판 등 홍보채널을 활용해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이 발굴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통시장분야는 아카데미 보수, 상인 및 고객이 공동 이용하는 시설 설치, 개·보수 및 확장 지원 등 노후화된 전통시장의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11개 시장을 지원하고 전통시장을 이용객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건립 및 개보수 사업으로 10개 시장을 지원한다.

안전한 전통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시설 개·보수에 7개 시장, 화재발림설치 시설 구축 지원 1개 시장, 노후전선 개선 사업 2개 시장을 지원한다.

화재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전통시장에 특화된 화재공제 가입지원을 3,800여개 점포에 지원한다. 시군에서는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국비 확보 건의, 화재공제 지원사업 추진 시 지자체 정보 공유 등을 건의했다. 경북도에서는 시군과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국비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전준비와 대응으로 예산확보에 협조하고, 특히 화재공제 사업은 가압현황 자료 공유와 더불어 가입을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다.

황인수 경북도 사회경제민생과장은 일선에서 민생현장을 책임지는 시군 담당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물가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해당 부서 및 관계기관과 힘을 모아 총력을 다해 대응하겠다"면서 아울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스마트·온라인 진출을 더욱 강화하고 골목상권 활성화, 전통시장 디지털화 지원 등 지역상권 자생력 강화와 소상공인 매출 향상에도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들썩들썩', K-신명 통했다 하회별신굿탈놀이, 베네치아 카니발 초청 공연

- 한국의 탈춤, 이탈리아 베네치아 산 마르코 광장에서 글로벌 존재감 입증
- 전 세계에서 모여든 관객들, 신명과 흥, 해학의 몸짓에 매료



세계 3대 축제인, '베네치아 카니발'이 한국 탈춤의 신명과 흥으로 들썩였다. 지난 17일, 이탈리아 베네치아 산 마르코 광장에서 하회별신굿탈놀이 한마당 공연이 펼쳐졌다.

전 세계에서 찾아온 관광객들이 흥겨운 사물놀이 장단에 맞춰 어깨춤을 추고 풍자와 해학의 몸짓에 열렬한 환호와 박수를 보냈다. 이날 공연단은 태평소 소리와 함께 신내림

받은 각시광대가 등장하는 무동마당을 시작으로 주지마당, 백정마당, 할미마당, 파계승마당, 양반선비마당을 선보였다.

공연 뒤풀이 마당에서는 관객들에게 하회탈 목걸이를 걸어주고 안동 홍보 책자를 나눠주면서 세계유산의 도시 안동 방문을 홍보하기도 했다. 이날 공연에 앞서 에르멜린다 다미아노 베네치아 시의회 의장과 강형식 주밀라노 총영사관 총영사, 김태



우 부영사, 전예진 한국문화원장, 임태섭·김순중 안동시의회원이 무대를 올라 인사말을 하고 관광객들에게 하회별신굿탈놀이 공연을 소개했다. 또한, 공연 후에는 베네치아와 안동의 지속적인 문화교류를 위한 면담도 진행했다.

이번 공연은 작년 11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하회별신굿탈놀이의 멋과 흥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며, 유네스코 지정 유산 3대 카테고리를 석권한 안동의 우수한 문화적 위상까지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안동시 관계자는 "한국의 탈춤을 대표해 하회별신굿탈놀이가 세계 3대 카니발 중 하나인 베네치아 카니발에 참여해 자랑스럽다"라며 "세계유산의 가치를 세계인과 함께 공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경북소방본부, 해빙기 안전사고 주의 당부

봄철 기온상승 지반 약화에 따른 낙석, 빙상사고 등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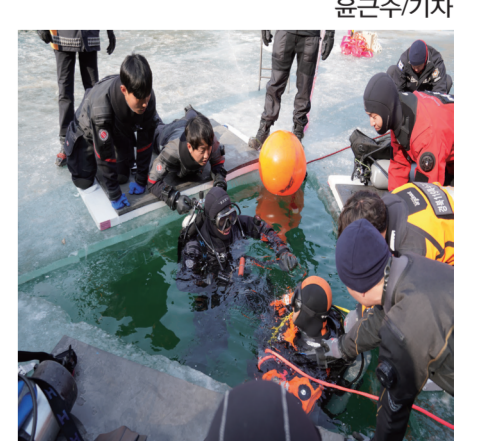
경북소방본부는 다가오는 봄철 기온 상승으로 지반이 약해져 우려되는 낙석과 붕괴 등 해빙기 안전사고에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해빙기에는 계절이 바뀌면서 땅속 수분이 녹아 지반이 약해지고 토압, 수압 증가로 지반침하에 의한 절개지 시설물 붕괴, 전도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 또 약해진 빙판 위에서 얼음 낚시를 하거나 빙상놀이를 하면 수난 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법은 △공사장 주변 도로·건축물 등에서 지반

침하로 인한 이상 징후 확인 때 안전거리 확보와 신고 △낙석 주의 구간에서 서행 △얼음 위 낚시·빙상놀이 금지 △사고 발생 때 119 신고 △직접 구조보다 장대, 로프, 구명환 등을 이용한 구조 등이다.

이영팔 경북소방본부장은 "요즘 같이 영상·영하의 기온을 넘나드는 날씨에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특히 크다"며 "야외 활동 시 주변을 한 번 더 둘러보는 작은 관심이 해빙기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북소방본부는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요 위험지역에 순찰 활동 강화, 수난 구조장비 가동

상태 점검, 사고 예방 홍보 활동 강화, 수난사고 구조훈련 등을 시행 중이다.



윤근수기자

박종화 제2대 봉화군체육회장 취임

“봉화군민이 건강하고 활동적인 삶 누릴 수 있도록 노력”



봉화군체육회는 지난 17일, 봉화군청 대회의실에서 민선 1·2대 봉화군체육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이취임식에는 박현국 봉화군수, 김상희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및 관련 기관 단체장, 지역 내 체육단체 임·회원 등 120여 명이 참석해 민선 2대 체육회의 새 출발을 축하했다.

이번에 취임한 박종화 회장은 봉화군체육회 사무국장, 경상북도 체육회 이사를 지내면서 군 체육발전을 위해 힘써왔으며, 오는 2027년 2월 정기총회일까지 4년간 체육회를 이끌어 가게 된다.

제2대 박종화 신임회장은 “저를 지지해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며 “제42회 봉화군민체육대회를 비롯해 각종 체육행사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 봉화

군민이 건강하고 활동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민선 초대 홍승철 회장은 이인사를 통해 “지난 3년간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민선 체육회 초기 안정과 봉화군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해 적극 협조해준 회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사를 드린다.”라고 말했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봉화군 체육회가 민선으로 첫 출범해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는 민선 초대 홍승철 회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며 “민선 2대 박종화 신임회장과 함께 체육기반시설 확충 및 전국 체육대회 개최 등 봉화군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정금자기자

의성군, 전기자동차 186대 보급 지원

의성군은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고자 2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전기자동차 총 186대(승용차 116대, 화물차 70대)를 보급 지원한다.

해당 사업은 승용 1,280만원, 화물 1,800만원 보조금을 차등지원하며 전기택시 12대(200만원 추가지원), 택배(집배·배송 등 운송사업) 14대 등 물량을 배정하여 무공해차 보급을 가속화한다.

신청기간은 2월15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의성군 내 3개월 이상 거주한 자로 제한이 없어야 한다.

지원 희망자는 구매하고자 하는 자

동차 제조·수입자(판매대리점)와 차량구매계약 및 지원신청서 작성 후,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ps)을 통해 신청하며, 이는 각 판매대리점에서 관련 절차를 대행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성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또는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의성군수는 “전기자동차 보급을 통해 탄소배출을 줄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탄소중립 실현에 한발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정금자기자



법무부-경북도 외국인정책 간담회 개최

- 인구감소·균형발전 차원의 지역기반 외국인정책 해법 논의
- 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재정착난민·계절근로자제도 지방 협조 당부
- 경북도, 외국인 직업계고 유학생 유치 등 ‘글로벌 신라방 프로젝트’건의

법무부와 경북도는 지난 16일, 도청 화백관에서 도내 대학·산업계, 이민정책연구원, 경북연구원 등 관계자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외국인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법무부에서 추진 중인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등 지역기반 이민정책에 대한 설명과 경북도에서 구상 중인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글로벌 신라방 프로젝트)」 발표가 있었으며, 대학·산업계의 건의사항 및 질의·토론으로 이어졌다.

먼저 법무부는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의 추진배경과 발급절차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

하면서 지방에서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외국인 정착과 사회통합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난민발생 급증과 이에 대한 해결이 세계적인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재정착 난민지원」에도 중앙과 지방이 함께 협력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농촌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계절근로

프로그램」 설명과 함께 올해는 계절근로자를 더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공공형 계절근로 제도를 19개 지자체로 확대 실시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도에서는 ‘확실한 지방시대, 외국인도 지방 가 살자’라는 주제로 외국인 정책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특히 이공계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글로벌 신라방 프로젝트」가 눈길을 끌었다. 우선 도내 55개 직업계고에 동남아·CIS지역 고등학생을 입학시켜 원스톱으로 취업을 시키고 우수대학원생들은 지역 기업에 취업하는 조건으로 학비·체류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외국인의 입국부터 영주·귀화까지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경북형 세종학당, 경북 비자센터(취업매칭, 비자업무 대행 등)를 신설하고 기존 가족센터와 연계해 촘촘한 정착 지원과 사회통합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질의·토론에서 외국인 정책에 대한 다양한 제도개선, 건의사항이 개진됐다.



경북도교육청에서는 직업계고 유학생 유치를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에 대한 학력제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대학에서는 지역특화형 비자의 핵심은 취업이라고 판단해 취업 플랫폼, 취업박람회 개최 등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시군에서는 농어촌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 확대와 외국인 전담 인력에 대한 건의

가 주를 이뤘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모법적 외국인공동체를 조성해 존경받는 대한민국을 경북이 선도하겠다”며, “이번에 제안된 주요 현안들은 중앙부처, 지역 유관기관, 대학, 산업계 등과 적극 협조해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대구시,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산·학·연 협업 가속화

- 대구시-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산·학·연 협업 업무협약식 개최
- 수성구 알파시티 내(內) ‘DGIST AI·SW 교육연구센터’ 개소, ABB 분야 교육, 기업 협업 연구, 창업 지원 등을 통한 지역 ABB 산업 활성화 교두보 마련

대구시는 지난 17일(금), 산격청사에서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과 함께 ‘DGIST AI·SW 교육연구센터’(이하 센터) 구축·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대구시는 민선 8기 주요 화두인 ‘ABB 산업 선도도시, 디지털 혁신 거점 도시 대구’ 조성을 위해, 미래 50년 핵심 키워드인 ABB[인공지능(AI), 빅데이터, 블록체인]기반 지역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이런 지역 ABB 산업 육성의 한 일환으로, 국내 융복합 교육·연구 핵심 기관인 DGIST와 산·학·연 협력 모델의 센터를 구축·운영함으로써 지역 ABB산업 활성화를 위한 교두보 마련 등 상호 협력관계를 맺고자 마련됐다.

앞으로, 센터를 통해 ABB 기업들은 DGIST의 우수한 역량을 활용함으로써 R&D 협업 연구개발과 성공적 사업화를 이루며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고, DGIST는 기업과 협력해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업 맞춤형 인력양성, 이론과 실습이 겸비

된 실질적 교육 및 기술 기반 창업 활성화 등 지역 ABB 산업 발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센터는 수성 알파시티 내(內) 대구 스마트시티센터 건물 3층에 구축될 예정으로 총 200여 평 규모에 DGIST 실시간 양방향 강의실, 연구실, 공유 오피스 등이 운영되며 올해 4월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곳에서 진행되는 교육과정은 학생, 산업체 재직자, 기관·기업체 R&D 인력 등을 대상으로 AI 특화 교육(AI 핵심 교육 기반 AI+제조, AI+스마트시티 등)과 반도체 교육(반도체 설계, 시스템, SW 등 이론·실습·실습 등) 등이 개설될 예정이며, 알파시티 내(內) 입주한 기관, 기업과의 산·학·연 연계 수요기술 공동 연구·개발과 AI, SW, 반도체 등 관련 분야 학생(동아리)창업 및 기업 기술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수성 알파시티는 제2의 판교밸리를 꿈꾸는 비수도권 최대 SW 집적단지 *로 대구시가 이곳을 디지털 인프라, 기업 지원, 인재 양성 기능을 한곳에 집적한 디지털 혁신거점으로



조성하고 있어 더 큰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대구시는 센터 개소로 수성 알파시티에 입주한 산·학·연 기관·기업들의 실질적 협업 강화,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현실적 실무 인재 양성 및 기술 창업이 한층 더 가속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화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ABB 핵심기술을 기반으로 한 지역 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지역 산업 육성을 위해 함께 협력해 줄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도 지역 기업의 혁신성장과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산학연 협력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해피맘콜-대구로TAXI 업무협약 체결

- 이용자 중심 원스톱 인프라 구축으로 임산부 이동 편의성 증진
- 지역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해 대구로TAXI와 상생 협력 다짐해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해피맘콜’이 2월 16일(목) 대구형 생활 플랫폼 비즈니스 앱(App) ‘대구로TAXI’를 개발한 인성데이터(주)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해피맘콜’은 대구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에게 매월 2만 원의 택시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이용자 중심의 택시 이용 인프라를 구축하여 임산부 이동 편의성을 향상시켜 지역 택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체결됐다.

공단 해피맘콜과 인성데이터(주)의 대구로TAXI는 협약을 통해 △임산부 편의성 증진 △지역 택시 이용 활성화 △운영 노하우 및 이용 고객

공유를 통한 연계 프로그램 개발 △ 사회적 가치 활동 등을 추진한다.

이번 협약을 기점으로 기존 해피맘콜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실물 카드 없이 ‘대구로’ 앱을 통해 보다 간편하게 이용요금의 결제가 가능해졌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이동지원처 담당자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해피맘콜의 편의성 증진과 더불어 경기 침체 및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어온 대구 택시의 이용 활성화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기봉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출산 친화적 도시 기반 조성 성과 지역 택시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대구 남구, 복지업무 담당자 고독사 예방 교육 실시

대구광역시 남구청은 지난 16일, 남구청 4층 회의실에서 13개 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 복지팀 팀장과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1인가구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면서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고독사가 날로 증가하면서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교육은 최일선 담당 공무원들에게 최근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고독사의 사회적 문제를 명확히 인식하게 하고,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좀 더 촘촘하고 단단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필수임을 공유하기 위해 기획되었다고 한다.

고독사 예방 교육은 ▲고독사 위험가구 발굴을 위한 인적안전망(명예사

회복지공무원)의 확대 ▲고위험 가구에 대한 관리 지원 ▲‘위기신호 감지가구’발생 시, 현장에서 신속한 대응 조치에 대한 업무 매뉴얼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우리 남구에서는 단 한 명의 위기가수도 놓치지 않는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으로, 고독사 없는 주민 모두가 행복한 명품 남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현기자



한국의식업중앙회 경주시지부, 정기총회 가져

식품위생 공로자 7명 감사패 전달, 불우학생 29명 장학금 수여 등

(사)한국의식업중앙회 경주시지부는 지난 15일, 코모도호텔 대연회장에서 300명의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9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행사는 회의의결을 시작으로 식품위생 수준향상에 공로가 큰 음식점업자 7명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으며, 이어 가정형편이 어려운 29명의 학생에게 장학금과 표창장을 전달하는 뜻깊은 시간도 가졌다.

경주시지부는 4000여명의 회원을 두고 있으며, 그간 코로나 시기 영업시간 제한으로 어려움이 많았던 상황 속에서도 방역수칙 준수에 앞장서 왔으며, 또 경주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친절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등 외식문화 서비스 수준 향상에 선도적 역할을 해왔다.

최기석 경주시지부장은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외식업의 위기를 전 조합원이 단결해 함께 극복하자”라며 “음식조리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



이겼다”라고 말했다.

주낙영 시장은 “외식업은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산업인 만큼 바른 먹거리로 외식문화 발전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며 “시에서도 입식체

이불 지원, 주방환경 개선사업, 지역 화폐 확대 시행 등 다각적인 정책으로 근로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윤태용/기자

영양군,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진

경북 영양군은 오는 2월 24일부터 미세 먼지 및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기폐차 지원 대상차량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중 견실기계로, ▲영양군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어 있고,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으며, ▲정부·지자체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우 자동차야야 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2월 24일부터 접수 가능하며, 영양군 청 환경보전과에 방문신청하거나 등기우편, 온라인(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https://emissiongrade.mecar.or.kr>)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3.5톤 미만 기



중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중 저감장치 부착 불가(5등급 해당)에 따른 추가 지원금(화물·특수 차량 100만원, 그 외 차량 60만원)과 4·5등급 차량을 폐차하고 무공해차로 신규 등록 시 추가 지원금(50만원)은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자세한 사항은 환경보전과 환경관리

팀(☎680-6513)으로 문의하면 된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이번 사업 추진으로 노후경유차의 폐차를 유도하여 배출가스를 줄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지원대상 차량 소유자는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안동시 각종 출산 시책 지원‘만전’

까꿍!! 예안면 ”귀농인 부부 셋째 아기 출산

예안면에서 오래간만에 아기가 출생했다. 아기 부모는 귀농 3년 차의 젊은 부부이다. 2년

前 귀농인 젊은 부부의 셋째 아기 출생에 이어 이번에도 셋째 아기가 출생했다. 귀농인 부부는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남다른 자녀 사랑으로 셋째 아기까지 출산하게 되었다고 한다.

예안면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다자녀 출산 가구에 대한 안동시 출산지원시책에 따라 각종 행정적 지원을 다할 계획이다.

안동시는 출생일 기준 안동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출산가정에 첫째아 10만 원, 둘째아 20만 원, 셋째아 30만 원씩을 만2년간 지급한다. 또한 출생축하금 50만 원, 첫돌축하금 50만 원도 추가 지원한다.

또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도 확대 운영한다. 2023년 신규사업으로 마련한 안동맘(Mom) 출산꾸러미 지원사업은 부, 모, 자녀가 6개월 이상 안동시에



주소를 둔 2023년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에게 15만 원 상당의 출산축하 용품을 자택에 택배로 지원한다. 경상북도에 주민등록한 2023년 출생 가정은 10만 원 상당의 출산 축하쿠폰 지원도 추가 지원한다.

또한, 출산가정에 200만 원의 첫 만남이용권을 국민행복카드(포인트)로 지급한다. 그 외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영아 영양제 지원, 유축기를 포함한 육아용품대여사업, 세자녀이상 가족진료비지원, 세자녀이상 독감예방접종지원, 안동시 출생아 및 입양아 건강보험료 지원, 미숙아·선천성이상아의로 비치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한아관리, 선천성 난청검사, 저소득층

기저귀·조지분유, 영양플러스사업도 추가 지원한다.

한편, 예안면 새마을회·부녀회에서도 이불·미역 꾸러미 등을 준비하고 이른 시일 안에 출산아기의 가정을 방문할 계획이다.

예안면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아기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며 ‘출산축하 현수막’을 게첨할 계획이다. 다자녀 출산 가구를 직접 방문한 최종욱 예안면 행정복지센터 면장은 “저출산 풍조 속에서 예안면에 작은 경사가 생겼다”라며 “출산가정에 도움이 되는 모든 시책을 빠짐없이 직접 챙겨서 출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여수시와 함께하는 ‘남해 수산물 먹는 데이(DAY)’ 진행

자매도시와 연계한 남해군 수산물 홍보

남해군은 지난 15일(수), 여수시청 구내식당에서 남해군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활용한 ‘남해 수산물 먹는 데이(DAY)’ 행사를 펼쳤다.

‘남해 수산물 먹는 데이(DAY)’는 남해군 우수 수산물을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남해군수협과 함께 추진했으며, 자매도시를 순회하며 진행된다. ‘남해 수산물 먹는 데이(DAY)’ 주 메뉴인 멸치쌈밥에 제공되는 생멸치 키트는 CAS(Cells Alive System) 기법으로 생산된 제품이다.

-55℃이하 자기공명으로 급냉 하기에 세포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해 해동 후에도 냉동 전과 같은 상태의 품질을 유지한다. 본래의 신선한 맛과 향을 재현할 수 있는 기술이다.

생멸치 키트 외에도 CAS기법으로 가공된 고등어, 전갱이 등을 전시하여, 남해군 우수 수산물을 홍보하였다.

수산자원과 서연우 과장은 “남해군은 앞으로 다른 자매도시, 더 나아가 타 지역에 남해군 우수 수산물 홍보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라며



“남해안의 청정해역에서 생산된 우수 수산물이 많은 소비자를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해군은 하동군, 전남 함평

군, 서울시 마포구에서도 ‘남해 수산물 먹는 데이(DAY)’를 진행하며, 남해 수산물을 홍보 할 예정이다.

이용준/기자

「국립근대미술관 유치」를 위한 학술세미나 개최

국내 미술건축 저명 전문가 그룹 초청

달성군은 지난 16일 달성군청 1층 군민소통관에서 핵심사업인 대구교도소 후적지 개발 사업 내 구상 중인 국립근대미술관 유치를 위해 국내 저명 전문가 그룹(10명)을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하여 국립근대미술관 달성군 유치 당위성 및 필요성을 도출하기 위해 열띤 논의의 장을 펼쳤다.

세미나에 앞서 166명의 주민 및 지역 미술계로 구성된 국립근대미술관 유치 시민 서포터즈는 단장 고수영 달성미술협회장의 유치 필요성 및 당위성에 대한 성명서 발표로 주민 목소리를 한껏 높였다.

본행사인 학술세미나에서 김영동 한국미술평론가협회 회원은 ‘근대미술관 건립 및 달성군 유치의 미술사적 의미’라는 주제로 달성군이 근대미술관 유치 최적지임을 주장하였고, 박성태 정림건축문화재단 이사과 이나연 제주도립미술관장은 ‘미술관 건축의 사례와 그 활용방안’, ‘근대미술관 운영 방안’이라는 주제로 유치 후 대한 의견을 국내의 사례와 이론을 접목하여 제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달성군 유튜브 채널인 ‘전국달성자랑’을 통한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대외적으로 전파하였다. 지역 근대미술관 유치는 현 정부의

공약사항이자 달성군의 핵심사업인 화원읍 대구교도소 후적지 개발 사업에 국립 근대미술관을 담겠다는 생각이다. 이에 달성군은 국립 근대미술관 유치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유치 추진위원회를 작년부터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금번 세미나 개최로 대외적으로 유치 의사를 보여주고 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우리군의 국립 근대미술관 유치 당위성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이번에 논의된 의견은 토대로 우리군 역점사업인 국립근대미술관 유치 추진 전략을 수립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만족감과 함께 강한 의지를 보였다.

김동현/기자



영주시, 영농인력 육성 ‘농촌인력증개센터’ 확대 추진

- 기존 1개소에서 2개소로 확대...3월 14일까지 예비사업자 모집

- 지난해 1800여 농가 9700여명 인력 알선·중개

영주시는 영농작업 구인구직 활성화로 농촌 일손 부족 문제 완화를 위한 농촌인력증개센터를 확대 운영한다. 시는 현재 영주농협에서 운영하는 농촌인력증개센터에서 전 지역을 중개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2024년부터 1개소를 추가해 내국인 인력수급 활성화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영주농협 농촌인력증개센터는 지난해 1800여 농가에 9700여명의 인력을 알선·중개했다.

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그동안 신규 사업자가 확보가 힘들어 확대에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농촌인력난 가중으로 인한 농업인들의 요구가 많아 시는 농촌인력증개센터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는 오는 3월 14일까지 운영을 위한 예비사업자를 모집하고 준비과정을 거친후 농가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사전 영농작업반 인력풀을 구성해 농작업교육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교통비, 상해보험 등을 지원하게 된다.

신청자격으로 농협중앙회 지역본부, 시군지부, 지역(품목)농협, 조합 공동사업법인, 직업안정법 제3조 및

제18조에 따른 무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한 농업인단체, 사회적협동조합, 농업회의소 등이다. 농촌인력증개센터를 통한 인력 알선·중개의 장점으로 농작업근로자는 안전사고 발생시 보험 적용이 되어 있어, 보장범위 내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고 일손 필요농가는 사전 예약을 통한 영농일정을 조절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해 농촌인력풀을 신설하는 등

시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사업 확대를 위해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지역농협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관계로서, 농촌인력수급이 안정화돼 지역 농업인들의 농업생산성 향상과 소득증대에 시와 농협이 함께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경북교육청, '신학기 대비 체험시설 안전 점검' 실시

안전하고 즐거운 체험 교육 환경 조성

경북교육청은 오는 3월 1일부터 시작될 신학기를 대비해 도내 교육기관 운영 체험 시설에 대한 '신학기 대비 체험시설 안전 점검'을 2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 점검은 체험 중심 교육이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되는 신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관내 직속기관 및 소속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험시설에 대해 사전 안전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체험 교육 중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교육안전과, 학생생활과, 창의인재과 등 주관 부서를 중심으로 안전체험관, 수학체험관, 메이커교육관, 학생수련원 등 15개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험시설에 대해 실시되는 이번

안전 점검은 기관별 자체 안전점검표를 활용해 촘촘히 점검할 예정이며, 즉각 조치가 가능한 취약 부분은 현장에서 조치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또한 이번 안전 점검을 통해 확인된 취약 분야 개선을 위해 관련 부서와 협력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할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해 개선할 예정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신학기가 시작되면 체험시설을 활용한 체험 중심 교육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번 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체험시설의 안전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행복 텃밭에서 찾은 웃음꽃

동식물과 함께하는 심리·정서 안정 지원 프로그램

풍각초등학교는 동식물과 함께하는 정서 안정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교내 텃밭인 행복 텃밭에서 학생들과 함께 다양한 작물을 심었다.

전교생 모두가 참여한 이번 활동에서 학생들은 사전에 학년별로 함께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작물에 대해 자료를 조사하고 친구들과 의논하여 비단민 고추, 깻잎, 가지, 오이, 옥수수, 방울토마토, 상추 등 총 14개의 작물을 정하였다.

모종을 심을 자리에 직접 물을 듬뿍 주고, 심을 모종을 하나씩 들고 흙을 파서 구멍에 넣고 흙을 돋우어 주었다. 모종이 부러질까봐 조심조심 움직이며 집중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코로나19로 인해 야외 활동이 부족했던 학교생활로 심리적으로 지친 학생들이 친구들과 함께 모종을 심으며

웃음꽃을 피우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자신이 심은 모종의 이름을 붙여 주고 건강하게 잘 자라라고 기분 좋은 덕담도 잊지 않았다.

6학년 학생 김OO은 "식탁에서 음식으로 만나던 채소를 내 손으로 직접 심어 보니 뿌듯하였으며 빨리 무럭무럭 자라기를 기대한다."라고 하였으며, 고구마를 심은 1학년 학생이 OO은 "나중에 고구마가 100개쯤 열려 가족들과 함께 나눠 먹고 싶다."라고 하였다.

진현식 교장은 "식물을 심고 가꾸는 활동으로 학생들의 따뜻한 정서를 가꾸고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며 농부들의 수고로움을 느껴보고 수학의 기쁨을 누리며 친구들과 함께 협력하는 소중한 체험의 장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송광삼/기자



부산지역 「정보보호 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의 3개 기관, 정보보호 산업 육성 업무협약 체결
- 기업육성, 인력양성, 인프라 조성 등 향후 5년간 358억 원 투입해

부산시와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회장 이동범), 한국정보보호학회(회장 원유재), 부산정보산업진흥원(원장 정문섭)이 지역의 정보보호 산업 육성을 위해 힘을 합친다.

시는 지난 17일 오후, 시청 26층 회의실에서 국내 주요 정보보호 관련 기업 협의체인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국내 정보보호 학술 대표 단체인 한국정보보호학회, 지역 정보통신기술(ICT) 진흥기관인 부산정보산업진흥원과 '정보보호 산업 생태계 육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협약당사자인 박형준 부산시장, 이동범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장, 원유재 한국정보보호학회 회장, 정문섭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을 비롯해 지상호 한국인터넷진흥원 동남정보보호지원센터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 정보보호 기업 육성, 우수 역외기업 유치, 전문 인력 양성, 사이버 보안 훈련장 구축, 보안 기술 시험대(테스트베드) 조성 등 정보보호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각 기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역 거점 정보보호 클러스터 구축' 공모에 협약 기관들과 함께 대응하며, 공모 선정을 통해 향후 5년간 국비와 지방비 총 358억 원을 투입 기업육성, 연구개발(R&D 실증), 인프라 조성, 거버넌스 구축 등 보다 내실 있

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정보보호 기업, 인력의 70%가량이 서울에 편중되어 있다 보니 지역의 정보보호 산업 생태계가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라며, "오늘 협약을 시작으로

국내 대표 정보보호 협회와 학회, 그리고 지역의 정보보호 기업들과 힘을 합쳐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정보보호 클러스터 조성에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송종진/기자

통영시, 4년 연속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우수기관 선정

-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혁신평가 우수기관 선정 쾌거
- 민선8기 '한발 앞선 시민만족 행정혁신' 통했다.

통영시는 지난 16일,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경남에서 4년 연속 혁신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시부에서는 통영시, 군부에서는 거창군이 유일하다.

'2022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기관 자율혁신, ▲혁신성과, ▲혁신확산 및 국민제감도에 대해 평가하여 각 평가군별(광역, 시, 군, 구) 상위 25%를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는데, 경남도내에서는 통영, 김해, 거제, 의령, 남해, 거창군이 선정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에는 대통령·국무총리·행정안전부장관 표창과 특별보수 등 다양한 특전이 주어질 예정이다.

이번에 평가된 통영시의 주요 혁신

사례로는 스마트한 온라인시장 '장피랑'과 민·관·공 협업 지역문제해결 플랫폼을 통해 지속가능한 통영을 만들어가는 '비치코딩데이 in 통영'과 2022년 리빙랩 우수사업 지역공동체 활성화 실험 '포탈머니 프로젝트' 등이 있다.

특히, 협업 노력 사례인 '비치코딩데이 in 통영'은 지난해 10월부터 통영시와 경남지역문제 해결플랫폼, 통영사회혁신가 네트워크, 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사무소 등 다양한 유관기관, 단체 및 지역주민들의 참여로 이루어졌으며, 해양 정화활동 및 해양쓰레기 인식개선 교육을 병행해 해양 환경 및 해변 쓰레기 문제에 대한 대중적 인식 확산에 기여해왔다.

이번 평가결과는 지난해 7월 민선8기가 시작되면서 시정전반에 지속적인 혁신적인 마인드를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들을 펼칠 것을 주문해 왔



고, 그 결과 '한발 앞선 시민만족 행정혁신'이 2023년도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천영기 시장은 지난해 11월, MZ세대 실무자급 공무원들로 구성된 시청 혁신동아리 정례회에 참석해 회원들과 적극행정 및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혁신 공감토크를 진행하기도 했

다.

천영기 통영시장은 이번 평가결과를 바라보면서 "앞으로도 민선8기 시정에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다양한 혁신 정책들을 펼쳐서 「약속의 땅, 미래 100년의 도시 통영」을 구현하는데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윤준/기자

하운수 교육감 17일 e-스포츠학과 개편 업무협약 체결



하운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은 지난 17일 오전, 시교육청 제1회의실에서 정인모 (주)센드박스(SBXG) CEO, 김인호 시니어매니저 등 업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e-스포츠학과 개편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하운수 교육감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협약은 부산의 특성화고 e-스포츠 관련 교육과정 개편과 실습 훈련을 지원하고, 관련 산업 분야 취업을 지원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며 "우리 교육청과 (주)센드박스 간 의미 있는 협력 관계가 지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은 부산시교육청 특성화

고의 e-스포츠학과 체제 개편과 지원을 위해 체결한 것이다.

이날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e-스포츠학과 특성화고 교육과정 및 실습 훈련 지원 ▲부산 특성화고 학생 진로체험처 지원 ▲특성화고 학생 대상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협력 ▲e-스포츠에 대한 인식 제고 활동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주)SBXG(센드박스)는 부산시와 협약을 맺은 전국 최초의 연구제 e-스포츠 구단으로, 전국 다수의 특성화고와 e스포츠 인재 양성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송종진/기자

경남교육청, 아동학대 예방·재발 방지 나서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대상 연수 강화 등 학원 대상 홍보

경상남도교육청은 지난 17일, 사천 시청 대강당에서 학원설립·운영자와 교습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최근 학원 강사의 학생학대 사건 발생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학원 관계자의 아동학대 예방과 재발 방지 차원에서 마련됐다. 아동이 건강한 미래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원의 역할과 사회적 책무를 강조하기 위해 이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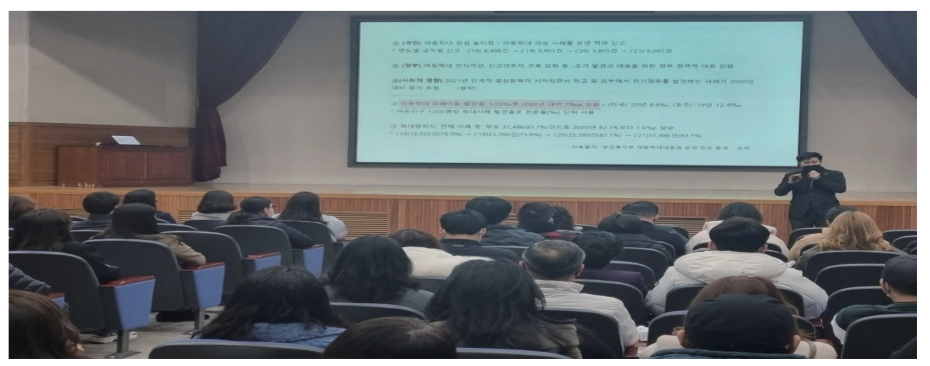
경남교육청 이필우 교육인권경영센터장이 강사로 나서 △아동학대의 정의와 유형 △학원 현장에 필요한 방지 대책 △학원에서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 업무 흐름 △아동학대 조기 발견을 위한 점검 등을 설명했다.

경남교육청은 학원 아동학대 예방 계획을 수립하여 예방과 피해 아동 조기 발견, 신속한 치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학원설립·운영자와 교습자 정기연수에도 아동학대 예방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 인식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이상주 교육복지과장은 "교육과 관심으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사랑받는 아이가 사랑을 주는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장재현/기자



김관영 전북지사, 새 국제교류 영토 인도네시아로 확장

전북도-서부수마트라주와 교류의향서(관광, 문화, 농어업 산업) 체결

전북도는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외교정책 하나인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국가로 꼽히는 인도네시아와의 국제 교류를 새롭게 시작한다.

전북도에 따르면 김관영 전북지사는 17일 인도네시아 서부수마트라주에서 마히엘리 안사를라 서부수마트라주지사과 교류협력에 대한 의향서를 체결하고 이를 근거로 양 지역간 포괄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올해 국가간 수교 50주년이 되며 인태 전략 및 한-아세안 연대구상 추진을 위한 핵심 협력국가이자 전북도에서도 중장기 교류확대 대상국 중 하나다.

이번에 교류의향서를 체결한 서부수마트라주는 인도네시아에서도 문화적 자긍심이 높은 미낭카바우 원주민 문화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풍부한 지하자원과 함께 CNN이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으로 꼽은 '렌당(Rendang)'이란 전통음식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세계적인 음식문화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전북도와 서부수마트라주는 이번 협약을 통해 관광문화, 농어업, 산업, 인적교류 등 분야 교류를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특히 한류가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인도네시아인들의 특성을 고려해 한글학당을 운영하는 공공외교를 통해 우리 문화를 현지에 알리고 지역민간 상호 이해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양측의 공동관심사인 농어업 분야에 있어, 기관, 학교 기업 간 세미나 및 전시회, 상호 박람회 참가 무역사절단 파견 등 전반적 교류를 추진하기로 하고, 지역민간 문화 스포츠 예술 교류를 통한 관광분야 협력을 발전해 나가기로 했다.

교류의향서 체결식은 서부수마트라주에 위치한 옛 파가루웅 왕궁에서 이루어졌으며, 체결식에 앞서 열린 양 지역 전통공연은 현지 지역민도 함께 참여해 양 지역간 교류를 축하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인도네시아는 동남아 지역 최대의 한류 열풍 거점



이자 현 정부의 외교 정책인 안테전략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떠오르고 있다"며, "서부수마트라 주는 인도네시아에서도 농업, 식문화, 관광 등 우리 도와 공통점이 많은 곳이어서 전라북도와 서부수마트라간 교류가 다양한 분야에 큰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남출기자

정읍시, 12억원 투입 '시내버스 승강장' 교체·시설 개선한다!

정읍시가 안전하고 편리한 사람 중심 교통행정 서비스 제공에 나선다.

시는 총사업비 12억원을 투입해 노후화된 시내버스 승강장 시설물을 교체하거나 정비하는 등 다양한 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새봄을 맞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쾌적하고 깨끗한 교통 환경을 제공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는 사업비 5억 2,500만원으로 노후화된 시내버스 승강장 35개소를 새로 교체하거나 정비해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시내버스 승강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사업비 3억 1,600만 원을 투입해 겨울철에는 따뜻하게, 여름에는 시원하게 버스를 기다릴 수 있도록 탄소 냉·온열 벤치 120개를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주요 승강장 200개소에 1억 3,000만 원을 들여

버스 이용객들은 물론 일반 시민들도 여름 무더위를 피해 시원하게 머물다 갈 수 있도록 선풍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눈·비, 매연, 미세먼지 등으로 오염된 승강장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유리 등 시설물 유지보수를 통해 시민들이 쾌적한 버스 승강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더불어 버스 표지판을 세련되고 시인성이 좋은 디자인으로 교체하고, 바람막이와 LED 조명을 설치하는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 편의를 높여 대중교통 활성화에 기여할 방침이다.

이학수 시장은 "승강장 환경정비는 물론, 탄소 냉·온열 벤치와 선풍기 등 승강장 내 편의시설을 확대해 주민 불편 사항을 해결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하은기자



진안고원 고로쇠축제 연계, 군민걷기행사 추진

진안군체육회는 오는 3월 11일 주천면 운일암반일암 삼거리광장 일대에서 제19회 진안고원 운장산 고로쇠축제와 연계해 군민걷기행사를 개최한다.

군민걷기행사는 관내·외민 관계없이 참가를 원하는 누구나 가능하며 행사 당일 11시부터 주천면 삼거리광장 주차장에서 접수 후 개별 출발해 무지개다리까지 약 2km 코스로 진행된다. 도착한 인원은 진안고원 행복상품권과 고로쇠 물을 수령할 수 있다.

걷기 행사 후에는 희망 인원에 한해 작년 7월에 개통한 천혜의 비경을 자랑하는 운일암반일암 구름다리로 안내할 예정이다.

걷기 행사와 더불어 축제현장에서는 11일부터 2일간 고로쇠 수액채취 체험, 고로쇠 볼링대회, 고로쇠 골든벨, 고로쇠 가수양 선발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볼거리가 제공되고 메인광장에서는 체험 및 먹거리 부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진안군 체육회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걷기문화를 정착해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특히, 고로쇠 축제와 연계한 군민걷기행사로 성공적인 '축제'와 천혜의 절경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구름다리'개통 홍보까지 누리는 시너지 효과를 톡톡히 거둬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봉은 체육회장은 "군민걷기행사에 참여한 주민들이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중심으로 가족과 함께 걸으며 건강증진을 위한 소통과 화합의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더불어 고로쇠 축제의 장에서 여러 즐길거리와 먹거리 등을 맘껏 향유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광수기자



익산시 어르신 복지 서비스 전국 '최고'

익산시가 제공하고 있는 어르신 복지 서비스가 전국 최고 수준임을 인정받았다.

17일 시에 따르면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노인종합복지관 3곳이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A 등급을 획득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해당 복지관은 남부권향등, 모현동에 위치한 익산시 노인종합복지관이다.

특히 익산시 노인종합복지관은 개관 이래 5회 연속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현재 지역에는 북부권 노인종합복지관까지 총 4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북부권 노인종합복지관은 개관 3년 미만이어서 이번 평가에서 제외됐다.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번 평가는 3년마다 실시하는 전국규모의 평가로 전국 211개 노인복지관을 대상으로 최근 3년간 복지관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프로그램서비스' 등 6개 항목에 대해 A(최고)부터 F(최하) 등급까지 평가에 등급을 매긴다.

최고등급을 받은 노인종합복지관 3개소는 총 6개 항목, 36개 지표에서 우수한 점수를 획득했다.

노인종합복지관은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활동부터 교양·취미생활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소득보장·재가복지 등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어르신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현재 익산시노인종합복지관과 북부권 노인종합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인 신광복지재단에서 위탁해 운영되고 있으며 남부권과 향등 노인종합복지관은 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다.

이번 평가로 익산시는 명실상부한 어르신 복지 선진지로 등극하게 됐다.

김병기 익산시 노인종합복지관장은 "이번 결과는 직원 모두 어르신을 대할 때 항상 섬김의 자세로 응대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노인복지 선도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원시, LX남원지사 '고향사랑기부제' 릴레이 동참

고향사랑기부제요? 나도 할래요 내 마음의 고향, 남원!

남원시는 2023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릴레이 동참의 일환으로 15일 남원시 민원과장 및 민원과 직원들이 LX남원지사를 직접 방문해 남원시의 발전 및 기부문화 조성을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캠페인을 실시했고, LX남원지사에 과거 근무한 경험이 있는 직원 22명이 남원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부릴레이에 동참했다.

권해정 민원과장은 "남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해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진성만 LX남원지사장은 "고향사랑기부금이 남원 지역 발전에 좋은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며,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남원지사 직원들도 적극 홍보하겠다"



고 말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1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가 가능하며, 고향사랑기부금 운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지 증진 등에 활용된다.

이남출기자

김제시, 법과 원칙에 따른 합리적인 관할 결정 기대

김제시는 만경7구구 일원과 새만금 동서도로, 새만금 신항 방파제 등 총 3건의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관할권 결정을 위한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전체 회의가 지난 17일 열렸다고 밝혔다.

이날 중분위는 관할권을 주장하는 김제시와 군산시의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지자체 의견을 청취한 후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됐다.

김제시는 정성주시장 등 공무원과 법무법인 로고스 소속 변호사가 참석한 가운데 새만금 동서도로, 신항 방파제 등 매립지가 김제시로 관할결정되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김제시장이 시의 입장을 직접 발표하면서 합리적이고 조속한 심의·의결을 요청했다.

새만금 매립지 최종 관할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대법원은 지난 2013년 11월과 2021년 1월 귀속 결정 시 전체적인 새만금의 관할 귀속 결정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 주민편의와 행정의 효율성, 역사성 및 경제 구분의 명확성과 용이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만경강과 동진강 경계로 연결관계를 중요 기준으로 삼아 새만금 전체 매립 지역에 대한 관할 결정 기준을 제시했다.

이는 추후 새만금 매립지 관할 결정이 이루어질 때마다 생길 수 있는 지자체간 갈등과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실상 관할 결정을 마무리 한 것으로 만경강 아래에 위치하고 김제시와 연결되어 있는 새만금 동서도로는 김제시 관할이 매우 합리적이라고 역

설했다.

다음으로 새만금 신항만 방파제 등과 관련하여서는 신항만이 김제가 바닷물 나가기 위한 통로 확보에 있어 매우 중요하며 대법원이 기존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의 관습법적 효력을 제한함과 동시에 매립사업의 전체적인 구도와 계획을 감안하여 관할 결정하도록 기준을 제시했고, 김제시에서는 그동안 중분위와 대법원에서 결정한 기준을 근거로 신항만이 왜 김제시 관할로 결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매립지 거주 주민들의 주거생활 및 생업의 편리성 등 8가지의 구체적인 기준을 근거로 설명했다.

또한, 신항만은 연결하고 있는 2호 방조제에서만 진입하며, 과거 수천년 동안 농업과 해양이 함께 성장해왔으나 새만금 사업으로 종래의 해안선이

전부 소멸되고 서해안을 대표했던 갯벌이 사라졌으며 김제 산업의 한 축인 해양·수산업이 무너져 가는 상황으로 대법원에서도 3개 시군 중 김제시가 가장 큰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해준에 따라 만일 새만금 신항만 관할로 결정된다면 김제시 어민의 생존권 박탈은 물론 해양 통로 차단으로 해양·수산업 회생은 돌이킬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새만금은 그동안 중분위,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결정으로 전체 관할결정이 마무리 됐음에도 관할권 갈등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김제 관할인 2호 방조제와 연결되어 내외측에 위치한 새만금 동서도로와 신항만은 김제시로 귀속되는 것이 매우 합리적이다"고 밝혔다.

김현태기자



새만금 동서도로, 신항만 군산 관할권 마땅

새만금 동서도로, 신항만 방파제 관할권 사수를 위한 군산시의 법적 대응이 시작됐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김제시가 새만금 동서도로에 대한 관할권 결정을 신청해 17일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에서 '새만금 동서도로 및 신항만 방파제 관할권 결정'에 대한 1차 심의 개최됐다.

이번 심의에서 강임준 군산시장이 중분위에 직접참석해 시민과 시의 입장 등 관할권 확보를 위한 당위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새만금 신항만은 군산시가 관할하고 있는 해상이자 군산시민들이 거주하는 도서 사이에 위치하고 군산시 섬과 연결되어 조성되는 시설로 군산항을 보완하고자 설치하는 시설임을 강조했다.

새만금 기본계획에 의거 새만금의 산업육성을 이루고 있는 새만금산단, 동서도로, 신항만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산업기능을 집적화함에 따라 산

업발전이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해 한 개의 지자체에서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임을 피력했다.

군산시는 인접 지자체와 비교해 대형병원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 새만금지역에 거주하게 될 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생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점을 적극 설명했다.

새만금 사업으로 인해 인접 지자체와는 비교할 수 없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감내한 군산시 주민들의 상실감 등을 고려할 때 동서도로와 신항만 방파제는 군산시 관할 임을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동서도로와 신항만 방파제는 마땅히 군산시 관할로 귀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중분위 위원들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중분위 심의가 시작된 만큼 사활을 걸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관할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현태기자



이선수기자

해남군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68개소 전남최다 선정



2023년 마을공동체 활동지원 공모사업에 해남군 공동체 68개소가 선정됐다. 전남 최대 규모로, 지난해 53개소에서 15개소가 늘었다. 전라남도 시행 50개소, 해남형 마을공동체 사업이 18개소로, 사업비도 지난해 2억8,700만원에서 4억2,300만원으로 1억 3,600만원이 증가했다.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은 주민 스스로 마을 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자립형 마을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씨앗-새싹-열매로 성장하는 공기빛깔 사업과 아동·노인 등 취약계층의 돌봄활동을 지원하는 행복드림 돌봄공동체 사업 두가지 유형으로 추진된다. 공기빛깔 사업은 단계에 따라 최대 500~2,000만원을 지원받으며, 행복

드림 돌봄공동체 지원사업은은 개소당 1,000만원 이내의 지원을 받는다. 지난 2017년 공동체 기초단계인 씨앗단계 2개소로 시작한 해남군은 올해 68개소까지 증가한 것은 물론 새싹 11개소, 열매 2개소가 중·고급 단계에 진입하는 등 질적인 성장도 빠르게 이뤄내고 있다. 또한 중간지원조직인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와 마을활동가 양성을 통해 컨설팅 체계를 갖추어 체계적인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군은 올해 주민조직원, 갈등과 조정 등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할 예정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지역문제 해결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주도의 자립형 마을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정광남/기자

목포항구축제, 2023년 전라남도 대표축제 선정



목포시 대표 축제인 목포항구축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라남도 대표축제로 선정됐다. 전라남도 대표축제는 주민 참여와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높은 축제로 관광객이 많고 즐겨 찾는 축제가 되도록 전라남도가 적극 지원하는데, 이번에 선정된 10개 축제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전시 공간, 퍼레이드, 공연 등 주민 주도형 축제였다. 이에 따라 시는 2천만원의 예산과 전문가 축제컨설팅, 축제 홍보 등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 예비지정축제가기도 한 목포항구 축제는 과거 바다 위에서 열렸던 생선시장인 '파시'를 주제로 하는 국내 유일의 항

구축제다. 지난해에는 파시의 전통을 계승·발전시키는 본래 취지는 부각하면서 새로운 콘텐츠와 공간 구성으로 젊은 향구도시의 이미지를 지역민들에게 선보였다. 목포시는 올해 말 2년 주기로 지정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관광축제 평가에도 도전해 항구축제의 브랜드를 높여갈 예정이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올해 말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하는 문화관광축제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항구축제가 글로벌 관광도시를 만드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해명/기자

장흥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주거 편의 높인다"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 지원

장흥군은 '2023년 저소득 중증장애인 주거편의 지원사업'을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저소득 중증장애인 주거편의 지원사업'은 중증장애인의 이동 편의 지원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장흥군은 이번 사업에 자체 예산 1억 원을 투입한다. 사업대상은 장흥군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 중증장애인으로 가구 당 최대 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사업 내용은 안전손잡이, 출입구 경

사로 및 계단 설치, 화장실 개보수 등 주택 내·외부의 편의시설 설치와 주택 개보수 등이다.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 발굴을 위해 읍면 행정복지센터 복지담당 공무원이 가구방문을 실시할 계획이며, 생활정도 및 지원 시급성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김성 장흥군수는 "이번 사업은 장애인의 생활 편의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장애인 복지실현과 편의증진을 위해 계속 지원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재원/기자

전남도, 국립해양수산물박물관 추진 전략머리맞대

완도서 전문가 세미나...건립·운영 방안 논의

전라남도는 17일 완도생활문화센터에서 '국립해양수산물박물관 전문가 세미나'를 열어 국립해양수산물박물관 추진 전략과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신우철 완도군수, 국내 박물관 관련 전문가, 공무원, 국립해양수산물박물관 건립에 관심이 있는 도민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세미나는 특별강연과 주제강연, 종합토론 순서로 진행됐다. 특별강연에선 백승욱 국립해양박물관 전문위원이 '장보고 대사의 역사성 재조명 등 국립해양 수산물박물관 운영 방향과 전략'을 발표했다. 백승욱 전문위원은 "해상왕 장보고는 국제적 안목을 가진 세계적 반열의 인물로 그가 가진 소프트웨어적 리더십이 인심을 움직이게 했다"며 "박물관에 장보고의 역사성을 재조명할 다양한 콘텐츠를 담아 세계적 해양박물관으로 건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 이형기 해양수산부 학예연구관이 '국내 국립박물관의 역할과 기능', 윤대석 한국박물관회 이사가 '최근 박물관 동향과 국립해양수산물박물관 건립 방향', 김창일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사가 '수산업 발전을 통해 살펴보는 국립해양수산물박물관 전시 콘텐츠' 주제강연을 했다. 이형기 학예연구관은 "국립해양수산물박물관은 지리적 한계를 극복해 전남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국내외 수산 관련 문화를 전파하고 보여주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대석 이사는 "범부처 차원의 해양수산, 문화정책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항구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창일 학예연구사는 "어로 현장 이야기를 담은 어구와 사진, 영상 등을 전시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장보고의 업적과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전시,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콘텐츠 개발, 다양한 체험시설 구성, 수산자원의 소비, 홍보를 위한 프로그램 등 국립해양수산물박물관의 건립과 운영 방향 등이 심도있게 논의됐다. 국립해양수산물박물관은 전남도에서



2018년 기본구상을 바탕으로 정부에 지속 건의한 결과 완도군이 최종 건립지로 선정됐다. 해양수산부에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용역을 추진한다. 용역 결과를 토대로 문화체육관광부 박물관 건립 사전 타당성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선정 심의를 거쳐, 2024년부터 건축물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할 예정

이다. 김영록 지사는 "국립해양수산물박물관은 도민과 국민에게 다양한 해양문화와 체험 기회를 제공해 미래 해양수산 인재를 육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중앙부처, 지자체, 도민과 유기적 협조를 통해 세계적 국립해양수산물박물관으로 건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해명/기자

윤병태 나주시장, "2차 공공기관 이전 200만 도민 역량 결집해야"

16일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전남 이전 국회토론회' 참석

윤병태 전라남도 나주시장은 "광주·전남 공동(나주 빛가람) 혁신도시는 그동안 지방 소멸의 방파제 역할을 해왔다"며 "2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이제는 대한민국 발전을 리드하는 주제로 마지막 퍼즐을 완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시장은 전날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수도권 공공기관 전남 이전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혁신도시가 지역균형발전 성장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미 타 시·도에 배치된 기관을 파악해 종합적인 낙후도를 고려해야 한다"며 "수도권 공공기관 전남 이전을 위해 200만 도민의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진정한 지방시대, 공공기관 이전! 전남에서 시작합니다'를 주제로 신정훈 나주·화순 국회의원 등이 주최하고 전라남도, 전남도의회, 광주전남연구원이 주관했다.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지방 이전 분위기 확산과 더불어 농업·수협 중앙회 등 핵심 공공기관의 전남 유치를 위한 범도민의 역량을 결집한다는 취지다. 평일에도 불구하고 토론회장에는 시·도민과 향우회, 농어민단체, 대학



생 등 400여명이 참석하는 등 뜨거운 관심과 기대를 불러 모았다. 토론회는 이민원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의 주제발표 '공공기관 2차 이전의 필요성과 추진방향'(제목)을 시작으로 각계 전문가, 교수가 참여하는 자율토론 순서로 진행됐다. 또 농업·수협중앙회를 비롯한 공공기관 전남 이전을 촉구하는 구호 제창, 팻말 퍼포먼스를 통해 범도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독려했다. 윤병태 시장은 축사를 통해 "공공기관 2차이전은 전남의 농·수산, 예

지, 문화, 환경 등 우수한 지역자원과 1차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해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주는 공공기관이전TF팀 신설을 통해 공공기관 2차 이전에 선제적으로 준비해왔다"며 "전라남도 와 도내 시·군과의 유기적 협조 체계를 구축해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를 지역 균형발전의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만/기자

구례에서 철인 한계에 도전하세요! 국제 철인3종경기 참가 신청 접수

2월 16일부터 아이언맨 구례 코리아 선수 등록 시작

국제 철인3종경기 '2023 아이언맨 구례 코리아' 대회 참가 신청 접수를 2월 16일부터 시작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선수들은 등록 마감일인 7월 16일까지 아이언맨 구례 코리아 대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다. 참가비는 얼리버드 프로모션 기간인 3월 22일까지 \$600이며, 이후에는 기간에 따라 \$670, \$740로 책정됐다. 국제 철인3종경기대회는 세계 철인3종경기협회(WTC)가 주최하는 폴코스 대회로 수영 3.8km, 자전거 180km, 달리기 42.2km로 이어지는 극한의 경주를 펼친다. 구례군체육회와 대한철인3종협회가 공동 주관해 2014년부터 구례군에서 매년 열고 있다. 올해는 9월 10일 열릴 예정이다. 구례 대회는 세계 챔피언십 참가



권을 얻을 수 있는 정식 폴코스 대회로 지리산과 섬진강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기량을 발휘할 수 있어 인기가 높다. 그러나 2019년 태풍 타파(Tapah)와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연이어 취소돼 아쉬움을 샀다.

구례군 관계자는 "아쉬움을 만회하고 선수와 군민이 함께 즐기는 성공적인 대회를 준비하겠다"라며 "철저한 운영 계획 수립과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해 한층 더 내실 있는 대회로 꾸려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성현/기자

광주광역시 서구,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 지원 총력

광주광역시 서구가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 지원에 행정력을 쏟고 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지난 16일 서구학교급식지원센터 및 서구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방문해 학교급식 지원현황 및 기관운영에 대한 보고를 받고,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공급, 지역 농가들의 참여 확대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서구학교급식지원센터는 관내 초·중·고 52개교에 249품목의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으며 지역 참여농가는 광주·전남 등 57곳이다. 특히 센터는 친환경농산물, 지역가공품 등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이에 김 청장은 "서구 관내 참여농가 확대, 도·농상생 협력방안 마련, 친환경 식재료 세부 검수기준 마련 등을 통해 아이들은 안전한 급식을 먹고, 지역 농가들은 안정적인 판로 확보로 지역의 경쟁력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청장은 서구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방문해 기관 운영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서구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어린이집을 비롯한 아동·청소년 시설,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등 300여 개소를 대상으로 급식 위생 및 영양 관리, 대상별 교육, 식단 및 정 보제공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급식현장을 수시로 방문해 조리실의 시설·설비 위생 확인, 식자재 유통기한 확인, 조리 도구 오염도 측정 등 안전한 급식문화 정착에 앞장 서고 있다. 또 균형잡힌 식습관, 편식 예방을 위한 어린이 체험관도 운영하고 있다. 김 청장은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사명을 갖고 항상 현장에 눈과 귀를 열어두고 소통하며 열린 마음으로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병수/기자



김성현/기자

도정혁신 추진단 '일단바꿔!' 강원도의 변화와 혁신을 이끈다.

강원도가 특별자치도 출범 원년을 맞아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요구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정혁신 추진단 '일단바꿔!'의 활동을 더욱 강화한다.

도는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도정 전반에 대한 혁신을 위해 '22. 9월 추진단을 구성, 다양한 세대의 자율적 참여로 매일 한 가지 혁신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왔다. 창의적이고 유연한 업무 처리를 위한 '사무공간 혁신'의 일환으로 간부 공무원의 집무실을 축소하여 회의실을 조성하는 한편, 카페 휴연실을 회의실로 정비하여 소통·협업을 위한 회의공간을 마련하기도 했다.

또한, 정보화정책과 사무실에 노트북 기반 자율좌석제를 도입하고 집중근무, 민원업무, 개방형·폐쇄형 회의공간을 구분 조성하여 업무 효율



성을 극대화했으며, 공무원 교육훈련 내실화를 위해 비대면교육을 대면교육으로 전환하고 내부강사 양성

을 확대하는 등 추진단 회의 시 논의된 개선과제들을 꾸준히 실천해왔다.

도정혁신 추진단 '일단바꿔!'는 2월 17일 도민의 알 권리 보장 및 도정 참여 확대를 위한 '공개행정·투명행정'에 대한 회의를 시작으로, 연내에 도정 홍보방식 개선, 협업행정, 공무원 증원방식 개선, 빅데이터 기반 행정, 승진·성과평가제도 개선 등을 주제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논의를 통해 도출된 개선방안을 적극 이행하여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불합리한 조직문화와 비효율적인 일하는 방식을 개선, 자율성에 바탕을 둔 효율적 업무 처리를 통해 도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데이터에 기반한 투명한 행정으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일 잘하는 강원도'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이등원/기자

철원군, 2023년도 '외식업소 주방용품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철원군보건소는 최근 갈말읍사무소에서 식품접객 영업주를 대상으로 외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주방용품지원사업 설명회를 열었다고 17일 밝혔다.

2022년도에 29개 업소를 대상으로 초음파식기세척기 19개소, 음식물처리 감량기 10개소를 시범 지원했으며, 뚜렷한 주방 위생 수준의 향상과 인건비 절감 효과 등의 사업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해는 3억원의 예산을 확보, 지원 대상을 50개소로 확대한다.

올해는 업소마다 다른 주방 환경과 다양한 요구에 알맞은 상품을 선택 할 수 있도록 초음파식기세척기 및 음식물처리감량기 취급업소 10개소로 하여금 설명회에 직접 참여하여 제품 설명과 홍보를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설명회는 바쁜 영업시간 중에도 60여 개소의 영업주들이 참석하여 질의 응답시간을 갖는 등 높은 관심과 참여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영업주들은 이번 설명회를 통하여 제품사양, 업체만의 차별성, 장단점, A/S 등 제품의 비교 설명을 듣고 우수한 제품, 업소 특성에 맞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

지원사업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철원군 홈페이지 소식·알림/고시·공고에서 확인하면 되며, 희망 업소는 2월 28일까지 보건소위생팀으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백승민 보건정책과장은 "본 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설명회에 참석하여 주신 많은 영업주들에게 감사사를 전하며, 업소 환경에 맞는 좋은 제품 선택으로 조리장 작업환경 개선과 인건비 절감 등 실질적인 위생수준 향상과 외식업소 운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세나/기자

평창군, 해빙기 대비 산사태취약지역 점검

평창군은 해빙기(2~4월)를 대비해 산사태취약지역 안전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빙기에 산사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관내 산사태취약지역 84개소에 대해 오는 3월 30일까지 비탈면의 상태, 해빙에 따른 산사태 발생 여부, 발생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하고, 보수보강이 시급한 사항은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빠른 시일 내 조치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이성모 산림과장은 "이번 안전점검을 통해 사전에 산사태 위험지역을 파악하여 평창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등원/기자

양양군, 논 타작물 재배 ha당 최대 450만원 지원

1ha당 조사료 450만 원, 두류·잡곡·일반 작물 300만 원 지원, 3월 20일까지 접수

양양군이 쌀 과잉생산에 따른 정부 비 재배면적 의무감축 정책에 발맞춰 쌀의 작목의 자급을 향상을 위해, 논에 타작물을 재배할 경우 ha당 최대 4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최근 전국적으로 농업기술 향상에 따라 쌀 생산량은 크게 향상됐으나, 생활패턴의 변화로 1인당 쌀소비량은 감소하면서, 공급 과잉으로 인한 쌀값 하락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양양군은 쌀 과잉생산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제 환경변화로 인한 수입 조사료가격 상승에 따른 축산농가 경영비 부담의 완화와, 자급률이 낮은 타작물작물의 생산량을 단계적으로 높여나가기 위해, 비 재배면적 감축 일환으로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비 1억원을 편성하여, 약30ha 논에 대해 ha당 하계 조사료 450만원, 두류, 잡곡, 일반 작물은 30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해 농업인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단, 김장 채소류 및 양념류, 다년생 작물(과수, 산채, 조경수)은 과잉생산에 따른 농산물 수급안정화를 위해 대상 작목에서 제외된다.

신청대상은 1,000㎡ 이상 논에 벼 이외의 다른 작물을 재배하고자 하는 △2022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을 받은 농지 경작농업인 △'20~'22년 비 재배 사실이 확인된 농지 경작농업인 △'20년 논 타작물 재배 국비 지원사업 농지 경작농업인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3월

20일까지 사업신청서와 약정서 등을 읍·면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

이후 군은 3월 중 지원대상자를 선정 후, 이행사항을 현장점검하여 11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쌀값 안정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시행되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에 농업인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양양군은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과 병행하여 경관작물 재배단지 조성에 따른 농가 장려금 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고, 일부 벼농사 재배에 대해 경관작물 재배를 유도함으로써 정부 비 재배면적 의무감축 실적 충족과 더불어 농촌관광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최만식/기자

영월군, 문화감수성과 거버넌스 포럼 개최

홍익대학교 문화예술경영학과와 (사)한국문화예술경영학회는 16일 영월군 영월관광센터에서 '문화감수성과 거버넌스 포럼'을 열고 영월군이 문화도시로 발전하게 된 요인과 향후 발전방안에 대하여 논의한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12월, 3만 8천명이라는 적은 인구 장벽을 넘어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된 영월군의 우수한 사례를 살펴보고자 홍익대학교 장웅도 교수의 제안을 계기로 마련됐다.

포럼에는 최명서 영월군수를 비롯해 홍익대 문화예술경영학과 장웅도 교수, 문화디자인자리 최혜자 대표, 칠곡문화도시지원센터 서민정 센터장과 홍익대학교 학생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최명서 영월군수의 환영사로 시작된 포럼 행사는 서민정 센터장의 문화도시를 이끄는 여성리더십이라는 주제의 발제 이후 종합토의로 이어



졌으며, 이후에는 영월관광센터 미디어아트 관람, 동강사진박물관 및 동굴생태박물관을 관람하며 마무리했다.

최명서 영월군수는 "제4차 법정문화도시에 지정된 영월군의 우수사례

를 전문가와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라며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영월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등원/기자

화천군, 노후한 농촌주택 개량 지원 오래된 공동주택 시설 개선

화천군 농촌주택 개량사업 시행, 사업비 일부 저금리 융자 지원

화천군이 지역주민들의 안락하고 쾌적한 정주조건 마련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화천군은 2023년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지난 14일 공고하고, 내달 10일까지 신청 접수에 들어갔다.

이 사업은 노후하거나 불량한 농촌주택의 개량 또는 신축에 필요한 일부 비용에 대해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사업대상 주택은 연면적 150㎡ 이하 농촌주택으로, 신축은 최대 2억원, 증축과 리모델링, 대수선은 최대 1억원 한도에서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이 이뤄지며, 고정금리(연 2%)와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다.(만 40세 미만 청년의 경우 고정금리 1.5%) 상환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방식이며, 수수료 없이 중도상환도 가능하다.

지원 대상자 요건 등 자세한 내용은 군청 민원봉사실 주택부서, 각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화천군은 농촌주택 뿐 아니라 준공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공용 시설물 관리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대상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며, 준공 경과년도와 노후

도에 따라 심의 위원회를 통해 지원이 결정된다.

지원이 가능한 공용시설은 놀이터, 보안등, 경로당 등의 공동 이용시설 유지보수, 단지 내 차도와 인도, 상하수도 시설 보수, 쓰레기 수집시설 보수 및 설치, 동대표 선거 등 공동주택 온라인 투표비용, 미관을 저해하는 노후건물의 도색, 주민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이다.

신청은 군청 민원봉사실 주택부서로 연중 접수 가능하며, 총사업비에 따른 보조금 지원액 등 자세한 사항은 접수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최만식/기자

영월군, 귀농귀촌 동네작가 발대식 개최!

영월군이 한해 도시민 귀농귀촌 유치 홍보를 위한 '귀농귀촌 동네작가' 발대식을 2월 16일 개최한다.

귀농귀촌 동네작가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농촌에서의 생활, 지역 경관, 공동체 활동 등 농촌지역만의 차별화된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여 귀농귀촌종합센터 및 농업기술센터 유튜브에 게시하는 사업이다.

군은 SNS활동, 프로그램 활용여부, 홍보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6개 읍·면 10명의 동네작가를 선정했으며, 금년도에는 콘텐츠 제작뿐만 아니라 유튜브 동영상 제

작을 추가하여 폭넓은 콘텐츠를 제작·홍보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동네작가는 1인당 월 최대 20만원(콘텐츠 1건당 5만원/ 동영상 1건당 10만원) 수당을 지원받으며, 이번 발대식을 통해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송초선 농업축산과장은 "귀농귀촌 동네작가 운영을 통해 도시민들에게 농업농촌의 문화 이해증진과 생생한 정보를 알려 귀농귀촌 유치 활성화 및 인구유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등원/기자

철원 농산물 직거래장터 '철원DMZ마켓'참가자 모집



철원군은 2월 20일부터 3월 10일까지 '불거리, 먹거리, 즐길 거리'가 있는 대표 농특산물 직거래장터인 철원DMZ마켓 운영을 위하여 2023년 철원DMZ마켓 참가회원을 모집한다.

참가 자격은 본인이 직접 재배한 농특산물, 이를 활용한 가공품, 먹거리 등을 판매하고자 하는 철원군민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있어야 하며, 직접 제작한 공예품을 판매, 체험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비농업인의 참여도 가능하다.

철원DMZ마켓은 3월 25일에 시작하여 11월 말까지 매주 2회(토, 일요일), 한탄강 은하수교 인근에서 정기

적으로 열려 철원 농특산물 홍보 및 직거래를 통한 지역농산물의 판매를 촉진하고, 철원군 방문객 및 지역주민에게 농촌문화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활력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에 농업유통과장(김재국)은 "최근 철원군을 찾아오시는 관광객 증가에 따라 농업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가 바탕이 되는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며, "농촌 체험관광과 더불어 철원DMZ마켓이 농촌문화공간으로서 농업·농촌에 활력을 줄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이세나/기자

정선군, 아리아리스노우챔피언쉽대회 18일부터 하이원리조트에서 개최

정선군스키협회가 주최하고 정선군체육회가 주관하는 제2회 아리아리스노우챔피언쉽 대회가 2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개최된다.

하이원리조트 아폴로6 슬로프에서 개최되는 이번 대회에는 전국의 스키 및 스노우보드 아마추어 선수 400여 명이 참가해 정선군의 아름다운 설산에서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겨룰 예정이다.

이번 대회는 18일에는 스키 남녀 평행대회전 경기가 19일에는 스노보드 남녀 평행대회전과 알파인보드, 프리스타일 경기가 개최되며, 오전 10시에 예선전을 시작으로 16강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된다.

평창올림픽 유산인 가리왕산의 케이불가 활성화와 올림픽 국가정원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정선군에서는 이번 대회를 통하여 전국 최고의 동계스포츠 도시임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재성 문화체육과장은 이번 대회를 통하여 전국 최고의 동계스포츠 도시이자 정선군에 방문하신 많은 스키, 스노우보드 동호인들이 국민고향 정선의 정취를 마음껏 즐기길 바란다고, 앞으로도 스키와 스노우보드를 비롯한 동계스포츠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혜영/기자

동해시, 농어촌민박업소 시설개선비 최대 8백만원 지원

동해시는 '2023년 농어촌민박 시설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관내 노후화된 농어촌민박의 시설환경개선을 통해 농어촌의 농외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에따라 시는 도비 자부담을 포함한 4천만원의 사업비로, 농어촌민박 4개소에 개소 당 1천만 원(자부담 200만원 포함)까지 시설환경 개선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농어촌민박 신고필증을

교부받고 사업자등록 후 공고일 현재 해당 민박에서 1년이상 거주하며 민박을 운영중인 사업자이며, 지원내용은 도배, 방수, 창호, 장판교체, 화장실 리모델링 등 내·외부공간과 민박간판, 실외조경 등 민박영업에 필요한 사항이다.

정미경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어촌민박 시설환경개선사업은 소소하게 정비해야 할 부분인 많은 민박사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는 더욱 쾌적하고 찾아오고 싶은 동해시 만들기에 일조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등원/기자

조길형 충주시장, 2025 영동세계 국악엑스포 유치 기원

국악으로 만나는 미래문화, 희망으로 치유받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16일 '2025 영동세계국악엑스포 유치 기원 챌린지'에 동참했다.

이날 응원 챌린지는 2025년 영동세계국악엑스포 유치를 기원하는 캠페인의 일환으로, 지난 1일 정영철 영동군수를 시작으로 이달 말까지 한 달간 진행된다.

2025년 9월 12일부터 10월 11일까지 영동레인보우힐링관광지와 국악체험촌 일원에서 개최 예정인 2025영동세계국악엑스포는 '국악으로 만나는 미래문화, 희망으로 치유받다'를 주제로 국악의 대중화·산업화·세계화를 위해 변화하는 국악의 다양하고 매력적인 요소를 보여주는 국제행사이다.

국악엑스포는 지난해 말 문화체육관광부에 국제행사 개최계획 승인을 받은 상태로, 올해 7월경 국제행사 승인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 챌린지에 참여한 조길형 시장은 "우록 선생의 본 고장인 충주시는 충주시립우록국악단을 운영 및 매년 우록문화제를 개최하고 있다"며, "국악의 고장 영동군에서 엑스포가 개최되기를 충주시민과 함께 기원한다"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조길형 시장은 다음 챌린지 참여자로 송기섭 진천군수, 박해수 충주시의회장, 이동훈 충주시립우록국악단 상임지휘자를 지명했다.

영동군에 따르면 2025영동세계국악엑스포 유치 기원 챌린지

김원호/기자

청주시, 선제적 예방으로 아동학대 신고는 줄이고 대응력 높인다!

청주시가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개선 홍보부터 학대 조기 발견 및 아동 보호까지 통합적 체계를 가동한다고 16일 밝혔다.

전년대비 예산은 39% 증가했고, 학대피해아동쉼터 1개소 확충, 다양한 채널을 통한 위기아동 발굴과 시민 밀착형 아동학대 예방 홍보를 통해 아동학대 감소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 신속하고 적극적인 아동학대 대응 및 보호

청주시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9명이 24시간 아동학대 현장조사 상시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야간·휴일 등에도 신고가 들어오면 지체 없이 전담공무원 2인 1조가 경찰과 함께 출동해 조사를 진행한다.

현장조사 후 사례판단을 통해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계획을 수립, 아동의 일시보호 조치 등을 결정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사례관리를 연계해 학대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을 수행한다.

작년 12월 기준 총 651건의 아동학대 신고에 대해 조사했고 이중 348건을 아동학대 사례관리로 연계했다.

▶ 학대피해아동쉼터 1개소 확충
학대피해아동쉼터 1개소를 7월 중 개소에 4개소에서 5개소로 확충한다. 쉼터에서는 학대피해로 가정과 분리된 아동에게 3~9개월 간 집중 심리 치료 및 회복, 일상생활, 교육, 정서 지원, 원가정 복구 지원을 한다.

작년에는 일시보호 조치된 아동 40명에 대해 학대피해후유증 완화를 위한 보호를 지원했다.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분리보호는 아동의 연령, 특성, 입소 시기 및 기간을 예측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일시적으로 입소아동이 집중될 경우 아동의 생활 불편, 종사자의 업무 피로도 누적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쉼터 추가 설치는 피해아동의 개별 보호 강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학대 위기 아동 조기 발굴 및 통합 지원

사회복지 빅데이터를 활용한 'e아동행복지원 사업'을 운영한다.

해당 사업은 장기결석, 영유아 건강검진 미시행, 아동 수당 미신청 가구 등 학대 고위험군 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복지서비스를 연계 제공하는 사업이다.

분기별로 읍·면·동 담당공무원이 발굴된 위기아동 가정을 방문해 양육 상황을 점검한다.

2022년에는 1,890명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해 49건의 복지서비스 연계 등의 조치를 했다.

또한 교육지원청,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과 월 1회 정기적 협의체 회의를 열어 위기 아동 정보를 공유하고, 학대 예방 및 보호 지원 강화를 위한 협력 사항을 지속 논의한다.

▶ 아동학대 사전 예방 강화
다양한 양육자들을 위한 특색 있는 홍보도 추진한다.

다문화 가정 아동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 예방 외국어 안내문을 제작해 청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유관 기관에 3월 중 배포 예정이다.

또한 손자녀 양육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양육환경을 반영해 노인대학으로 찾아가는 아동학대 예방 교육도 4월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시민 밀착형 홍보를 위해 다양한 아동학대 예방 메시지를 담은 홍보 영상을 제작, 거리나 공원의 로고젝터, 버스정보시스템, 공동주택 내 엘리베이터 영상 광고판을 활용해 송출한다.

5월 어린이날과 11월 아동학대예방의 날 주간에 유관기관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및 아동 관련 행사 공동 추진도 전개한다.

시 관계자는 "학대 위기 아동의 선제적 발굴 및 통합 지원을 통해 아동이 최우선의 원칙에 기반한 아동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충남도, 베이벨리 메가시티 '마스터플랜' 그린다

민·관 합동 추진단 워크숍 개최...용역 방향 공유·신규 사업 등 논의



충남도가 민선8기 '1호 과제'로 추진 중인 베이벨리 메가시티 건설 사업의 구체적인 청사진 그리기 작업에 돌입했다.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작하고,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도는 16일 공주 아트센터고마 컨벤션홀에서 대한민국 4차산업 핵심지역 육성을 위한 베이벨리 메가시티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했다.

베이벨리 메가시티 민·관 합동 추진단 김영석 공동단장(전 해양수산부장관)과 단원, 자문위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워크숍은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 방향 공유, 청사진 및 신규 사업 발굴 방안 논의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부 사업에 포함했다.

도는 지난해 7월 1일 김태홍 지사가 '1호 과제'로 베이벨리 메가시티 건설 추진계획을 선택한 이후, △경기도와 협약 체결 △장·차관 출신 인사와 각 분야 전문가 등으로 민·관 합동 추진단 및 자문위원회 구성 △경기도와 실무협의회 개최 등을 진행했으며, 현재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연구용역을 통해 도는 △아산만권 경제 발전 거점 육성 △국가 발전 및 지역 상생발전 기틀 마련 △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력 유도 등이다.

세부 사업으로는 △아산만(평택~아산~천안) 순환철도 신설 △충남·경기 연접지역 대규모 최첨단 산업벨트 조성 △당진평택국제물류 환경 개선과 대중국 수출 전진기지 육성 △충남경제자유구역청 복원과 민관 상생발전위원회 설치 등이 있다.

또 △아산 대부도~보령 해저터널 간 한국판 골드코스트 조성 △수소 에너지 융복합산업벨트 조성 △충남 서북부권 용수 확보방안 마련 △미군기지 주변지역 지원 확대 등도 세부 사업에 포함했다.

이날 워크숍에서 민·관 합동 추진단은 연구용역 추진 방향을 공유받고 과업 범위와 내용 등을 살폈다.

이어 베이벨리 메가시티 청사진과 신규 사업 발굴 방안을 논의했다.

이 논의는 베이벨리 메가시티가 국가 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충남과 경기도를 넘어 세계적인 범위로 시야를 넓혀 산업 분야·영역별 균형이 필요하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진행했다.

도는 앞으로 민·관 합동 추진단 분과회의를 주시로 개최하고, 오는 10월까지 용역을 마무리한 뒤, 11월 베이벨리 메가시티 비전을 선포할 계획이다.

김영석 공동단장은 "베이벨리 메가시티는 미래 먹거리 창출뿐만 아니라 국가 재도약을 이끄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와 힘을 합쳐 대한민국의 위대한 선도 모델로 만들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산만 일대에는 인구 330만 명, 기업 23만 개, 대학 34개가 밀집해 있고, GRDP는 204조 원에 달하고 있다.

이 지역은 삼성과 현대, 엘지(LG) 등 글로벌 기업들이 다수 입지해 반도체와 미래차, 배터리 등 대한민국

의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곳이기도 하다.

베이벨리 메가시티 건설을 위한 민·관 합동 추진단은 민간인 30명과 공무원 14명으로 구성했다.

공동단장은 김영석 전 장관과 전 형식 도 정부부처사가 맡고, 단원으로는 각 분야 전문가와 도의회 의원이 참여 중이다.

민·관 합동 추진단은 기획지원, 산업경제, 국토해양, 대외협력 등 4개 분과로 나뉘 △베이벨리 메가시티 건설 협력 추진 △아산만권 발전방향과 사업 추진 지원 △미래사업 발굴 △정부·국회·지자체·관계기관 등 대외협력 등의 활동을 펼친다.

자문위원회는 △추진 방향 자문 △사업 추진 및 정부 정책 반영 전략 지원 등의 역할을 한다.

자문위원으로는 건설교통, 산업경제, 환경, 해양수산 등 분야별로 실제 정부 정책을 입안·시행했던 정부 각 부처 고위직 공무원 출신 등 9명이 참여했다.

최정근/기자

김돈곤 청양군수 "다목적용수 확보 지하수 저장시설 설치"

16일 오전 정례 브리핑...고질적인 물 부족 문제 해법으로 제시



김돈곤 청양군수가 16일 기후변화 때문에 고질적으로 찾아오는 물 부족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지하수 저장시설(저리지)' 설치를 제시했다.

이날 오전 10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김 군수는 "우리 군은 지난해부터 충남도와 함께 다목적용수 확보 방안을 찾았다"라며 지하수 저장시설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하수 저장시설은 땅속 깊이 물막이 벽을 설치한 다음 지하수를 모아두는 시설로 일종의 지하 인공 댐이다.

군에 따르면 지하수 저장시설은 설치 조건이 까다롭다. 기본적으로 물바가지 지형을 갖춰 물 보존성이 높아야 하고 주변 토양 또한 대상지의 지형을 지탱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김 군수는 "만만치 않은 작업이었

지만 심도 있는 지질조사를 진행한 결과 1순위 사업 대상지로 남양면 금정리 금정지구를 선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이곳을 흐르는 지천에 모래층과 자갈층이 두껍게 형성돼 있어 땅속의 물막이벽을 설치하는 경우 다량의 용수 저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김 군수에 따르면 지하수 저장시설은 지상 댐과 달리 증발에 의한 물 손실이 없다. 물 한 줌이 귀할 때 증발 손실이 없다는 것은 지하수 저장시설의 특별한 장점이다. 또 수몰되는 지역도 없다. 시설 설치 이후에도 지금과 똑같이 토지를 이용하고 범람이나 붕괴 위험 없이 연중 일정한 수량을 확보할 수 있다.

김 군수는 다른 지자체의 지하수 저장시설 이용 사례도 소개했다. 김 군수는 "지하수 저장시설은 1980년대부터 인근 공주시를 비롯해 전국 지

자체 6곳에서 가동해왔다"라며 "특히 공주시 유구천과 경북 상주시 이안천에 있는 시설은 2017년 극심한 가뭄이 닦쳤을 때 농업용수 공급 기능을 백분 발휘하면서 재난 극복의 일등 공신이 됐다"라고 말했다.

김 군수는 이어 "지금 우리는 가뭄 재해와 지자체 간 물 확보 경쟁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가 지역소멸 위기에 놓인 농촌지역의 여러 가지 생존 여건 가운데 핵심 중 핵심으로 부상할 것"이라며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김 군수는 끝으로 "우리 군은 지하수 저리지 개발사업이 원활한 다목적용수 공급의 열쇠가 되게 하고 평등한 물 복지 실현과 지역경제 성장의 바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최만식/기자

박경귀 아산시장 "영인은 중부권 물류단지의 최적지"

박경귀 시장, 영인면 열린 간담회서 치유와 휴식 공간 조성 강조



영인면 주민들과 함께한 열린 간담회가 지난 16일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렸다.

간담회에는 박경귀 아산시장과 김희영 아산시의회 의장, 홍순철 아산시의원과 기관 단체장, 지역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고용산 소방도로 개설, 양수기 수리, 신화초등학교 주변 과속 방지턱 조정, 각종 공장 입지 시 배수로를 고려한 건축설계, 축산농가 조사로 지원, 관내 낚시터 간이 화장실 설치 등 생활 불편 사항에 대한 시정과 개선을 요구했다.

박경귀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영인지역은 아산현이 자리했던 전통의



고장이며, 아산시민의 대표적 먹거리인 아산 맑은 쌀의 주산지다"라며 "전통의 토대 위에 영인산 복합 산림

휴양테마파크와 쌀조개섬 생태레저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해 시민의 휴식과 치유 공간으로서의 지역 정체성을

살려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어 "현재 영인에 농공단지는 있지만 산업단지가 없다. 인구의 유입과 지역발전을 견인할 성장동력을 찾고 있다"라며 "현재 진행 중인 서부 내륙권 고속 도로 IC와 연계한 26만 평 규모의 중부권 물류단지를 영인지역에 조성할 수 있도록 충남도와 협의 중이다"라고 밝혔다.

또, "법과 제도, 예산 문제로 지역 현안을 한 번에 풀어내지 못해 아쉽다"라며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수록 소통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주민들을 직접 만나 상세히 설명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김원호/기자

안성시, 고향사랑기부제 최고액 기부...안법고 출신 이현우 대표

1인 최고 금액 500만원, 답례품 150만원 물품도 기탁

안성시는 안법고 출신 이현우 대표가 안성시 1호 고향사랑기부제 최고액 기부자가 됐다고 밝혔다.

이현우 DH대호건설산업(주) 대표는 안법고 36회 졸업생으로 17일 시장실을 방문해 고향사랑기부금 1인 최고 금액인 500만원을 기탁했다. 또한 기부금의 30%인 답례품 150만원 상당의 물품도 이웃돕기 물품으로 기탁해 훈훈함을 더했다.

이 대표는 "올해 새로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내 고향 안성을 응원하고 힘이 될 수 있어 기쁘다"며 "살고 싶고, 찾고 싶고, 머물고 싶은 안성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최고액을 기부해 주신 이 대표님과 안성시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기부에 동참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기부하신 분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모아진 고향사랑기부금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 및 보호, 지역주민의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안성시 지역발전



에 사용될 계획이다.

한편 고향사랑기부금은 1인당 500만원 한도 내에서 개인이 주소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다.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10만원 초과 금액은 16.5%)와 기부금액의 30% 내

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어 실제로 10만원 기부시 13만원의 혜택이 돌아간다. 기부방법은 고향사랑e음 누리집에 접속하거나 농협을 방문하면 된다.

조혜영/기자

경산시, 장기진 대표 고향에 기부금으로 보답하다!

경산시 고향사랑기부제 두 번째 고액기부자 탄생

경산시에 두 번째 고향사랑기부제 최고액(500만원) 기부자가 탄생했다. 주인공은 (주)애플에드벤처 장기진 대표로 15일 경산시청을 방문해 기부금을 기탁했다.

장기진 대표는 경산시 중앙초등학교 출신으로 경산시에 소재한 대구한의대를 거쳐 영남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주)애플에드벤처의 대표를 맡고 있다.

(주)애플에드벤처는 온라인 광고, 오프라인 광고, 홈페이지 제작 분야에서 마케팅 전문 인력을 활용해 다양한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마케팅 시장에서 앞서가는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장기진 대표는 "나의 유년 시절을 함께해 온 고향 경산시에 미약하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뿌듯하다"며, "내 고향 발전을 위해 써달라"는 말과 함께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을 기부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가 아닌 지역에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로 고향사랑e음 사이트를 통해서 기부할 수 있고, 전자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기부자는 전국 농협 창구에서 기부할 수 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경산 출신의 젊은 기업대표가 고향을 사랑하는 마

음을 고향사랑기부금으로 동참해 줘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경산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의 자발적인 기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광삼/기자

김중호 재대구 의성향우회 회장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 기부

의성군은 2월 16일 김중호 재대구 의성향우회 회장이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을 의성군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김중호 회장은 의성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개최하여 고향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등 남다른 고향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고향의 성을 위한 봉사 활동을 하고 있다.

의성군은 김중호 회장의 이번 기부로 150만원 상당의 의성군 농산물을 답례품으로 주어 지역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 또 출향인의 관심이 중요한 고향사랑기부금 시행 초기 의성군의 고향사랑기부금 모집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금은 개인이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를 하면 지자체가 이를 모아 주민복지 등에 사용하는 제도로 기부자는 기부금의 30% 범위 내에서



답례품을 받고 또한 10만원까지는 전액세액공제,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1월 1일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

금은 고향사랑e음을 통한 온라인 접수와 농협은행 창구를 통한 대면 접수가 가능하다.

윤근수/기자

이형식 경북도의원, 제19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우수상 수상

「경상북도 토종가축 보존 및 육성 조례」로 개인부문 우수상 수상

경상북도의회 이형식 의원(예천, 국민의힘,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7일 아주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제19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경상북도 토종가축 보존 및 육성 조례'로 개인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1988년 창립해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을 위해서 꾸준히 학술적 논의를 진행해 왔으며, 2004년부터 자치입법의 실질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우수조례를 선정해 개인 및 단체 등에 시상하고 있다.

제19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는 전국 광역 및 기초의회 의원발의로 2021년 9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사이에 제·개정된 추천 조례 중 지방자치법 및 행정법 전공자와 전문가로 구성된 우수조례 선정심사 특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본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우수조례에 선정된 이형식 의원 대표발의 「경상북도 토종가축 보존 및 육성 조례」는 경상북도 내에서 사육되는 토종가축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보존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유전자원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됐다.

조례는 주요 내용으로 토종가축의 보존과 보급 및 육성에 필요한 계획



수립, 토종가축 사육 현황 등 실태조사, 유전자원의 보존과 관리, 경상북도 토종가축보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토종가축 사육에 필요한 비용의 예산 범위 내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조례에서 토종가축의 범위는 '축산법 시행규칙'에 따른 한우, 돼지, 닭, 오리, 말 및 꿀벌 중 예로부터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며 사육되어 외래종과 분별이 구분되는 특징을 지니는 가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경상북도에서는 대표적인 토종가축으로 철소가 울릉을 비롯한 51개 농가에서 358두(전국 2,298두)가 사육되고 있다.

이형식 의원은 "경상도내에서 사육되는 토종가축을 보존하고 육성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안했다. 사육이 어렵고 채산성이 낮지만 경북도 차원의 정책과 지원으

로 우리 고유의 토종가축 보존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경북도가 문화와 교육, 도시환경, 주거 등 아이들이 행복하고 사람살기에 전국 으뜸인 도농 조화 도시를 만들기 위한 다채로운 정책마련을 위해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형식 의원은 기초자치단체 3선 의원 및 의장을 역임한 경력과 역량 등을 바탕으로 제12대 경북도의회에 입성해, 오랜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경북도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등 의정활동에 출전수범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도민 복리증진 향상, 지방분권 촉진과 지방자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윤근수/기자

봉화군민들 동참해 튀르키예·시리아 지진피해 구호물품 기증

이불, 침낭 등 다수 기관 및 단체, 개인 참여해 물품 기부



(사)봉화군종합자원봉사센터는 지난 2월 6일 강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시리아에 구호 물품을 보내고자 지난 10일부터 15일까지 6일간 군민 여러분들로부터 물품을 기부받았다.

이번 물품 기부는 지진피해로 삶의 터전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고 앞으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경상북도 23개 시군자원봉사센터에서 진행하게 됐다.

따뜻한 마음으로 기부된 물품은 자원봉사자들의 선별작업을 거쳐 비닐박스 포장 작업 후 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로 보내졌으며, 경상북도중

합자원봉사센터에서 시군센터 기부 물품을 취합해 튀르키예·시리아로 지원될 예정이다.

센터로 기부된 물품은 이불, 침낭, 담요, 겨울의류, 아동복, 생필품 등으로, △봉화로타리클럽(담요 40세트, 100만 원 상당) △봉화군여성단체협의회(의류, 담요 외) △한국여성농업인봉화군연합회(의류, 담요 외 3톤) △봉화군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양말, 의류, 통조림 등) △봉화군자원봉사센터(침낭 10세트 50만 원 상당) 외 다수의 기관, 단체, 개인 등이 동참했다.

지원 물품은 새 제품 위주로 지원되며, 중고 물품은 센터에서 운영 중인

행복정미소(정미소)에서 저렴하게 판매된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외 이웃에게는 무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행복정미소 수익금은 행복공작소(집수리 전문봉사단)를 통해 소외 이웃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지원된다.

김병남 이사장은 "따뜻한 마음으로 물품 지원에 동참해 주신 기관, 단체, 개인 등 군민 여러분들의 참여와 호응에 감사함을 전하며, 물품 지원을 통해 지진피해로부터 삶의 터전과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앞으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정금자/기자

최대호 안양시장, 성결대학교 명예 교육학박사 학위 받아

최대호 안양시장이 16일 성결대학교로부터 명예 교육학박사 학위를 수여받았다. 이날 성결대학교 재림관 8층에서 열린 학위 수여식은 김상식 성결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정희석 부총장, 윤민영 교학부총장 등 학교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상식 총장은 "최대호 안양시장께서 시장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교육 발전과 인재 육성에 힘써오셨다"며 "특히, 인재육성재단의 장학사업, 지역대학 연계 특화사업 등으로 학생들이 재능을 발굴하고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셨다"고 학위 추천 이유를 밝혔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부족한 저에게 명예박사 학위를 주셔서 매우 감사드리고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교육은 미래를 위한 준비"라며 "안양시민이 꿈을 키우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시인재육성재단 이사장인



최 시장은 민선 5기 2010~2014년까지 봉급 전액을 장학금으로 기부해 안양시 인재육성재단(전 안양시인재육성장학재단) 장학사업의 기반을 마련했다. 안양시인재육성재단은 설립 이래 현재까지 약 9천여명의 장학생을 배출했다. 특히,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에 국한하지 않고 인문사회·과학·예체능 등 다양한 분야에 재능을 가진 학생을 대상으로 재능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제24회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메달리스트인 황대현, 서희민, 김민석, 차민규 선수도 안양시인재육성재단 장학지원을 받아 성장한 지역 인재이다. 또 안양시는 지역 정주 인재 육성을 위한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HiVE)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 대학과 연계해 지식기반산업 및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성인 학습자 대상 평생직업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최정부/기자

삼우이노베이션,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굿닥터 리뷰플랫폼' 서비스 시작...의사 선택의 기준이 되다



삼우이노베이션이 23년 2월 16일부터 '굿 닥터 리뷰플랫폼'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굿 닥터는 환자에게 정확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닥터 리뷰플랫폼으로, 환자가 원하는 의사를 찾을 수 있게 도와준다.

단순히 병원을 찾아가는 쉽지만, 막상 자기에게 맞는 전문의를 찾기가 어렵다. 같은 의료 분야 안에서도 특정 수술과 진료에 특화된 의사가 각기 다르므로, 굿닥터는 한 분야 안에서 환자가 원하는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의사를 찾을 수 있게 돕는다. 이용자가 굿 닥터에 자기 경험을 공유하고, 다른 환자들의 후기를 통해 개인에게 맞는 의사를 찾을 수 있다. 2023년2월16일 서비스를 시작하는 굿 닥터 리뷰플랫폼은 빅데이터 플랫폼 1차 버전으로, '닥터 빅데이터 서비스 포털'과 '굿 닥터 대시보드'로 구축돼 있다.

빅데이터 서비스 포털은 온라인에서 수집된 10~20종의 흩어져 있는 의사 정보를 한 곳에서 제공하며, 굿 닥

터 대시보드는 의사의 진료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서비스다.

환자에게 오픈하는 굿 닥터 대시보드는 ▲의사의 스페셜 진료 정보 제공 ▲고객이 찾는 굿 닥터 매칭 ▲휴어져 있는 의사 정보를 한 곳에서 제공 ▲과대광고로 인한 환자 유인 행위 근절 등 4가지 주제에 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진료별 정보를 제공한다.

삼우이노베이션 채성길 대표이사는 "환자가 좋은 의사를 선택하는 기준은 양심 의사부터 바른 의사, 착한 의사, 정직한 의사, 친절한 의사 등 다양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환자가 의사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기 어렵기 때문에 의사마다 특화된 진료 분야나, 본인 니즈에 적합한 의사를 선택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굿 닥터는 환자가 필요로 하는 의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이러한 환자의 고민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전했다.

최만식/기자

대구 관광 스타트업 새로운 아이디어로 지역 관광 활성화 박차

대구 관광 스타트업 육성사업, 밋업데이(Meet-Up Day) 성료

대구시와 (재)대구문화예술포럼(이하 '문예진흥원')은 3대 문화권 관광진흥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한 대구 관광 스타트업 육성사업이 밋업데이(Meet-Up Day)를 끝으로 성황리에 마쳤다.

대구 관광 스타트업 육성 사업은 2018년부터 2년마다 추진돼 지금까지 총 18개 팀의 관광 스타트업을 육성했으며, 특히 지난 2기 스타트업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기업은 현재 6억 원 정도의 투자유치 성과를 보였다.

이번 스타트업 육성 사업에는, 지역 스타트업 기업 10개사가 선정돼 교육 및 컨설팅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기존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것은 물론, 관광 산업 전반의 노하우와 지식을 제공했다. 또한, 스타트업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인 자금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대 4천만 원까지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해 사업 아이템의 시장 매력도를 높였다.

선정된 아이템은 △대구 관광지 미션 수행 게임 플랫폼(주)파코웨어) △판매되지 못한 대구 대표 농산물을 활용한 수제 발효 음료·주류 개발(주)비네스트) △AR 기술 활용 가상 대구 미술품 전시 플랫폼(제이엠) △텍스미디어를 통한 대구 관광 콘텐츠

츠 송출(주)키즐코리아) △약령시 한약 재료를 활용한 무카페인 대체 커피 개발(주)아그로스) △메타버스 실감형 대구 관광 플랫폼(주)퀘스터) △대구 여행상품 제안 및 비교 플랫폼(주)사업노트) △대구 스포츠 소셜 여행 서비스(주)트립소다) △아웃도어 인터랙티브 대구 관광 콘텐츠 플랫폼(주)플레이더월드) △세줄일기와 떠나는 대구 사색여행 플랫폼(주)일림)의 아이디어로 구성됐다.

올해는 현재까지 선정된 10개 기업에 약 3억 원의 투자 자금이 유치됐고, 매출은 106% 성장, 고용률은 195% 성장을 이끌어내는 등 대구 관광 스타트업 육성사업 참여 이후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내고 있다.

이러한 대구 관광 스타트업 육성사업은 2. 16.(목)에 개최된 대구 관광 스타트업 밋업데이 행사를 통해 방향을 짚었다. 행사는 전국 유수의 투자자와 기관을 대상으로 각 기업들의 사업 아이템에 대한 프레젠테이션과 심사를 통해 관광 스타트업 기업들의 투자유치에 박차를 가했다.

또, 대구시 구·군 관계자들과 관내 유관기관 관계자들과의 네트워킹 행사 또한 같이 진행됐으며, 이를 통해 상호 비즈니스 교류 및 노하우 공유 등 대구 관광산업 전반의 네트워킹



장을 만들며 성황리에 행사를 마쳤다.

노경옥 하이투자파트너스 상무는 "관광 산업은 지역의 여러 산업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기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광산업 부흥이 필수적이다. 코로나의 충격이 다가오면서 관광 스타트업에게도 기회가 다시 열리기 시작하고 있는데 이러한 관광산업 육성 사업 등을 통해 관광 스타트업이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

리 창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강성길 문예진흥원 관광본부장은 "관광 분야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큰 타격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 사업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새로운 아이디어와 창업을 시도하는 분들에게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관광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광주광역시, 국산 AI반도체 생태계 구축 선점

'AI반도체 시험검증 환경 조성' 사업비 200억원 확보

인공지능(AI)반도체의 성능검증을 담당하는 '국산 AI반도체 기반 클라우드 환경 시스템'이 전국 최초로 광주시 북구 첨단3지구 AI데이터센터에 구축된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AI데이터센터와의 시너지는 물론 민선 8기 광주·전남 상생1호 협력사업으로 추진 중인 'AI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에도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광역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K-클라우드 프로젝트'의 하나인 'AI반도체 시험검증 환경 조성사업' 예산 200억원(국비 140억원, 시비 60억원)을 확보,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과 함께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광주시만 선정됐다. 내년(2024년)까지 2년 간 국산 AI반도체 서버방을 통한 실증 레퍼런스 확보, AI반도체의 호환성, 안정성, 사용성, 확장성, 성능을 모두 검증할 수 있는 원스톱 실증, 검증 체계 구축 등의 사업을 진행한다.

현재 국내 AI반도체는 대부분 상용화 전 단계로, 시장 진입을 위해서는 종합성능뿐만 아니라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 안정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광주시는 이 사업을 통해 공공영역에서 국산 AI반도체의 호환성·안정성·사용성·확장성·성능 등을 원스톱으로 테스트하는 환경을 구축, AI반도체 제조회사의 투자 부담을 줄여 초기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국내 AI반도체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광주시는 특히 AI반도체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AI 서비스 적용 실적을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AI반도체 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클라우드 서비스 등 상용화 전, 국산 AI반도체의 기능·성능 검증 시행을 통한 수요시장 진출이 가능한 사례(레퍼런스)를 발굴한다.

특히, AI데이터센터 내 국산 AI반도체 기반의 '실사용 환경시험 구축'을 통해 실제 서비스 단계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사업에는 대규모 전력 소모를 개선한 신기술이 적용된 반도체인 '엔피유(NPU)'가 사용되는 게 특징이다. 엔피유 반도체는 국내에서도 다수 출시됐다.

앞서 광주시와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은 국내 AI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주관한 'AI반도체 실증 지원사업(2021~2022년 연속 과제)'을 성공리에 수행했다.

이 사업으로 그동안 외산 AI반도체 기반으로 운영됐던 응용 서비스를 국산 AI반도체 시스템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광주시는 오는 3월 중 'AI반도체 시험검증 환경 조성' 사업자를 선정해 AI데이터센터 내에 클라우드 환경을 구축하게 된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오는 3월20일까지 신청하면 되고, 이후 사업 계획서 평가를 거쳐 최종 수행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 일정과 제안서 접수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와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병수/기자

삼척시-강원대 협력기반 지역발전포럼 개최

지방소멸 위기에 따른 해결방안 모색과 지역-대학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삼척시-강원대 협력기반 지역발전포럼'이 2월 17일 15시 30분 강원대학교 그린에너지연구원 3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렸다.

삼척시가 주최하고 강원대가 주관하는 이번 포럼은 지역 인재양성, 수소 신산업 일자리창출, 지역의료시설 확충방안 등을 주제로 이철규 국회의원, 박상수 삼척시장, 김현영 강원대학교 총장, 정순준 삼척시의회 의장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포럼에서는 조형선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정책팀장의 '지방소멸 극복 대응을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 역할', 조희숙 강원대병원 공공보건의료 사업실장의 '지역 병원 추진을 위한 정책 대응 방안', 최홍훈 강원도 에너지과장의 '삼척시 지역발전을 위한 강원도 에너지 신산업 전략', 윤종철 강원대학교 기획지원처장의 '인구소멸 대응을 위한 지·학 연계형 지방균형

발전 전략' 등 발표가 진행된다.

또한, 남우동 강원대학교 병원장, 윤정의 강원대학교 삼척부총장, 조인성 삼척시 경제진흥국장, 김권중 강원도 균형발전과장, 안순헌 기획재정부 지방재정팀장, 임호상 충북대학교 병원 기획예산과장 등이 참여하는 '지·학 연계형 삼척시-강원대 상생발전 방안'에 대한 토론회도, 조형환 강원TP 에너지팀장, 김주영 강원대학교 수소산업연구추진단장, 강윤식 강원대학교 지역재생센터장, 이창현(단국대학교 에너지공학과), 홍승기 수소MC 회장, 김기동 딜로이 트컨설팅 상무 등이 참여하는 '에너지 신산업 기반 삼척시 지역발전 방안'에 대한 토론회도 각각 진행된다.

삼척시 관계자는 "이번 포럼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에 따른 의료복지향상을 위한 해결방안을 찾고, 에너지에 기반한 산업발전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등원/기자

김해산 토마토 꺾 수출 시작

김해시는 3월부터 스마트 팜 농장에서 생산한 고품질 토마토의 꺾 수출이 시작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작년 12월부터 토마토 샘플을 꺾에 보내 현지 소비자들에게 김해 토마토를 선보였고 다음 달부터 매주 30박스(150kg)씩 지속적으로 수출한다. 아직 시작 단계여서 물량이 많지 않지만 조만간 물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토마토는 가지과에 속하는 1년생 반덩굴성 식물 열매이며 원산지는 남미 페루이다. 16세기 초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즈음 유럽으로 건너가 스페인과 이탈리아에서 재배됐다. 우리나라에는 19세기 초 일본을 거쳐 들어온 것으로 추정한다. 우리말로 '일년감'이라고도 하며 한자명은 남방시(南蠻柿)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관상용으로 심었다가 차츰 영양가가 높은 식품으로 알려지고 밭에서 재배하면서 대중화됐다. 요즘은 비닐 하우스 재배로 1년 내내 먹을 수 있다.

토마토가 빨갛게 익으면 '의사 얼굴이 파랗게 된다'는 유럽 속담이 있다. 즉, 의사가 필요 없을 정도로 건강이 좋은 식품이란 의미이다. 이는 라이코펜, 베타카로틴 같은 항산화 물질이 많기 때문으로 토마토의 빨간색은 카로티노이드라는 식물 색소 때문이며 라이코펜이 주성분이다. 빨갛게 익은 토마토 1개에는 라이코펜이 7~12mg 들어 있다.

이외에도 구연산, 사과산, 호박산, 아미노산, 루틴, 단백질, 당질, 지방, 칼슘, 철, 인, 비타민 A, 비타민 B1, 비타민 B2, 비타민 C, 식이섬유 등 함유돼 있고 비타민 C의 경우 토마토 1개에 하루 섭취 권장량의 절반가량이 들어 있다.

김해시에서는 방울토마토가 일본에 수출되고 있으며 이번에 토마토를 꺾으로 수출하며 수출시장을 넓혔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토마토뿐만 아니라 다양한 품목의 수출을 위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광용/기자

이장우 대전시장, 대전테크노파크 수도권 뛰어넘는 역할 당부

16일 대전테크노파크 방문... "창조적 아이디어로 유니콘기업 배출" 주문

이장우 대전시장은 16일, 기관방문 일정으로 대전테크노파크를 찾았다.

이 시장은 "대전 전체의 산업구조를 바꿔야 한다. 약점을 보완하는 것보다 강점을 최대한 키워야 한다"며, "연구기능만으로는 기업을 키울 수 없고 연구개발 성과를 산업화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업은 무엇보다 산업단지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작은 산업단지는 기업 육성에 한계가 있고 시너지 효과가 없다. 그래서 산업용지 500만 평을 조성해 시급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산업단지 조성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이 시장은 "우리의 큰 강점인 방위사업청을 핵심으로 한 방산기업을 키우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이에 더해 "첨단무기, 무인로봇, 정밀정찰



센서, 군사용 드론 등을 생산하는 방산기업을 육성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바이오헬스, 나노반도체, 우주항공, 방위산업 등 4대 전략산업 육성방향과 기대효과 등을 공유했다.

이 시장은 지난 1월 실리콘밸리와 NASA 연구센터 방문에서 드론, 도심항공교통(UAM), 헬리콥터, 여객

기 등 4단계로 구분해서 연구하는 부분이 인상 깊었다"며, "드론, 도심항공교통(UAM), 헬리콥터를 묶어서 갈 수밖에 없다"며, "지역기업들이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하고, 대전이 수도권을 뛰어 넘을 수 있도록 대전테크노파크가 역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이 시장은 직원들과 ▲지역업체 입사할 경우 인센티브 마련 ▲경영 자율성 확대 ▲체력관리, 일-가정 양립 노하우 ▲대전에서 문화생활할 수 있는 기회 마련 등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특히 이 시장은 직원들에게 보문산에 건립될 타워, 케이블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며 "대전을 대한민국 최고의 상품으로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장우 시장은 "대전테크노파크는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지 못하면 발전성이 없다"며, "원장이 역량을 갖고 행정을 지원하고, 단장들이 책임성을 갖고 사업을 확실히 끌고 가달라"고 당부하고, 임기가 만료된 임현문 원장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대전테크노파크 방문을 마무리했다.

김원호/기자

「2023 올진대게와 붉은대게 축제 개최」

2023년 '대한민국의 숨' 올진군이 전국 최고의 대게와 붉은대게 생산지'이자 '해양레저스포츠의 요람' 국제 마리나항으로 부상하고 있는 '비단바다' 해변의 도시 올진군 후포항 왕돌초 광장에서

오는 2월 23일(목)부터 2월 26일(일)까지 4일간 화려한 막을 올리게 된다.

코로나 19로 4년만에 개최되는 '2023 올진대게와 붉은대게 축제'는 '올진대게, 그대에게'란 주제로 환동해 해양관광 중심도시에 걸맞는 지역 대표축제로 계승발전시키고 올진대게와 붉은대게를 이용한 신제품 개발과 고부가가치의 특산물 개발 등을 위해 올진대게와 붉은대게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판매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최된다.

이에 대경언론인협의회 공동 취재진은 지난 2월 18일(토), 후포항을 찾아 대한민국 국민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는 '2023 올진대게와 붉은대게 축제'에 대해 집중 취재 했다.

이번 축제는 올진군이 주관하고 올진군 축제발전위원회 주최하는 '2023 올진대게와 붉은대게 축제' 행사는 월송큰줄당기기·개막식 및 플래시몹·개막축하공연의 공식행사와 대게노래자랑·맨손잡기 체험·대게레크레이션의 무대프로그램, 대게줄다리기 체험·대게바이킹에어바운스·무로보트승선체험 등 체험프로그램과 대게판매부스·대게먹거리장터·올진관광지투어 등 기타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이 행사컨셉에 따른 '2023 올진대게와 붉은대게 축제' 일정별 세부 행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일차 축제는 2월 23일, 10시부터 시작되며, 메인무대에서는 지역주민의 재능발굴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자리인 대게노래자랑대회가 펼쳐지고, 보조무대에서는 대게 레크레이션, 지역동아리 공연이 그리고 축제기간 내내 판매프로그램, 후포리 벽화마을·후포항스카이워크·축제행사장 모두를 방문케하는 올진관광지 투어, 포토존, 관광객들이 올진에서 다양한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요트체험·사진무료 인화 체험·크루즈내부투어인 부대체험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져 한껏 축제분위기를 고조 시켜 나갈 계획이다.

▲ 2일차 축제는 대게 및 붉은대게 경매 및 레크레이션, 대게노래자랑, 식전공연 및 파도풍물단 공연이 펼쳐지며, 특히 이날 17시30분, 올진대게와 붉은대게 축제 개최를 알리며 지역주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개막프로그램인 대게플레이시몹퍼포먼스가 펼쳐진다. 또 이날 개막식은 대게노래자랑대회 시상식이 펼쳐지며 식전·식후 공연에는 가수 지원이, 올진가수 출신 풍금 등이 출연하는 축하공연 무대가 펼쳐지며, 보조무대에서는 대게레크레이션, 맨손잡기 체험, 지역동아리 공연 등이 펼쳐져 관광객들의 눈길을 사로 잡을 계획이다.

▲ 3일차 축제는 올진의 명물인 대게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획인 경매행사과 올진의 전통과 단합을 담은 월송큰줄당기기 프로그램, 올진의 대표적인 민속놀이인 음뽕별기 줄다리기, 가수 박구윤 등이 출연하는 축하무대와 올진연예인연합회 공연이 펼쳐지며, 대게레크레이션, 맨손잡기 체험, 마술쇼 등이 펼쳐진다.

▲ 축제 마지막날인 4일차는 대게 레크레이션, 맨손잡기 체험 등이 보조무대에서 펼쳐지며, 메인무대에서는 경매행사와 버스킹 공연, 국악협회 축하공연이 펼쳐지며, 15시에 폐막식으로 2023올진대게 및 붉은대게 축제의 대장정의 막이 내려지게 된다.

올진대게!라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대게가 크다고 불여진 이름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대게몸통에서 뿜어 나온 8개의 다리 마디가 마치 마른 대나무를 닮았다 하여 대게로 불리어 지고 있다. 대게는 찬바람이 불어야 속이 차며, 11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가 제철이지만 살이 통통하게 오른 대게는 2월부터 먹어야 제맛이다.

코로나19로 4년만에 2월 23(목)부터 후포항에서 4일간 개최해

이곳 올진은 대게 생산량 1위로 대게 원조마을로 통하는데, 역사적 유래를 들여다보면, 동국여지승람과 대동지지의 고려시대부터 대게가 올진의 특산물로 자리 잡았다고 전한다. 조선 선조 때 영의정을 지낸 이산해(1539~1609)는 이곳으로 귀양 왔다가 대게가 많다고 해서 '해포(蟹浦)'라는 이름을 지어줬다고 전하고 있는데, 임금 수라상에 까지 올라갈 정도로 귀한 수산물이다.

「이러한 대게의 효능은 ▲피로회복, 콜레스테롤 억제, 간독소, 알코올 해독에 도움을 주는 **타우린성분**과,

진군 남쪽 끝에 위치한 동해중부해역의 주요 어항으로 청정 동해의 생동감 넘치는 수산물과 올진 대



게의 펄떡거리는 기운으로 가득 차고 바다 내음이 싱그러움으로 아름다운 어촌항구로써 풍치, 오징어, 고등어, 대게, 가자미 등



가수 지원이, 박구윤 등 축하공연과 다채로운 행사 펼쳐져

동해에서 나는 모든 어종의 집산지이다.

이곳 항구 주변에는 선박 모양으로 지은 후포수산업협동조합과 후포수협회센터·어판장·후포어시장·횃집 등이 즐비하며, 항구 뒤쪽 등기산(64m)에는 1968년부터 가동된 후포등대가 위치해 있고, 후포 등기산 공원은 후포 앞바다가 한눈에 펼쳐지는 환상적인 곳으로 세계 각국의 유명한 등대모형들이 세워져 있어 평시에도 많은 관광객들이 어시장에서 맛껏 해산물을 즐긴 후, 이곳 등기산을 찾고 있다.

특히 이번 축제 관광지투어 프로그램

산물을 현지에서 저렴하게 맛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단순히 후포항의 해산물을 홍보하는 수준을 넘어 이제는 지역의 우수 축제로 자리잡은 올진대게와 붉은대게축제를 통해 실질적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할 예정이다.

또 대게빵과 대게고로케, 대게장비빔밥, 대게국수 등 올진 해산물을 활용해 정직한 올진의 맛을 선사하고, 이밖에도 대게의 일생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대게전시관과 후포요트학교가 운영하는 '요트체험' 등 다양한 콘텐츠로 관광객을 맞이할 계획이다.

취재간 후포항에서 업을 하고 있는 K모씨는 "매년 축제 때마다 관광객이 차고 넘쳐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며 "이럴 때 일수록 손님을 맞이하는 지역상인들이 축제라서 한몫을 챙기겠다는 사고를 버리고 관광객분들에게 질 좋은 대게를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마음가짐을 가졌으면 좋겠다"면서 "저희들은 첫째도 친절 둘째도 친절 셋째도 친절 서비스로 1회성에 그치는 축제가 아니라 올해도 내년에도 후년에도 시간날때마다 이곳 후포항을 찾아 오실 수 있도록 오로지 정성을 다해 최고 솜씨의 맛으로 손님들을 맞이 하겠다"고 말했다.

축제 추진준비위원회 김종열 부위원장은 "올진의 대표적 브랜드인 '올진대게와 붉은대게'를 주제로 먹거리 축제의 으뜸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다해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와 맘껏 오감만족을 느끼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손병복 올진군수는 "코로나 19로 인해 4년만에 '2023 올진대게와 붉은대게 축제'를 개최하게 돼, 매우 반갑다"고 운을 뗀 뒤, "올진군은 청정한 자연과 더불어 전국에서 가장 맑고 깨끗한 공기를 지닌 곳이니 많은 분들이 축제장을 방문하시러 올진의 다양한 매력을 만끽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으며, 또한, "주민과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진행해 한건의 불미스러운 일이 없는 완벽한 축제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진 명품브랜드인 올진대게막지장을 비롯 '붉은대게 다리살' 등 대게와 붉은대게 가공식품들은 지난 2017년 광주국제식품전에서 인기를 독차지 한바 있어 올해에도 이 명품 브랜드가 각광을 받을 것으로 보여져 올진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23년 올진대게와 붉은 대게 축제!'

이번에 펼쳐지는 올진대게 축제는 '맛으로 느끼고 체험으로 즐기며 눈으로 보고 귀로 즐기는 오감만족의 프로그램이 조화롭고 아름답게 연출되는 새봄 맞이 힐링축제'이다.

이처럼 아름다운 새봄맞이 힐링 올진대게축제가 아름다운 후포항에서 2월 23일부터 2월 26일까지 4일간, 봄기운과 봄바람을 타고 출렁이는 바닷물결 따라 펼쳐진다. 맛과 영양과 각종 인체에 유익한 성분을 듬뿍 담은 올진대게와 붉은대게의 담백한 품미, 푸짐한 먹거리와 지원이, 박구윤 등 인기가수들과 각종 올진 예술인들이 펼치는 축하공연, 그리고 대게노래자랑대회가 어우러진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느낄거리 등, 오감만족을 확실히 채워 줄 수 있는

'2023 올진대게와 붉은대게 축제'에 전국에 계신 관광객분들이 많이 찾아와 맘껏 즐기고, 맘껏 힐링체험을 하고 돌아가면 어떨까? 주문드려보며, 이번 취재간 성심성의껏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취재에 적극 협조해준 D모씨, S모씨, Y모씨 3분의 공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함을 드려보며, 대박 축제가 되기를 기원드린다.

<공동취재진: 문화매일 윤근수, 글로벌경제이유근, 열린뉴스통신 김덕수, 신한뉴스고태우, 경북종합뉴스 임정윤, 뉴스원 조영준, 공지한경뉴스 이재용, KNS뉴스통신 장세홍, 한국아뉴스 류성욱기자>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키토산**, ▲체내 지방축적 방지, 다이어트, 변비예방에 좋은 **키틴성분**, ▲어린이 성장·발육에 좋은 **단백질과 필수아미노산**, ▲뼈건강,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주는 **칼슘, 인, 철, 마그네슘**, ▲피부노화 방지와 세포 재생에 도움을 주는 **핵산** 성분이 함유된 최고의 건강식이라 불려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맛과 영양이 풍부하며 인체에 매우 유익한 성분을 다양함유하고 있다.

이 올진대게는 경상북도 올진군 후포면 후포리 근해에 형성된 왕돌초



램의 하나로 지난 2018년 3월 24일, 정식 개장한 올진 후포 '등기산 스카이워크'는 길이 135m, 높이 20m로 발아래로 흐르는 옥빛의 바다풍경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이곳은 가파른 120계 단을 따라 걸어 올라가야 하는 힐링코스로서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은 필수 볼거리 관광코스로 각광을 받고 있다. 또, 후포항구의 방파제에는 감성돔과 학공치가 잘 잡혀 낚시 애호가들이 즐겨 찾고 있는 등, 연간 수백만명이 이곳 후포항을 찾아 풍성한 수산물을 보고, 듣고, 사고, 먹는 오감만족을 즐길 수 있는 어촌도시로



에서 서식하는 수산물이다. 왕돌초는 올진에서 23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바다속 금강산이라 불리며 지는 거대한 수중암초 덩어리로 동서 길이 21km, 남북길이 54km의 서울 여의도 면적의 2배 정도 규모의 어장이다. 이곳은 해조류 21종, 어류 25종, 해면동물 4종, 연체동물 30여종 등 모두 126여 종의 다양한 해양생물이 서식하고 있어 이곳 올진 어민들에게는 삶의 터전으로 자리 잡아 오고 있는 거대한 수중 보물창고인 보고(寶庫)이다.

이처럼 보고(寶庫)항인 후포항은 올



중평이 나있는 어촌항구이다. 올진군과 축제 추진준비위원회는 올진대게와 붉은대게가 올진의 대표적 먹거리이자 브랜드인 만큼, 관광객들과 주민들이 다양한 해산물을 푸짐하게 맛볼 수 있도록 '먹거리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이번 축제를 준비하고 있다. 4년만에 개최되는 축제인 만큼 좋은 호응을 보여주었던 '방티마당' 및 '올진대게와 붉은대게 경매 이벤트' 등 다양한 일정별 프로그램으로 관광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계획이다. 특히, 후포항을 배경으로 다양한 해



서울시, 신학기 대비 룸카페 등 청소년 유해업소 집중단속 연장 실시

3월 중순까지 룸카페 청소년 출입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 연장

서울시는 신학기를 대비하여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악용될 수 있는 룸카페에 대해 3월 14일까지 한달간 집중 단속을 연장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앞서 2월 3일부터 13일까지 룸카페, 멀티방 등 168개소를 대상으로 자치구, 경찰, 민간단체와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열흘 간의 합동 점검 결과 청소년 출입 등 룸카페 불법행위가 쉽게 근절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 신학기를 대비하여 청소년 유해환경 근절을 위해 한 달간 단속을 연장한다.

주요 단속사항은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임에도 이를 알리는 표시를 하지 않거나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행위 △ 밀폐 구조에 침대, 욕실을 설치하는 등 숙박업 요건을 충족함에도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한 행위 등이다.

현재 대부분의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 결정 공시(여자가족부)에 따라 ① 밀폐된 공간, 칸막이 등으로 구획 ② 침구 등을 비치하거나 시침 기자재 등을 설치 ③ 신체접

촉 또는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에 해당한다.

출입문 제거, 투명창을 설치했다라도 칸막이를 설치하고 침구 비치 또는 시침 기자재 설치, 신체접촉 또는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일 경우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에 해당된다고 판단,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 미표시, 청소년 출입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침대, 욕실까지 설치하여 운영하는 일부 룸카페에 대해서는 무신고 숙박 영업행위로 단속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단속에서 자치구, 경찰 등과 합동 단속반을 구성하고, 주야간 집중 단속을 전개, 청소년 유해환경을 뿌리 뽑고자 한다.

서울시는 민생사법경찰단, 청소년 정책과를 중심으로 자치구, 경찰과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서울시 곳곳에 존재하는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 주·야간 단속을 전개, 불법행위 적발 시 즉시 입건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서초동, 안마방 등 청소년 유해 전단지 증가에 따라 유해 전단지 수거 등 일제 단속을 병행, 청소년·학부모 안심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코로나19 이후 유흥업 관련 단속 감소로 유흥업 관련 전단지 무차별 배포가 증가함에 따라 민생사법경찰단에서 청소년 유해 전단지 단속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유흥가 인근 주택지까지 뿌려지는 유해 전단지를 수거, '대포킬러'를 활용하여 업자와 수요자의 통화를 차단하고, 이동통신사에 해당 전화번호 이용정지를 요청, 범죄 발생 요인을 차단할 계획이다.

시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 미부착 또는 청소년 출입행위, 룸카페의 무신고 숙박 영업행위 등 불법행위 적발의 경우 이용자의 제보가 중요한 만큼, 관련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번 단속은 신학기 청소년 보호를 위해 실시하는 만큼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향후 지속적인 단속과 점검으로 룸카페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과적차량 꼼짝마!”...광주광역시, 도로파손 주변 집중 단속

3월20일까지 한달간...상무대로 등 44개 주요노선, 교량·고가도로 6곳

광주광역시는 도로시설물 파손과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과적차량에 대해 오는 20일부터 3월20일까지 한달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총중량 40t ▲축하중 10t ▲높이 4m ▲길이 16.7m 중 하나라도 초과해 운행하는 차량과 건설기계다. 위반정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축하중 11t 과적차량 1대는 승용차 11만대, 13t 1대는 승용차 21만대가 운행한 것과 동일한 도로파손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도로와 교량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며, 도로포장 복구 비용 증가와 대형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번 단속은 과적이동단속반이 일상 단속뿐만 아니라 주야간 특별단속을 병행해 상무대로·무등로 등 44개 주요노선과 임등교·장록교 등 교량 및 고가도로 6곳 등에서 집중 실시할



예정이다.

박상백 종합건설본부장은 “과적차량 단속도 중요하지만 운전자와 건설업체 스스로 준법 운행을 해야 한다”며 “과적 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사고예방을 위해 홍보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 과적 근원지인 건설공사장, 철강업체, 산업단지 등 60여 곳을 방문해 과적 근절을 위한 홍보와 계도 활동을 했으며, 차량 2312대를 단속해 위반차량 5대를 적발하고 과태료 350만원 부과했다.

김병수/기자

고양특례시 일산서구,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 집중 단속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오는 2월 20일부터 22일까지 초·중·고등학교 봄 개학맞이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 강화를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서저해식품 판매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정서저해식품이란,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성적인 호기심을 유발하는 등 어린이의 건전한 정서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그러한 도안이나 문구가 들어 있는 식품을 말하며, 판매나 판매목적의 제조·가공·수입·조리·저장·운반 및 진열을 금지하고 있다.

정서저해식품의 예로는 돈·화투·담배 등의 형태로 만든 식품, 인체 특정 부위묘양으로 성적호기심을 유발하는 식품(남녀의 애정행위 묘양 포함),

게임기 등을 이용하여 판매하는 식품, 사람형태나 특정부위묘양(머리, 눈알 등)으로 혐오감을 유발하는 식품 등이 있다.

이번 지도점검은 어린이기호식품전담관리원 등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투입하여 관내 학원가 및 학교 주변 어린이기호식품조리판매업소 185개소를 대상으로 정서저해식품 판매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금지사항을 위반한 업소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 등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하여야 한다.

그 밖에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조리시설 및 판매시설 등 위생적 관리 여부 ▲학교 매점, 우수판매업소 고열량·저영양 식품 등 판매 제한 ▲식

품접객업소 위생마스크 등 착용여부 등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학교 주변 식품조리·판매업소 영업자의 식품안전의식을 고취시켜 안전한 식품 구매환경을 조성하고, 어린이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식품안전관리 교육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학교주변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식품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매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한 식품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유지관리에 힘쓰고 있다.

한영기/기자

용인특례시, 화재 취약한 건축자재 '미인정 제품' 집중단속

3월부터 대형건축공사장 대상으로 시공품질관리 점검

샌드위치패널, 우레탄패널 등의 자재는 건축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화재에 취약하다. 특히 이들 가연성 소재가 큰 화재로 이어져 소중한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용인특례시가 오는 3월부터 대형 건축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화재취약 자재 시공품질관리상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16일 밝혔다.

건축 시공자는 2022년 2월 개정·시행된 건축법에 따라 품질인정을 받은 자재만 공급받아 시공해야 한다. 하지만 여전히 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부적합한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용인특례시 지역건축안전센터는 자체제작한 '건축물 화재안전 시공품질관리 기술지원서' 매뉴얼을 각 현장에 배포해, 점검 전에 개정·시행제도를 안내한다. 안내 후 현장을 돌며 기준을 충족하는 자재가 시공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연면적 10,000㎡ 이상 규모의 대형건축공사장, 연면적 3,000㎡ 이상 공장·창고 및 복합자재



를 사용한 건축공사현장이다.

시는 이들 현장에서 ▲방화문, 방화셔터, 방화담뽀 등 화재예방설비의 품질인정 여부 ▲복합패널, 단열재가 적합하게 시공됐는지 여부를 꼼꼼하게 점검한다.

점검 결과 부적합 자재를 시공한 현장은 재시공하도록 하고, 시공자와 감리자를 대상으로 품질인정제도를

준수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제공한다.

시 관계자는 “각 공사현장에서 품질인정을 받은 자재를 사용하는 것이 대형화재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첫걸음”이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안성시보건소, 민원다발구역 대상 흡연행위 집중 지도·단속 실시

안성시보건소가 흡연으로 인한 민원다발지역을 대상으로 2월 13일부터 2월 16일까지 4일동안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버스정류소는 다수 시민이 매일 이용하는 공간으로, 버스정류소 10미터 이내를 '안성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 중이지만, '대덕면 내리' 버스정류소에서 출퇴근 시간 외국인 근로자들의 흡연으로 인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번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집중단속은 출퇴근 시간에 맞춰 새벽 6시부터 시행했으며, 민원이 잦은 '대덕면 내리' 버스정류소 뿐만 아니라 공공청사 및 금연시장(안성맞춤시장, 중앙시장) 등을 중심으로 시행했고,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과태료 5만원 또는 10만원을 부과했다.

나경관 보건소장은 “이번 지도·단속을 통해 지역사회에서의 금연문화 정착과 금연분위기 확산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수시로 주야간



및 휴일의 금연구역 흡연행위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나 쾌적한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시민분들의 많

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순천시, 2023정원박람회 기간 불법상행위 특별단속 ...20일부터 박람회 종료까지

순천시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기간 동안 불법상행위(잡상인 등)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D-40인 오는 20일부터 박람회가 종료되는 10월 31일까지 254일간을 '2023 정원박람회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박람회장 주변에서의 불법 노점상(차량 이용, 포차 포함), 가방이나 카트를 활용한 영업 행위, 단체관광버스 내에서의 영업 행위를 금지한다.

주요 단속지역은 박람회장을 비롯하여 오천저류지 광장 주변 도로, 동천 일원(출렁다리~풍덕교, 벚꽃 개화 시는 용당교까지)과 주변 도로, 경관정원(풍덕동, 연향동, 해룡동 일원), 주차장(박람회장 내, 임시주차장, 연향동주차장, 가든마켓주차장, 스포츠센터 주차장), 연향3지구 완충녹지, 순천만습지 주차장 및 어성길 일원이다.

순천시가 박람회 개최 전부터 불법상행위(잡상인)에 강력 대응한 이유는 벚꽃 시즌과 박람회 특수를 노린 잡상인들이 자리를 선점하는 것을 원천 봉쇄할 뿐만 아니라 박람회장이 도심으로 확대되고 경관정원이 조성

됨에 따라 많은 인파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관람객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와 더불어 품격높은 도시 이미지를 보여주고자 함이다. 이와 함께 세금을 내지 않는 기업형 노점상들로부터 지역 상권을 보호하고 도심 내로 관람객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시는 사전계도, 집중 단속, 상시단속 단계로 나누어 단속기간을 운영하고 1일 평균 193명의 인력을 투입한다.

단속지역별로 박람회 조직위 직원 및 시 공무원을 배치하며 전문 단속용역업체 및 해병대 마린협회는 단속지역을 매일 순회하며 불법행위 발견 시 이동과 철거 조치를 시행한다.

또한 지역상권 활성화라는 취지에 동참하고자 순천대학교상가변영회, 금당중앙상가 변영회에서도 계도활동에 참여한다.

위반행위 발견 시에는 사전계도와 자율정비 절차를 거치며 자율정비 불이행시 강제 수거 조치 등 필요 시 경찰과 함께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노점상(잡상인) 이용안하

기, 주민 보행권 되찾기 등 홍보·계도 활동도 추진한다. 박람회장 주변 및 단속지역에는 현수막 등을 부착하여 시민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고 홍보전단도 읍면동 및 민간단체에도 배부할 계획이다. 또한 일류순천시민운동본부 등과 함께 캠페인도 실시할 예정이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은 공무원들의 노력만으로 안된다. 시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지지 않으면 한 단계 올라서지 못한다”며 “품격있는 시민들께서 깨끗하고 안전한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불법 노점상 이용하지 않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병수/기자



완주군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행위 지도점검

완주군이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행위를 지도 점검한다.

17일 완주군은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 주차차 신고 등 불법행위 신고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홍보 및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기차 충전구역내 불법행위 신고건수는 14일 기준 2021년 5건, 2022년 147건, 2023년 42건으로 증가했다.

또한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시행(22.1.28)에 따른 충전구역 의무설치 대상이 늘어남에 따라 전기차 충전구역을 명확히면서 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신고 건수는 더욱 급증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완주군은 전기차 충전구역의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공동주택(아파트) 등 주민신고가 빈번한 지역에 대해 2월말까지 홍보를 강화하고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20일에는 전라북도도와 합동점검도 진행한다.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는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임을 알 수 있는 표시가 된 모든 주차구역이 단속대상이다.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는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내 일반차량 주차 행위(10만원) △충전구역내나 주변 또는 진입로에 물건적치 및 주

차행위(10만원) △충전을 위해 주차시간(급속1시간, 완속 14시간) 경과 후 주차하는 행위(10만원)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 고의 훼손행위(20만원) 등이다.

완주군은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시행에 따른 계도기간을 거쳐 금년도 1월부터 친환경자동차 불법행위 신고민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임동완 자원순환과장은 “친환경자동차 주차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광수/기자

경기문화재단, 2023-2024 문화누리카드 기획프로그램 '슈퍼맨 프로젝트' 참여가맹점 모집

2023년 문화누리카드, 경기지역 48만 명 기초·차상위 대상 529억 원 지원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유인택) 문화누리카드 2023-2024년 경기지역 문화누리카드 기획프로그램 '슈퍼맨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획형 가맹점을 모집한다.

'슈퍼맨 프로젝트'는 경기도 내 문화누리카드 이용자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자발적 카드사용이 어려운 계층(어르신, 장애인 및 단체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카드 사용 방안 마련을 위해 진행되는 프로젝트로 경기문화재단과 문화예술·여행·체육 분야 전문단체가 협업하여 기획하는 경기도 문화누리카드 전용 프로그램이다. 문화누리카드 사용자들의 특성을 반영하여 총 4가지 분야(모셔오는 슈퍼맨, 찾아가는 슈퍼맨, 문화상품 슈퍼맨, 경기문화누리카드공인몰)로 운영한다. 이번 공모를 통해서 ▲공연·체험·여행 등의 콘텐츠와 함께 편의서비스(이동차량·식사 등)를 제공하는 '모셔오는 슈퍼맨'과 ▲전문 단체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는 형태의 프로그램인 '찾아가는 슈퍼맨', ▲전화결제 가능한 가맹점의 문화상품 및 문화예술 체험키트를 편리하게 구매하여 배송 받는 서비스인 '문화상품 슈퍼맨' 분야를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경기지역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으로, 접수일 기준 가맹점 등록이 완료되거나 진행 중인 전문 단체 또는 사업장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가맹점은 문화누리카드와 '슈퍼맨 프로젝트'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및 상품을 구성하여 제안해야 하며, 최종 선정된 가맹점은 '슈퍼맨 프로젝트' 홍보물 내 프로그램 및 상품 소개, 온라인 홍보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접수 기간은 2월 16일부터 3월 6일 18:00까지이며, 접수 방법은 경기문화재단 누리집 또는 경기문화누리카드에서 지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경기도, 경기문화재단이 도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여행·체육활동 향유 기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경기도 내 약 48만 명의 대상자가 개인별 연간 11만원의 카드를 지원받을 수 있다.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전국 주민센터 또는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을 통해 발급이 가능하고, 12월 31일까지 전국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모집 대상은 경기지역 문화누리카드

조혜영/기자



2023-2024 경기 문화누리카드 기획프로그램 슈퍼맨 프로젝트

기획형 가맹점 모집 공고

공모기간 2023.2.16.(목) - 3.6.(월) 18:00까지

경기문화재단 문화누리카드에서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 이용자를 위한 기획프로그램 '슈퍼맨 프로젝트'에 참여할 문화예술·국내여행·체육분야 기획형 가맹점을 모집합니다!

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란?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국내여행·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로, 기획재정부 차관위탁의 차관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 공익사업입니다.
※ 2022년 기준 지원액 111억 원(예산) / 48만 명(대상)

<슈퍼맨 프로젝트>란?
카드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장애인 및 단체프로그램이 필요한 카드 발급시설 등을 대상으로 수혜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경기문화재단과 공모 선정된 가맹점이 협업하여 운영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신청자격 (필수)	- 접수일 기준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등록이 완료되거나 진행 중이며, 경기도에 위치한 가맹점 - 2023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가맹점		
모집분야	모셔오는 슈퍼맨 공연 및 전시 관람, 문화재, 여행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편의서비스를 함께 제공하여 구성하여 운영 - 여행, 공연, 식사 등	찾아가는 슈퍼맨 공연, 체험 등의 수행 단체, 외부활동이 어려운 계층을 위해 현장으로 직접 방문하여 프로그램 운영	문화상품 슈퍼맨 문화누리카드 결제 범위를 넓혀 다양한 상품 구매 가능 - 문화상품, 체험키트, 단체 운영
접수방법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 또는 경기문화누리카드 누리집에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후 메일 접수(jgpc@ggpc.com)		
결과발표	2023년 3월 13일(월) 예정,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안내	문의	경기문화재단 생활문화팀 문화누리카드 031-296-1655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경기도, 경기문화재단, 국민체육진흥공단, 경기문화재단

고양문화재단, 2023 별모래PICK 시리즈 첫 번째 공연으로 연극 '리브레터' 선보여

“아날로그 감성을 깊이 물들이는 단 하나의 작품”

고양문화재단은 2023 '별모래 PICK 시리즈'의 첫 번째 작품으로 2022년 관객과 평단의 호평 속 전석매진의 흥행돌풍을 일으킨 연극 '리브레터'를 3월 11일과 12일, 양일간 고양어울림누리에서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오직 두 사람이 주고받은 편지로 관객을 바라보며 333통의 편지를 읽어 나가는 독특한 형식으로, 배종옥, 장현성 두 배우가 섬세한 표정과 목소리로 연기에 관객의 상상력을 끌어올린다.

2021년 새롭게 선보였던 '별모래 PICK 시리즈'는 대중 친화적이며 남녀노소 다양한 계층의 관객이 즐길 수 있는 공연으로 구성, 스테디셀러를 엄선하여 선보인다는 의미의 'PICK'을 시리즈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다. 2021년에는 연극 '오만과 편견', 송소희와 두번째달 콘서트 '모던민요', 2022년에는 뮤지컬 '유진과 유진', 뮤지컬 '앤 ANNE', '이처럼 판소리'를 선보이며 자리를 잡아오고 있다.

2023년 첫 번째 작품 연극 '리브레터'는 전 세계 다양한 공간에서 공연된 작품이며, 현재까지 30개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 국가에서 공연된

스테디셀러 작품이다. 편지뿐만 아니라 독특한 상상력을 자극하는 연극으로 유년 시절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약 50여 년간 '멜리사'와 '앤디'가 주고받은 편지뿐만 아니라, 배우들의 섬세한 움직임과 표현, 오직 텍스트의 힘으로 관객에게 울림을 선사하며 상상력을 극도로 자극하는 매력적인 작품이다.

배종옥과 장현성은 2022년 공연을 마친 후 "대본을 외우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쉽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어려운 작품일지 몰랐다"며 "관객이 우리의 이야기가 머릿속에 그려질 수 있게 전하러 노력했다"고 전했다. 지난 연습기간 동안 배우들은 엄청난 감정이 축약되어 있는 이 텍스트들이 세밀하고 디테일한 분석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던 만큼 섬세한 표정과 목소리의 변화 및 강약 등으로 감정을 온전히 쏟아냈으며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우리가 잊고 살았던 '소통'이라는 의미를 되새겨줌과 동시에 아날로그 감성을 상기시켜주는 연극 '리브레터'는 SNS 등을 통해 다양한 소식과 이벤트를 공지할 예정이다.

한영기/기자



수원시립미술관, 22일 '문화가 있는 날' 에르빈 부름의 전시 무료로 관람하세요



경기도 수원시 수원시립미술관(관장 홍건표)은 2월 22일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무료 개방한다. '문화가 있는 날'은 『문화기본법』 제12조 2항에 근거하여 국민의 일상 속 문화향유권 확대를 통한 문화적 삶의 실현을 목적으로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인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정한 날이다.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수원시립미술관은 무료 개방을 통해 많은 시민들이 미술관 전시를 관람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이다. 현재 수원시립미술관은 조각을 새

롭게 조각한 세계적인 조각가 에르빈 부름의 국내 최대 규모의 전시 《에르빈 부름: 나만 없어》를 개최 중이다. 11m 높이의 대형 니트 스웨터인 '사순절 전'(2020), 녹아내리는 건물 조각, 관람객 스스로가 조각이 되어보는 '1번 조각 시리즈' 등을 통해 유쾌하게 사회를 풍자하는 작가의 생각을 엿보고 현대미술에서의 조각의 의미를 되새겨본다. 수원시립미술관 관계자는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많은 시민들이 무료로 전시를 관람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조혜영/기자

“이번주 토요일엔 뭐할까?” 자녀와 손 잡고 제천으로!

제천시 유관 5개 기관은 매주 토요일 아동, 청소년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토요일 프로그램은 ▲도시재생 복합문화공간 화담(花談), ▲의림지역사박물관, ▲하소생활문화센터 산책, ▲영상미디어센터, ▲청소년문화공간 꿈뜨락 등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며, 일부는 상시 운영하나 월요일은 대부분 휴관한다.

일부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이 필수이고, 더 자세한 사항은 각 기관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전화하면 된다. 청소년문화공간 꿈뜨락은 9시부터 24세 청소년만 입장가능하니 유의해야 한다.

▲화담(花談) : 송의로 1길 12(화산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일환으로 건축된 마을창작소 화담은 칠성봉 제7봉(남산 정봉산) 일원에 의병공원과 함께 조성됐다. 작년 11월 개관해 올해까지 2천여명의 방문객이 다녀가며 입소문이 났다.

어른들을 위한 공간은 1층이다. AI바리스타(LG CLOI)가 화담 카페에서 커피를 내려주고, 힐링안마존에서는 고급 안마의자를 이용할 수 있다. 가격은 3,000원 ~ 8,000원이다. 이 밖에도 드라이브 스루(Drive Through) 차에 탄 채로 이용할 수 있는 카페), 다목적 스마트룸, 카페 테라스 등이 있다.

아이들을 위한 공간은 2층 스마트 놀이공간 스포츠존이다. 2시간 기준 평일은 8,000원, 주말은 10,000원이며, 축구, 사격, 스키시, 양궁 등 6개의 가상 콘텐츠를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다. 2시간 운동하면 그야말로 진땀이 난다.

이 밖에 호화로운 전직인 칠성봉



7봉우리를 오르면 AR관광 망원경으로 제천시내를 조망할 수 있다. 바로 아래 쪽에는 의병공원(놀이터)도 있다. 밤이라도 의병스토리를 담은 미디어파사드, 은하수 LED산책로, 야간경관 조명 등이 조성되어 있어 경관을 즐겨볼 수 있다.

▲의림지역사박물관 : 의림대로47길 7(모산동)

현존하는 최고(最古) 농경 수리시설인 의림지를 담은 박물관이다. 의림지 관개방법, 생태 등을 전시하고 있으며, 제천의 선사, 역사 시대를 모두 아우르고 있다.

여기서는 매 주말마다 선착순으로 방문객에게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어린이 체험실은 휴관일을 제외하고 상시적으로 오전 10시 ~ 오후 5시까지(6회차) 운영한다. 만11세 이하 어린이 및 보호자가 참가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매주 토요일 의림지와 관련된 다양한 연계교육 프로그램, 가족교실 등을 운영한다.

▲하소생활문화센터 산책 : 용두대로15길 18-13(하소동)

개관 9개월만에 누적방문객 10만명을 돌파하며 지역 문화센터이자 도서관으로 자리잡은 산책은, 지하 1층 주차장, 지상 3층 어린이열람실, 4층 열람실 등으로 약 2,570㎡ 규모다. 상시적으로 도서대여가 가능하고,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주말 프로그램을 운영해 유명 작가 강연, 동화콘서트, 뮤지션 공연, 어린이 영화 상영 등을 진행한다. 사전예약 또는 궁금한 사항은 산책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제천영상미디어센터 봄 : 의림대로 242(청전동)

영상 등 미디어 교육센터 '봄' 3층 상영관에서도 매주 토요일 2시 가족들이 함께 관람할 수 있는 영화를 상영한다. 매일 초 상영 영화를 누리집에 안내하며, 전화로 선착순 접수하면 된다.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성인, 가족을 위한 영화도 상영한다.

▲제천시청소년꿈뜨락(樂) : 청전대로 172(청전동, 청전지하도로) 20년간 방치됐던 청전지하도로를 리모델링해 작년 4월 문을 열었다. 청

소년(9세~24세) 전용 공간으로,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10시 ~ 오후 8시까지 이용가능하다. 영화상영부터 보컬/댄스/밴드 연습실, 동아리방, 포켓볼, 미디오 제작실 등 다양한 활동을 상시적으로 할 수 있다.

▲신나는 토요일 즐기고 다음날은 휴잇(休 with)제천!

토요일을 신나게 즐겼다면, 제천 특유의 풍광과 분위기를 마무리하는 것을 추천한다.

대표적인 제천 관광코스인 ▲시내(도심) 방면은 의림지(의림지역사박물관, 에코보릿지)~삼한의 초록길, 3개(내도, 중앙, 역전) 삼성장, 달빛정원, 가스트로(미식) 투어가 있다.

시내 20분 거리에 ▲봉양·백운 방면으로 배운정지, 탁사정, 박달재, 세계기독교박물관, 한방엑스포공원, 자양영당이 있다. 시내 30분 거리에는 ▲청풍·수산 방면으로 금수산과 정방사, 청풍호반 케이블카&모노레일, 청풍문화재단지, 옥순봉과 출렁다리, 슬로시티 수산과 축백술 유명 관광지가 있다. 이 밖에 ▲덕산·한수 방면으로 월악산국립공원, 송계계곡, 덕주사 등을 추천한다.

2박 이상으로 2개 이상 코스를 연계하면 제천을 더욱 알차게 즐길 수 있다. 이 밖에 더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 문화관광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제천시관광정보센터 또는 제천시관광협의회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제천은 호국불교부터 의병에 이르기까지 역사와 전통을 지키며 성장해온 도시"라며 "앞으로도 제천의 장점을 알리고 여행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인천 서구문화재단, 올해 주요 사업 발표...21일 사업설명회 개최

서구문화재단이 오는 21일 올해 재단 주요 사업을 발표하고 구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서구민과 예술인'이 함께 하는 통합 사업설명회를 가

구민 요구 등을 반영한 최종 사업계획을 수립해 구민이 주체가 되는 진정한 문화자치를 구현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단은 인천문화재단 예술인지원센터가 추진하는 지원사업,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복지사업을 함께 소개하며 서구 예술인이 든든한 활동기반을 마련하고 자립과 성장을 꿈꾸는 생태계를 만들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어 재단 관계자는 "서구민이 함께 체감하는 문화 기반을 확장하고 활력이 넘치는 도시 문화를 위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설명회 참여는 온라인으로 사전 신청을 받고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종남/기자



조혜영/기자

[덕암칼럼] 반드시 오고야 말 2050년

오늘은 그리 멀지 않은 27년 이후로 가보자. 최근 국회에서 독거노인들의 공동체 주거 공간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2025년에는 국민 5명 중 1명인 20% 2050년에는 40%로 두 배 늘어난다. 이중 절반 이상이 홀로 남는 독거노인으로 전락하게 되는데 남녀가 따로 없다.

독거노인의 경우, 심리·사회·신체·경제적으로 어려운 문제에 노출돼 있어 국가와 지역 사회의 지원이 필요하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발생한 고독사 중 43%가 65세 이상 노인이었으며, 고독사 한 독거노인의 약 80%가 경제적 빈곤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이 그 증거라 하겠다.

아직은 그리 심각성을 체감하지 않겠지만 자고 일어나면 하루에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의 사체가 알아볼 수도 없을 만큼 부패해있는 상황을 맞이한다던데 그리고 그러한 현상이 무감각해질 만큼 만연하다면 과연 주모의 장려는 누가 치러줄 것이며 방자에 대한 유족은 기대조차 못한 미래가 찾아올 것이다.

급증하는 독거노인 고독사는 통계상 당연하다.

베이비부머 시대 5남매·8남매의 다산시대 주역들이 노령에 도달하기 때문인데 예방은 물론 일상적으로 서로의 안부를 묻고 챙길 수 있는 공동 주거용 시설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우선 급한 대로 마을회관·경로당 등을 개조하여 공동생활을 준비하고 있지만 공공시설 특성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기에는 불편한 점이 많다.

정부도 노인형 공동주택을 도입하여 식·문화생활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개발한다고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국민연금 은 고갈되고 환경보호 정책의 강화로 주위 팔 파지도 없는 세상이 오면 어르신들은 머리채를 잡고 싸워야 할 수 있다. 전쟁이나 자연재해 지진보다 더 최악의 상황이 오면 유일한 대안이 윤리의 부활인데 가능할까.

물질적 대안이 없다면 정신적 자산이라도 남겨놔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견뎌 나갈 것이다.

지금처럼 10대 청소년들 중 여자 아이는 인터넷에 잠잘 곳이 없다고 올리지만 해도 수많은 원형(?)들이 등장하고 남

자 아이들이 40대를 구타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성매매 뒤통을 놓고 걸린 성인남성을 집단 폭행해 돈을 갈취하는 일은 이제 그리 낯선 뉴스가 아니다. 미성년자 성매매라는 주홍글씨만으로 짝소리 못하고 당하는 현실은 갈수록 미래 세대들의 어두운 그림자다.

아이들은 거미줄에 걸린 먹이를 무차별 폭행하며 영상을 촬영하는가 하면 범행에 가담한 무리엔 초등학생 등 촉법 소년 3명이 있었다.

지난 5년간 전국 법원의 촉법 소년 사건 접수 건수는 2018년 9,051건에서 2022년 1만6,836건으로 매년 늘었다.

이렇게 아이들의 인구는 줄었는데 사건은 늘어났다는 통계를 보면 1인당 범죄 건수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범죄 형태 또한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살인, 강도, 강간·추행, 방화, 절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 소년은 1만 1,677명이었다.

강력범죄 유형은 절도가 5,733명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 강간·추행에 이어 불을 지르거나 달아나는 방화범까지 다양했다. 부모 세대의 실업과 가출 청소년 문제, 학교 교육의 문제 등 여러 문제가 불러온 미래의 암울한 예고편이다.

일부 탈선 청소년들의 현주소가 이렇진대 집안에서 직접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또한 윤리의 붕괴 도미노 현상 앞에 망연자실 할 수 밖에 없다. 잔소리하는 부모를 경찰에 신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초·중학생 연령층에서 부모와 갈등을 겪다 의사소통이 원하는 대로 안 되면 112에 문자 메시지로 부모를 신고하는 일이 증가하고 있다. 물론 부모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범죄자가 될 것이고 이때부터 가족이라는 구성 자체는 벼랑끝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다.

성인들은 걸핏하면 파파라치 형태의 신고가 마른 들판에 불붙듯 서로 미워하고 분노하며 아이들은 흉포해지고 어린이는 부모를 신고하는 나라, 이게 맞는 것일까. 학교에서는 부모가 학대하면 곧장 신고하라고 가르친다.

부모의 훈육 이유가 어떤 것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 학대의 범위나 형태를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고 신고하라고만 하면 뒷감당은 누가 할 것인가.

과거에는 체벌을 당해도 학대인지 인식을 못 하고 넘어갔다. 요즘에는 학대 예방 교육을 철저히 해 경찰 신고로 이어지는 것이다.

학생으로부터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 경찰이 즉시 출동하고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하면 구청에 알려 공동 대응하는데 여기까지 오면 가족간의 불신은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게 된다.

잔소리만 해도 맞았다고 신고하는 경우도 속출했다.

이렇게 자립적 정서조차 미성숙한 상태에서 성장한 어린이들이 훈육과 교육의 그늘에서 벗어나면 가치관에 대한 중요성도 모른 채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어 사회에 진출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왜,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그렇다면 지금 어쩌야 하는 것일까.

학교에서 가정폭력을 방관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기준점은 알려주고 부모 훈육의 중요성도 알려줘야 하는 것 아닐까. 눈만 뜨면 사람 죽이는 스마트폰 게임과 선정적인 음란물이 손쉽게 노출되는 환경, 10대 혼속장소가 버젓이 카페라는 이름으로 성업하는 환경, 이렇고도 지금의 어린이, 학생들이 성장해서 사회의 주역이 되었을 때 제대로 대우해 주길 바란다. 이런 아이들이 앞으로 27년쯤 지난 뒤 2050년에는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그런데 지금 젊은이들은 결혼을 안 하고 여자는 아이를 낳지 않으며 약과 의술이 좋아 안 죽고 버티는 사람만 들어나니 평균수명은 늘어난다.

현 상태라면 1987년생이 27년 지난 2050년 65세 이상이 되고 그 숫자가 전 국민의 40%를 넘는다. 지금 여야 국회의원을 대략 60세 전후로 추정할 때 87세가 될 것이고 필자 또한 86세가 될 터인데 나라를 이렇게 망쳐놓고 그 대가를 어찌 치를지 참담하기 그지없다.

그때 가서도 싸울 것인가. 물론 전국민이 다 그렇다는 뜻은 아니다. 하지만 연못 속 미꾸라지 면 마리가 흙탕물을 일으키면 연못 전체가 흐려지는 것이며 악마의 유혹이 속도가 빠른 것이다. 난세에 영웅이 난다했다. 정부가 가장 급선무로 만들어야 할 부서는 국민윤리부다.

(박근종 칼럼) 물가는 천정부지, 대응은 조삼모사, 서민만 고통가중

정부가 지난 2월 15일 서민층의 생계비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한 서민경제안정 대책을 내놨다. 물가와 민생안정을 위해 총력전에 돌입한 것이다. 도로·철도·우편 등 공공요금을 상반기에 최대한 동결하기로 했다. 난방비 급등에 대처하기 위해 전기·가스요금의 인상 폭과 인상 속도를 조절하고, 취약계층에 한시적으로 요금 분할 납부를 허용하기로 하며, 금융권의 대출이자자와 통신사들의 통신비를 줄여주도록 하는 내용 등이 핵심 골자다.

또한 은행과 통신 산업에 대해선 과점체제를 해소하기 위한 장기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경쟁 시스템 강화 방안도 마련해나갈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의 알뜰교통카드 지원 횟수를 늘리고 대중교통 금액 소득공제를 지난해처럼 80%로 높여 적용하겠다고 했고, 교육부는 내년까지는 등록금 인상 논의를 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으며, 서울시는 4월로 예정됐던 지하철·버스 요금 인상을 하반기로 미루기로 했다.

통신업체들은 3월 한 달간 대량의 데이터를 무상 제공하는 방안을, 은행권은 서민금융상품 확대 방안을 서둘러 내놓았다. 하지만 당장 고물가·고금리에 신음하고 있는 서민층의 고통을 덜어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대책이어서 얼마나 서민들의 삶을 품고 보듬어 줄지는 의문이 든다.

이날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는 "비상한 각오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살피겠다."라고 강조하며, 공공요금, 에너지요금, 통신비용, 금융비용 등 '4대 민생' 분야의 지출 부담을 줄이겠다는 '물가·민생경제 상황 및 분야별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주요 민생 분야를 다뤘지만, 정부 예산이 거의 투입되지 않다 보니 지원 수준이 반박할 수밖에 없다. 정부와 공공기관은 이미 발표한 정책을 조금 구체화하거나 난방비 할인 대상에 등유·액화석유가스(LPG) 이용 취약층도 포함하는 등 몇 가지 대책을 추가하는 데 그쳤다.

겨울철에 등유와 액화석유가스(LPG)를 이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59만2000원 수준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한다. 그러나 수혜 가구는 등유 15만6000가구, LPG 3만4000가구 등 총 19만 가구에 불과하다. 또한 '에너지 캐시백'제도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전 년 동기 대비 도시가스 전기 사용량을 일정량 이상 줄이면 현금으로 돌려주는 현 제도의 지급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것인데 기존 캐시백 제도도 활용률이 높지 않았는데 절감액이 크지 않은 데다 가입방식을 간소화하기로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모든 대안을 열어두고 은행·통신 시장의 과점을 해소하고 경쟁

촉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라고 지시했다. 과점체제인 은행·통신 산업을 사실상 '완전 경쟁' 체제로 전환하려는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다. 그러나 금융·통신 관련 지원은 거의 민간에 맡기는 방식이다. 금융권은 사회공헌기금 5천억 원을 재원으로 취약차주에게 긴급생계비 대출 등의 지원에 나선다. 통신사는 3월 한 달간 이용자들에게 데이터를 추가 제공하기로 했는데 이는 통신비 절감 대책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시장 경쟁이 활성화돼야만 소비자 편익이 증가하는 만큼 원론적으로는 맞는 정책이지만 적실성(適宜性 | Relevancy)이 얼마나 있을지는 의문이 많이 든다. '완전 경쟁 체제'와 '공공성'이 상충한다는 점에서도 시장의 혼란은 불가피하다.

은행 관련 대책으로 '예대금리차' 축소를 지시했는데, 시장 혼란을 부추기지는 않을까 우려된다. 최근 은행권 사상 최대 실적 배경을 과도한 예대마진(예대금리와 대출금리 차이)으로 지적하면서 예대금리차가 높은 지방은행들이 비상에 걸렸다. 특히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의 평균 예대금리차가 1.17%인데 반해 전북은행은 6%대로 가장 큰 예대금리차를 기록했다.

무엇보다도 금융당국은 지난해 은행들에 예대금리를 올리라고 했다가 이것이 은행의 수신 비용 증가를 초래해 대출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자 최근 다시 인하를 압박했다. 정부의 시장개입이 지나치면 부작용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은행의 추가 진입 허용 같은 방안도 거론되는데,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상태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내놓은 대책 역시 아쉽기는 마찬가지다.

3월 한 달 동안만 19세 이상 가입자를 대상으로 30GB(기가바이트) 분량의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한다지만 3월 한 달만 유효한 조치라 실질적인 경감 효과는 턱없이 작다. 고가의 요금제를 사용하는 소비자는 추가 데이터를 제공해도 다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도 소비자가 실제로 쓰는 데이터양보다 비싼 요금제 가입을 유도하는 기형적 구조이기 때문이다.

지나해 이동통신 3사의 합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8.6% 늘어난 4조3835억 원이다. 최대의 영업이익을 내고도 5G 요금제 개편에 소홀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무료 데이터 제공도 필요하겠지만 보다 합리적인 요금제 개편 노력도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 미사용 데이터를 다음 달로 이월하거나 요금을 한시적으로 깎아주는 대책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난해 KT와 LG유플러스로부터 회수한 28GHz(기가헤르츠) 대

역의 5G용 주파수를 활용해 새 사업자 선정할 준비도 있다.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은 긍정적이지만 기존 이통사들도 현재 사업성이 없어 사실상 미루고 있는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경쟁 촉진은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부작용은 없는지, 현실성은 있는지 등을 촘촘히 살펴야 한다.

물가는 올해 들어서도 전년 대비 5% 넘게 천정부지로 고공행진 중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올 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0.11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5.2% 올랐다. 인플레이션으로 가계의 실질소득은 계속해서 뒷걸음치고 있다.

2021년 한국의 엔겔지수는 12.8%였다. 얼얼한 내수는 풀릴 기미가 없고, 반도체 수출 등이 격감하면서 1~2월 무역수지는 사상 최악을 기록했다. 실제 올해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이달 10일 누적 기준 176억6000만 달러에 이르는 적자를 내면서 부진을 이어가고 있다.

1.25%포인트(상당 기준)에 이르는 미국(2월 1일 기준 연 4.50~4.75%)과의 금리 격차를 고려하면 한국은행 기준금리(1월13일 기준 연 3.50%)는 더 오를 수밖에 없다. 정부는 공공요금 인상을 하반기로 미뤘지만 그 사이 경제가 획기적으로 나아질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다. 이미 내년엔 1%대 저성장이 예고됐었지만, 대내외 여건이 더 나빠져 제로 성장을 걱정해야 할 지경이다.

한국전력 적자가 지난해만 30조 원인데 전기·가스 요금 인상 폭과 인상 속도를 조절하는 것만으로는 분명한 계가 있다. 전국 도시철도의 누적 적자도 무려 24조 원에 달한다.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로는 민생을 구제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데다 그마저 동쪽 방뇨(凍足放尿 | 언 발에 오줌 누기)이다.

6개월 뒤 청구서에 추가돼 날아오면 결국에 세금으로 매워야만 하기 때문이다. 조삼모사(朝三暮四 | 자기의 이익을 위해 교활한 꾀를 써서 남을 속이고 놀림)식 미봉책(彌縫策)이나 음집지갈(飲鴆止渴 | 목마름을 달래기 위해 독이 든 술을 마셔 갈증을 품)식 자충수(自充手)로는 서민들을 살릴 수 없고 물가도 잡을 수 없다.

재정건전성과 감세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민생도 안정시킬 수 있는 만능 도깨비방망이는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재정건전성과 감세라는 불가능한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 기조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서둘러 대전환을 바란다.

박근종 작가·칼럼니스트 (현, 서울시자치구공민이사장연합회 회장, 성북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전소방준감, 서울소방제1방면지휘본부장, 종로소파관악성북소방서장)



www.bonghwa.go.kr

봉화군 물야저수지 3색 힐링의 옷을 입다!

그저 흔한 저수지, 새로운 관광명소로 재탄생하다!

일반 저수지에서 친환경 웰니스 관광자원화 사업(V로드 조성사업)을 통해 총 3개 구간에 차별화되고 특색있는 콘텐츠를 담아 새로운 관광명소로 재탄생합니다.

물야 오전리, 『娛(즐거울 오) 虞(터 전)』 즐거움이 가득한 장소로 거듭나다!

오전리는 보부상이라는 역사적인 가치와 매력에 충만한 스토리가 있는 곳으로 V로드에서부터 오전약수관광지까지 봉화 보부상들의 발자취를 느낄 수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한 친환경 힐링도시 '봉화군'!

오전약수관광지를 비롯해 아시아 최대 규모의 국립백두대간수목원과도 연계가 가능한 지역 관광명소 중 하나로서 친환경 웰니스 관광자원화사업(V로드)을 통해 지역의 대표 관광지로 거듭날 것입니다.

봉화군

영양 들어다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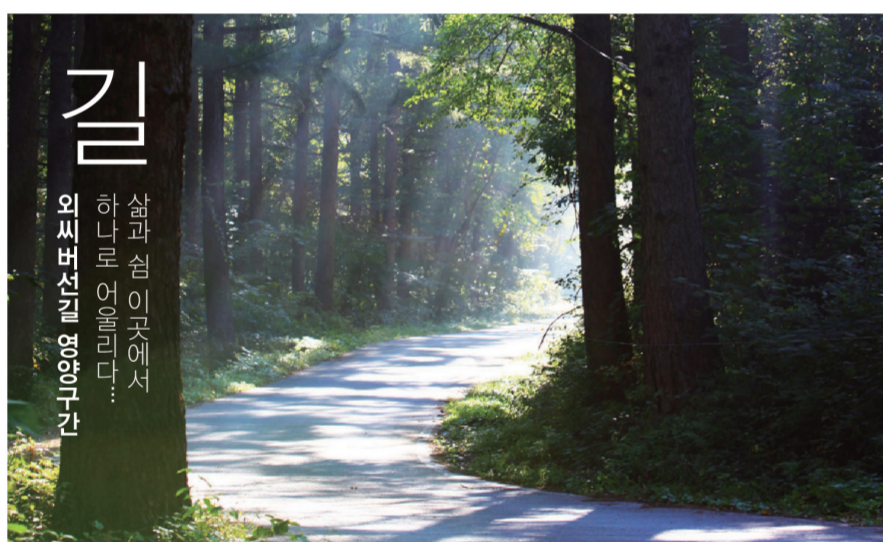
영양군
YEONGYANG-GUN
www.yyg.go.kr

한걸음 다가갈수록
영양의 속살이 느껴집니다
하루라도 좋고
며칠 묵으시면 더 좋습니다
찾아낼수록 매력이 샘솟는
영양으로 오세요



ZO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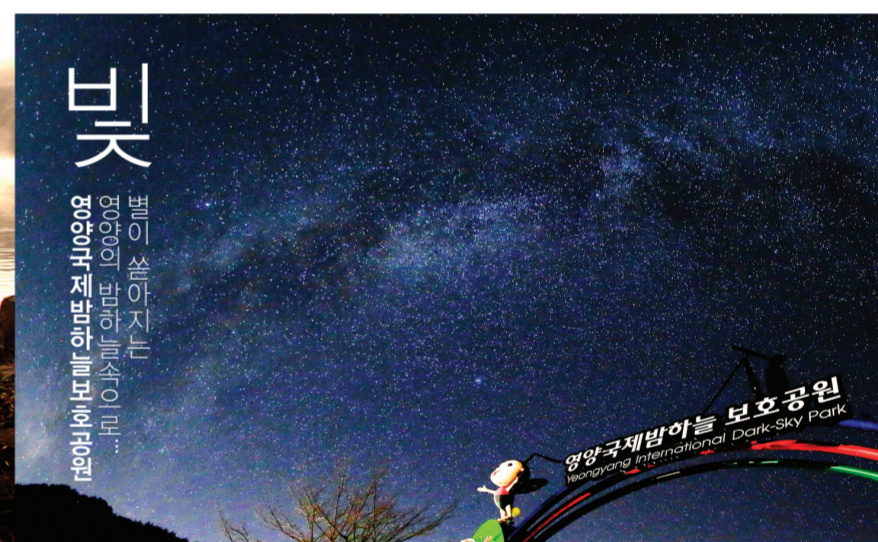
들어다볼수록 매력이 솟아나는 영양나들이... 마음을 두고온 **영양**, 사진에 담아온 **영양**



길
삶과 숨이곳에서
아름답게 영예롭고
역사적으로 영영하는



물
영양이 흐르는
영양이 흐르는
영양이 흐르는



빛
별이 쏟아지는
영양이 밤하늘을
영양이 밤하늘을



얼
시공간의 대가
영양서적지



맛
사백년 이어온
반가의 레시피...
장계향의 음식디미방



심
자연과 벗하던 선비의
기품이 깃들다...
영양연서정



숲
한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숲...
조지훈과 주실마을

감동을 이어가는 스토리텔링! 영양나들이

- **영양의 자연**_일월산, 선바위와 남이포, 삼의계곡, 수하계곡, 본신계곡, 침벽공원, 측백수림, 외씨버선길
- **영양의 역사**_음식디미방, 서석지, 두들마을, 주실마을, 감천마을, 지경마을, 금촌마을, 검산성, 옥산마을
- **영양의 박물관/공원**_영양국제밤하늘보호공원, 반딧불이천문대, 영양생태공원, 영양고추홍보전시관, 일월산자생화공원, 영양풍력발전단지, 흥림산자연휴양림, 양양산촌생활박물관, 분재수석야생화전시관

